

로봇 스파이 전쟁

K. 브루크너 지음

이인석 옮김

책머리에

세계의 2대 강대국 미국과 소련은 곧 열리게 될 만국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로봇의 제조를 서둘렀습니다. 두 나라의 최선의 과학진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로봇 제조 계획을 진척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스파이는 서로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활약하였습니다.

(설계서를 훔쳐내라!)

스파이들은 엄중한 감시망을 뚫고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 개의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의 남자 로봇 윌리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감정도 없고 웃을 수도 없게 만들어진 소련의 여자 로봇 나타샤, 모두 각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만들어진 초 고성능의 로봇입니다. 마침내 두 로봇은 만국 박람회에 출품되어 최고의 인기 속에 연일 구경꾼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차 례〉

윌리엄 계획	6
스파이 AE3호	14
도둑맞은 설계도	22
여자 로봇	30
에머슨의 전화	41
바꿔친 가방	50
유혹의 손길	56
전자 두뇌를 장치하다!	67
떠나는 기차는 타지 마라	78
리허설	84
목에 꽃힌 바늘	97
화성인	107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113
목도리를 두르고	121
로봇의 파업권	128
나가사키에서 온 노인	139
금세기 최대의 연애극	145
국무성 다방에서	154
우리를 떼어버려라	164
모스크바에서의 긴급 전화	174
멋진 생각	179
모두모두 손을 잡자	188

신랑 신부처럼 196

작품 해설 204

등장 인물

윌리엄 :만국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미국 남자 로봇. 소련 로봇 나타샤를 좋아하나, 만날 수 없게 되자 데모를 한다. 마침내는 나타샤와 함께 우주여행을 떠나게 된다.

나타샤 :소련의 공산주의 과학자들에 의해 감정도 없고 웃지도 못하게 만들어진 소비에트 부인을 상징한 로봇이지만 윌리엄과의 우정에 얽힌 이야기를 함으로서 감정적으로 메달라 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또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공산주의자인 샤체이에프로 하여금 그녀를 가두고 있던 우리를 때려부수게 만든다.

하이드 :로봇 윌리엄 제작의 주 인물. 만국 박람회에 출품된 윌리엄을 관리한다.

베벨 샤체이에프 : 로봇 나타샤를 만든 주 인물. 만국 박람회서 나타샤를 관리한다.

그레고리 리차츠프 : AE 3호의 소련 스파이.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미국인 가명을 가지고 행세하나, 스파이 혐의로 추적 당하여 궁지에 몰리게 된다.

찰리 Bing클레 :시카고 뉴스 지의 주임 기자. 나타샤와 윌리엄의 교제를 주선해 준다.

윌리엄 계획

기획실의 하이드 주임 기사의 책상 위의 시계 바늘은 11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책상을 향한 브릭스 감독관의 오른손의 손가락은 윌리엄 계획이라고 불리는 비밀 계획에 관계하고 있는 기술자와 기사와 과학자의 이름을 적은 명부위를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이드는 자기의 상관인 브릭스의 그러한 느려빠진 손가락의 움직임을 옆에 서서 바라보면서 초조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브릭스는 8시에 온다고 말해 놓고서 9시에야 왔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래, 이곳은 최근 스파이에게 당했다. 산업 스파이 담당의 중앙 정보국(CIA)이 이미 샅샅이 조사해 버린 명부를 열심히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 하이드는 브릭스가 CIA의 조사 결과를 알려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브릭스는 CIA의 보고를 전적으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왔으면 서도 마치 헌 신문지 뭉치처럼 책상 위에 던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60 페이지나 되는 보고서지만 이것 읽어보면 미국엔 산업 스파이 같은 것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겠는걸."

하고는 하이드에게 직원 명부를 가지고 오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에 관해 하이드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이윽고 브릭스는 커다란 머리를 들고 누군가의 얼굴을 애써

생각해 내려는 듯이 눈을 감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그 동안 그의 집게손가락은 램이라는 이름 위에 머물러 있었다.

"설마 물리학자인 램 교수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램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공학자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문을 가진 미국인입니다. 그의 덕분에 우리들은 로봇에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었답니다."

라고 하이드는 말했다.

브릭스는 손을 저어 하이드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뭐, 램 교수가 수상쩍다고 하는 게 아닐세. 그의 일이라면 나 자신이 보증할 수 있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네. 월드 트리분지에 실려 있던 이 기사 말일세. 그건 그렇다 치고 윌리엄 계획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면 이 계획을 외부에 새어내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몇 사람 안 된다는 사실은 자네도 인정하겠지."

"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엘리엇, 스콧과 에머슨, 램, 그리고……"

하이드는 여기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나지. 나는 이 극비 계획을 실행할 팀을 구성하도록 국무성에서 명령을 받았네. 이번 만국박람회에서 일대 센세이션 (인기·이목 끌기)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계 인간, 즉 전자 두뇌를 가진 로봇을 만든다는 이 계획을 맨 처음에 들은 것도 나일세. 그렇게 친다면 내가 베테랑 기자의 수단에 넘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 버렸으리라고 생각한데도 어

쩔 수 없지 않나."

그는 지그시 허공을 바라보면서 별 신통한 방법이 없는 모양인지 왼손가락으로 흰 머리카락을 북북 긁었다.

"대단히 실례가 되는 질문입니다만 국무성 안에서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브릭스는 머리를 긁다 말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난 바로 사표를 내고 나의 결백을 밝혀 낼 수 있게 조사해 달라고 그랬을 걸께. 아닐세, 아니야. 문제는 자네가 생각하는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네. CIA의 조사에 따르면 이 신문 기사……"

그는 서둘러 신문을 집어들었다.

"이 기사는 월드 트리뷴지의 기자가 쓴 게 아닐세. 유료 광고로 게재된 거란 말일세. 알겠나? 누군가 써서 게재한 거란 말이네."

브릭스는 새빨간 색연필로 둘러쳐진 몇 줄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시카고 발. 5월 13일.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만국 박람회 출품할 로봇 윌리엄은 몇 나라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윌리엄은 인간의 말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사물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이드는 흥분해서 말했다.

"이것을 쓴 놈은 램 교수의 전자 공학의 연구가 얼마만큼 훌륭한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램 교수의 용의는 풀린 것이 됩니다. '과연 사물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가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나? 나는 램 교수를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다네. 이걸 쓴 놈은 이 정보를 연구팀의 간부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제도 사며 기사들 중에서 얻어냈을 걸세."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들 간부 직원의 명부를 그렇게 오래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신문 기자에게 윌리엄 계획의 진행 상태를 질문 받았을 경우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당당하게 윌리엄은 이제 곧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걸세. 즉 스파이를 써서 우리들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맥이 탁 풀리게 한단 말일세. 내가 말하는 뜻을 알아듣겠나? 어째서 그런 묘한 얼굴을 하고 나를 보지?"

하이드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참 동안 브릭스를 보고 있다가 마침내 손뼉을 치며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애에게 사물을 가리키듯 브릭스의 몸에 얹드릴 듯하면서 말하였다.

"정확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에머슨, 엘

리엇, 스콧의 연구반은 윌리엄에게 수 개 국어를 말하는 장치를 완성한 뒤에 전자 트랜지스터 사고(생각하고 공리함) 장치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연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곤란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도 좋겠지요. 이 사실을 먼저 워싱턴에 보낸 암호 편지로 당신에게도 알려 드렸는데요."

브릭스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튕겨 오를 뻔했다.

"난 그런 편지를 받아 본 일이 없네. 받을 사람 이름을 잘못 쓴 게 아닌가? 아니면 아직 자네의 비서들 손에 있는 게 아닌가? 곧 조사해 보도록 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이드는 분명하게 말했다.

"편지 번호는 18이며 워싱턴에서도 그 번호의 편지를 받았다는 통지가 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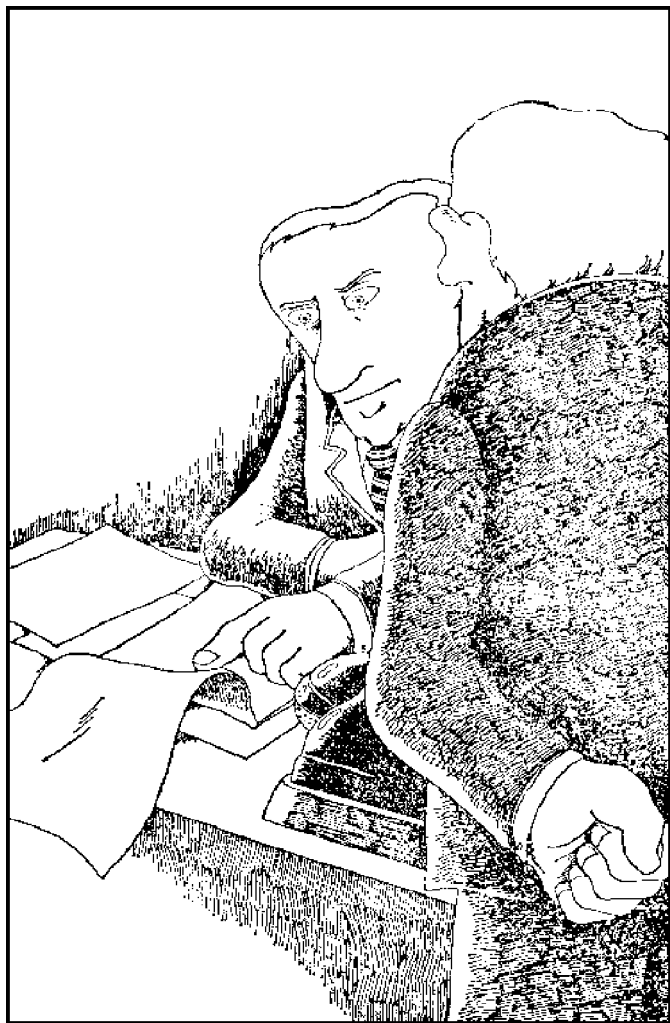
브릭스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맥이 탁 풀려 중얼거렸다.

"알 수 없는 일이군. 워싱턴의 내 비서 두 사람은 국방장관이 추천한 자들로서 절대로 신용할 수 있네. 기밀 문서는 모두 이 두 사람의 손으로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지.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건 이 두 명의 비서와 나 그리고 국무성 장관과 국무장관뿐이라네 "

"그렇지만 이번엔 누군가 열 수 있는 딴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까? 스파이들은 그 금고마저 노린 겁니다."

하이드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11 로봇 스파이 전쟁



"나로서는 어쩌서 정부가 윌리엄에 관한 일이라면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답지가 않단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며 핵 실험이며 우주 비행사들의 출발이나 귀환 같은 건은 많은 보도진을 초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우리들의 윌리엄 계획만은 일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당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는 마치 치통 환자처럼 양손으로 볼을 감싸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제 트리뷴의 이 기사로서 우리들의 계획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 개인으로선 이 일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조그만 기사 거리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따위 조그만 기사는 자칫 하면 읽지 않고 넘겨 버리기가 일쑤거든요."

"아니 이 기사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 걸세. 그 자는 틀림없이 읽고 있을 거란 말야."

브릭스는 그렇게 말하고 화가 치미는 듯,

"자네가 보낸 편지도 그놈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네."

"대체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그 편지를 집어 낼 수 있는 사람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당신의 비서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어때?"

라고 브릭스는 씩씩한 얼굴을 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농담 마십쇼. 그리고 가령 당신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집어내려고 한대도 저 바람벽 속의 금고 안에 들어 있어,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건 나뿐이니 절대로 끄집어 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하면 보여 드릴까요?"

하이드는 벽 속에 묻혀 있는 금고 앞에 서서 세 개의 열쇠로 철문을 열었다.

"설계도는 모두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이드는 말하며 도면(토목·건축 기계 따위의 구조나 설계) 몽치를 손가락질하려다 순간 새파랗게 안색이 변하며 신음하듯이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군…… 번호가 뒤죽박죽이야. 9호 도면 아래 4호 도면이 놓여 있어. 어제 저녁 번호순서 대로 차례차례 금고 안에 넣어 뒀었는데."

브릭스는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로,

"그만한 것쯤은 용서해 주게나. 그놈도 서둘렀을 테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언제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하고 조금해 하면서 사진을 찍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설계도는 전부 사진으로……"

"그렇다네. 이로써 소련의 스파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나만이 아니란 것을 알았지, 하이드 군, 자네도 노리고 있다는 말일세."

"책임은 지겠습니다. CIA의 조사고 뭐고 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이드는 말했지만 브릭스는 손을 내저었다.

"그럴 필요는 없네. 그렇지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되네. 나는 지금부터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CIA에 통지해서 적당한 처치를 취하도록 하지. 그쪽이 그런 짓을 한다면 이쪽도 쳐야지. 그들이 왜 윌리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이제 차차 알게 될 걸세."

스파이 AE3호

교차로(네거리에서) 신호가 푸른색으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의 무리에 섞여서 스파이 AE 3호는 서 있었다. 껌을 씹으며 안경을 쓴 AE 3호는 옷맵시나 말씨 어디로 보나 여느 미국인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나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은 스파이였다. 본명은 그레고리 리차초프이나 6년 전 사진 작가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가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의 어느 해안에 상륙했던 것이다. AE 3호는 사진이나 보고서를 마이크로 필름(보존을 위한 필름)에 담아 그것을 은화(은으로 만든 돈)속에 집어넣어 상부 조직에 보내고 있었다. 이 은화를 수교(수수 전해 줌)하는 상대는 얼굴만은 알고 있었지만 이름은 통 알지 못했다. 그들도 AE 3호와 마찬가지로 상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서로 전화로 암호를 써서 연락한 후에 거리나 술집 같은 데서 만나고 있었다. 은화를 주고받는 일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눈치 빠른 자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재빨랐다. 그러나 오늘은 언제나와 같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

AE 3호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신문 파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정밀 시계는 2시 15분이었다. 30초 후 AE 3호는 월드 트리분지를 집어 그걸 겨드랑이에 끼고 두 뺨의 은돈을 꺼내 한 뺨으로는 신문 값을 주고 또 다른 한 뺨의 마이크로 필름이 들어 있는 쪽은 그만 실수로 한 것처럼 길 위에 떨어뜨리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우연히' 지나가던 '친절한 사람'이 떨어진 은화를 집어서 처음부터 손에 들고 있던 보통 은화하고 바꿔치기 해서 AE 3호에게 건네주면 AE 3호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는, 전부가 5초 동안의 스토리였다. 약속 시간대로 AE 3호는 월드 트리분지에 손을 뻗었다. 거기에 한 통행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AE 3호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두 뺨의 은화를 꼬집어내 한 뺨을 떨어뜨렸다. 통행인은 등을 구부리고 그것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그 통행인은 AE 3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AE 3호는 깜짝 놀라,

"고맙소."

하고 더듬거리며 말하고는 은화를 지갑에 넣고 걷기 시작하였다. 그의 마음은 동요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화 바꿔치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꽤심한 통행인이 진짜 스파이보다 먼저 집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후딱 생각이 미쳤다. 그 통행인은 진짜로 우연히 지나쳤을까? 그 자는 CIA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자기편인 스파이는 늦은 것이 아니라 훨씬 전에 체포되어서 오늘 자기하고 만난다는 일도 모두 얘기해 버린



것이나 아닌지. 그렇지만 소련의 스파이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 그것은 역시 우연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진짜는 어디 있단 말인가?

AE 3호는 월드 트리뷴을 걸쳐들고 멈춰 서서,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슬며시 주위의 통행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패인 스파이의 모습도, 은화를 주워준 사나이의 모습도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열 발짝쯤 떨어진 보도 끝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만일에 그를 미행하고 있다면 아주 서툰 행동이었다. AE 3호는 아는 사이처럼 하고 그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 보았다. 사나이는 이상한 표정을 하고 그곳을 지나면서 지금 자기에게 인사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는 듯이 뒤돌아보았다.

AE 3호는 안심하고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누구에게 미행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가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다. 돈을 지불할 때 진열창 너머의 밖을 살펴보았지만 수상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AE 3호는 돈을 꺼내려고 지갑 속을 들여다본 순간 새파랗게 질렸다. 지갑 속에는 그 마이크로 필름이 들어 있는 가짜 은화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잘 훈련받은 눈은 한눈으로 가짜 은화와 보통 은화를 구별할 수 있었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지갑 속에는 마이크로 필름이 들어 있는 은화 외에는 그것과 같은 은화를 넣어두질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통 은화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아까 통행인이 건네 준 것이었다.

AE 3호는 다시 한 번 지갑 속을 조사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신문 판매대 앞에서 떨어뜨린 은화를 주워 준 것은 역시 CIA 사람이었던 것이다.

6년 간의 스파이 생활을 통해서 AE 3호는 지금 비로소 무릎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체포되어서 심문을 받고 투옥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스파이로서 실격자의 낙인이 찍혀 두 번 다시 그리운 조국의 흙을 밟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AE 3호는 지금 당장에라도 체포될 것을 각오하면서 가게를 나왔으나 아무도 그의 팔을 붙잡는 사람은 없었다. 그를 주목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CIA의 미행자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리만큼 교묘하게 감시하고 있었던 말인가.

그는 택시를 멈추고 타는 시늉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운전사에게 잊어버리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하고 보도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멈춰 서거나 되돌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AE 3호는 두 번째 택시를 멈춰 세워 중앙 역까지 가도록 말하고 뒤 창문으로 내다 보았으나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더욱 조심하기 위해서 두 번 택시를 갈아 타 보았으나 미행자 같은 것은 찾아 낼 수 없었다.

AE 3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스파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CIA에게 있어서 마이크로 필름이 들어 있는 은화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품이다. 그런데 어쩌서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공중 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아무도 받는 사람은 없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의 발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자꾸만 '가선 안 된다. 되돌아가라. 머리가 돌아 버리기라도 했나.' 하고 말하고 있었지만 발은 저절로 집 쪽으로 움직였다.

한편 그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이미 정체가 밝혀진 이상 아무리 변장을 하고 도망 다녀 보았자 소용없겠지.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보았자 결국은 발견되고 말테지. 그것 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상부에서 오는 전화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 알고 있으면 곧 주의하라고 소리 칠 수도 있지만 그는 스파이전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장도 훈장도 보수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자진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었다.

AE 3호는 마침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되돌아왔다. 그의 방은 6층에 있었다. 5층에서 걸음을 멈추고 6층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6층에 올라가 자기 방 앞을 지나가 보았다. 언제나 조심할 기해서 도어의 왼쪽 구석에 붙여두는 껌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가만히 열쇠를 꽂고 도어를 열었다. 방안에는 인기척이 없었으며 아틀리에 입구에 붙여 둔 가느다란 실도 끊기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수초 동안 그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으나 요란한 전화 소리에 흠칫 자기 정신으로 되돌아갔다. 수화기를 들자 언제나 그에게 지령을 내리는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상대방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야아 존슨 군, 축하하네. 자네가 찍은 야구 우승전 사진은 아주 잘 썼어. 열 장 모두 쓸 수 있네. 그런데 미안하네. 태트가 못 가게 되어 알프를 보내서, 깜짝 놀랐을 테지. 자, 그럼 이만 실례하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AE 3호는 안도의 숨을 내리쉬고 감사하다는 듯이 위를 쳐다보았다. 그는 철저한 공산 당원이었지만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에 대한 신앙은 아직 버리지 않고 있었다. AE 3호는 전화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번역해 보았다. '야구 우승전'이라는 것은 윌리엄 계획을 말하는 것이었다. '열 장 모두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무사히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태트'는 '언제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알프'는 '대신'이란 뜻이었다. 그리고 AE 3호는 '축하한다'는 찬사를 받은 것이었다. 이 '축하한다'는 것은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번 그가 세운 공에 대한 칭찬의 말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커다란 공훈이었다. AE 3호는 제도사가 되어 하이드 주임 기사의 방에 들어가 특수한 기구를 써서 2, 3분 걸려 벽 속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설계도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 온 것이었다. 금고를 열 때 쓴 기구는 미국제였다. 미국인이란 대단히 명칭하고 사람이 좋았다. 소련이라면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소련

21 로봇 스파이 전쟁



에서는 비밀을 지키는 일은 보다 더 철저했던 것이다.

도둑맞은 설계도

로봇의 가장 정밀한 부속품을 시험하는 연구실은 완전 방음 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창에는 전부 불투명한 유리를 끼워 놓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몇 장씩이나 설계도를 펼쳐 놓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며, 그 주위에 램, 에머슨, 엘리엇, 스콧이 앉고 그 옆에는 하이드 주임 교수가 컴퓨터에 넣은 복잡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에머슨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컴퓨터가 증명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나 한 것처럼 아주 자신 만만한 표정으로 커다란 코를 문지르고 있었다. 램은 불안스러운 태도로 좀처럼 빗질을 하지 않는 부수수한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긁어내리고 있었다. 둥근 얼굴에 뚱뚱하게 살이 찐, 학자라기보다는 실업가처럼 보이는 엘리엇은 오른손에 쥔 자로 왼손을 찰싹 때렸다. 그 소리에 옆에 서 있던 깡마른 스콧은 화들짝 놀라 꿈틀했다.

"좋았어!"

엘리엇이 온 방안이 울릴 것 같은 목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저것 좀 보게. 하이드 씨가 깜짝 놀라서 토끼눈처럼 하고 있는걸. 에머슨의 생각이 옳았던 거야. 어쩔소. 하이드 씨. 이번 두뇌 장치는 틀림없었죠."

하이드 주임은 다시 한 번 머릿속에서 숫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자 네 사람 쪽으로 돌아앉았다.

"아아, 멋지군! 이번 것에 비하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로봇은 어린애 장난감일세."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만약에 진짜로 소련이 스파이를 보내 우리들의 최초의 설계도를 집어갔다면 그네들의 로봇에는 우리들이 맨 처음 설계한 낡은 전자 두뇌가 되어 있을 거요. 가령 또 그 낡은 설계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네들 자신이 연구를 추진시켰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네들의 로봇의 사고 능력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람 군, 자네 말을 중단시켜서 안 됐네만 어째서 자네는 소련의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나? 소련이 우리들의 대항해서 그들의 로봇을 이번 만국 박람회에 출품한다는 것 틀림없나?"

하고 에머슨이 묻는다.

람이 대답하려고 하는 것을 하이드 주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는 램 교수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준데 대해서 감동하는 바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을 동요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소. 실은 우리나라의 첩보 기관은 지금 소련이 필사적으로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 내려는 사실을 확인했오. 따라서 그들이 이번 박람회에 그것을 출품해서 우리들에게 대항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틀림없소. 더욱이 우리들 것보다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내 설계, 아니, 우리들 팀의 설계는 전연 새로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하고 에머슨이 분개해서 말했다.

"그렇고말고, 우리들의 기술은 이미 그들이 제 아무리 애써 봐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와 있으니 말이지. 하긴 그들이 이 실험실에 연구원을 잠입시킬 수 있다면 애긴 달라지지만."

라고 엘리엇도 에머슨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아닐세, 소련의 기술자도 결코 만만치 않네. 우주 로켓 건조에서 보여준 그들의 기술을 잊어선 안 되데."

하이드가 주의시켰다.

"우주 비행 따윈 돈만 드는 쓸모 없는 장난이예요. 인류에게 있어서는 로봇 쪽이 훨씬 중요하단 말ियो. 언젠가는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가진 로봇들이 밀림을 개척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공장을 건설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로봇들이 인류에게 봉사해서 모든 인류의 꿈을 이룩해 주는 시대 말입니다."

라고 스콧은 외쳤다.

"소련과의 경쟁? 좋고말고, 그것이 좋은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들의 기술은 보다 더 진보하는 걸세. 그렇지, 윌리엄에

게 무엇인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 같은 장치를 하기로 하지!"

에머슨은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예를 들면 어떠한 장치 말인가?"

하고 하이드 주임은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군요, 그럼 우선 윌리엄이 할 수 있는 일부러 생각해 보기로 하죠. 윌리엄은 최대의 출력(외부에 공급하는 기계적, 전기적인 힘)과 최소의 중량(무게)을 가진 소형 건전지를 써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피부하고 뼈마디는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약 30세 가량의 사람처럼 걸어다닐 수도 있고요."

"이야기 중이지만."

하고 하이드 주임이 말했다.

"지금 생각이 났지만 윌리엄이 그토록 사람을 닮았다면 그냥 벌거벗겨 둘 수도 없지 않은가. 옷을 만들어 줘야지."

엘리엇하고 램은 웃었지만 스콧은 화를 내며 외쳤다.

"그건 침팬지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 웃음거리로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냉정하게."

하고 에머슨이 타이르듯 말했다.

"나도 곧잘 괴상한 얼굴을 해서 손자 녀석들을 웃기곤 한 다네. 그것하고 같은 이치로 윌리엄을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란 말일세."

"그렇지만 윌리엄은 우리나라 과학계의 빛나는 성과이니

까 웃음거리가 되선 안 된단 말이지 "

스콧의 말이다.

"자아, 그 애긴 뒤로 미루고 좀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로 하세, 윌리엄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있으며, 더욱이 거기다 수 개 국어를 말할 수도 있네."

라고 에머슨이 말하였다.

"그렇지! 아직 어느 나라 말로 한다는 건 정하지 않았었지."

하고 하이드 주임이 말했다.

"우선 첫째로 영어, 그리고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엘리엇은 자신 만만하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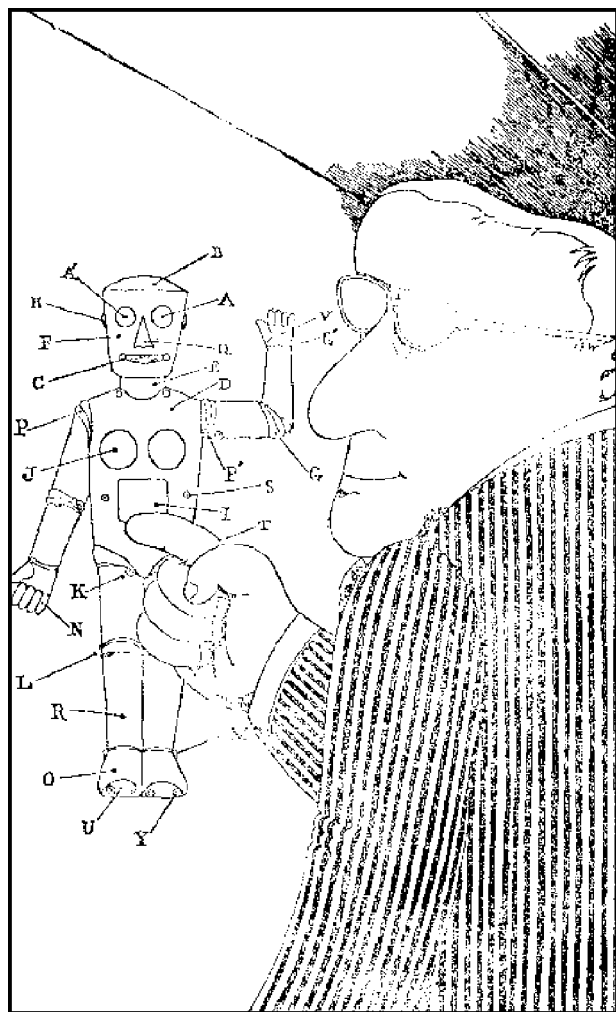
"잠깐만, 독일어는 그만 두는 게 좋을 걸세. 들은 바에 의하면 독일어는 문법이 무척 까다로워서 윌리엄이 곤란할 테니까."

라고 스콧이 반대했다.

"로봇에게 못하는 말이 있을 수 없지. 난 독일어를 넣는 것에 대찬성일세. 그리고 소련 말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

라고 램이 말했다. 이 말에 하이드 주임을 비롯해 모두가 씩씩한 얼굴을 하였지만 엘리엇만은 달랐다.

"소련 말 말인가? 좋군 그래. 소련의 로봇도 아마 영어를 하겠지. 윌리엄은 우리 나라의 과학 수준의 높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우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하기로 하세."



"우호라고? 꿈 같은 소리 마라. 소련은 우리를 증오했고 있는데 소련하국의 우호라는 게 있을 수 있나."

하며 스콧은 경멸하듯이 웃었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네. 전쟁은 상대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네 로봇은 우리나라 군사력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엘리엇의 이 말을 받아,

"과학력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라고 하이드 주임이 말했다.

"그 점은 소련도 인정하고 있네, 그렇지 않다면 스파이를 보내서 우리들의 계획을 훔치거나 하지는 않았을 테지."

"그렇죠. 그렇지만 스파이 활동은 그들이 한 발짝 앞섰던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한 가지 그네들을 깜짝 놀라게 할 길이 있습니다만, 그건 윌리엄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어젯밤 대충 설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에머슨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놀라운 소리로 말했다.

"아니, 도면이 없다. 아침에 분명히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해 낸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소매치기를 당했어. 그게 틀림없어. 8시 조금 전에 이리로 오는 도중 계단에서 지나친 사나이가 넘어질 뻔하다가 나를 붙잡았지. 그놈에게 당한 게 틀림없다."

"그저 안 됐군!"

하이드 주임은 어퍼컷을 한 대 얻어맞은 권투 선수처럼 억울한 듯이 턱을 매만지며 말했다.

"소련 놈들!"

하고 스콧은 분한 듯이 중얼거렸다.

"하이드 씨, 우리에게 믿음직한 경호원을 붙여 줄 수 없습니까. 실은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내 자동차 앞으로 뛰어든 놈이 있었거든요. 자동차를 멈추게 해놓고 내게서 무엇인가 훔치려고 한 게 틀림없어요."

하고 램이 말했다. 엘리엇은 램이 떠들어대는 모양은 보지도 않고 에머슨을 향해서 말하였다.

"도둑맞은 도면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걸세. 지금 생각난 일이지만 윌리엄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치도록 하는 게 어때? 소련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들도 좋아할 걸세. 그들도 근본은 착한 사람이 틀림없을 테니까."

"소련 사람을 칭찬하는 건 그만 뒤 주게. 나는 그 도면을 도둑맞은 걸 생각하면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못 참겠는걸. 나는 그들이 싫단 말야."

하고 말하는 에머슨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화를 내면 냉정하게 사실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네, "

엘리엇이 부드럽게 말하며 계속했다.

"음, 그렇지! 음악은 좋은 생각일지도 몰라. 어디 윌리엄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생각해 보기로 하지"

여자 로봇

운전사인 표도르 샤차릿치는 모스크바 교외의 울퉁불퉁한 길을 기술청으로 가기 위해 회색 승용차를 달리고 있었다. 차가 길이 패인 곳을 지날 때마다 표도르는 백미러를 보았다. 기술청 장관인 뻬벨 샤체이에프는 머리를 가슴에 깊이 묻고 자고 있었다. 표도르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 수일 동안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주인을 생각하면 이 짧은 휴식 이나마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표도르는 어느 날 밤 기술청에서 뻬벨이 보여준 도면을 생각하고 넓적한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무엇인지 인간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었으며 멍 없이 뻬쭈한 손발이 뻗쳐 있고 통방울 같은 눈이 붙어 있었다.

표도르는 무어라 대답할 바를 몰라 이렇게 물었다.

"대관절 이걸 어떤 동물입니까?"

뻬벨은 커다란 소리로 웃어젖히고는 도면을 뚝뚝 말아서 책상 서랍에 넣어 버렸다. 그로부터 수주일 후의 어느 날, 뻬벨은 갑자기 차안에서 표도르에게 말을 걸어왔다.

"표도르, 자네 내 운전사가 된 지 몇 해나 됐나?"

"장관께서 제 4병단의 대령이 되신 날, 즉 1943년 8월 4일부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나?"

"나이가 많이 들어 핸들을 잡을 수 없게 될 때까지입니다. 장관님."

"좋아. 그렇다면 정직하게 말해 주게. 자네, 언젠가 내가 보여준 그 도면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한 적 없나? 가령 마누라나 애들에게라도 말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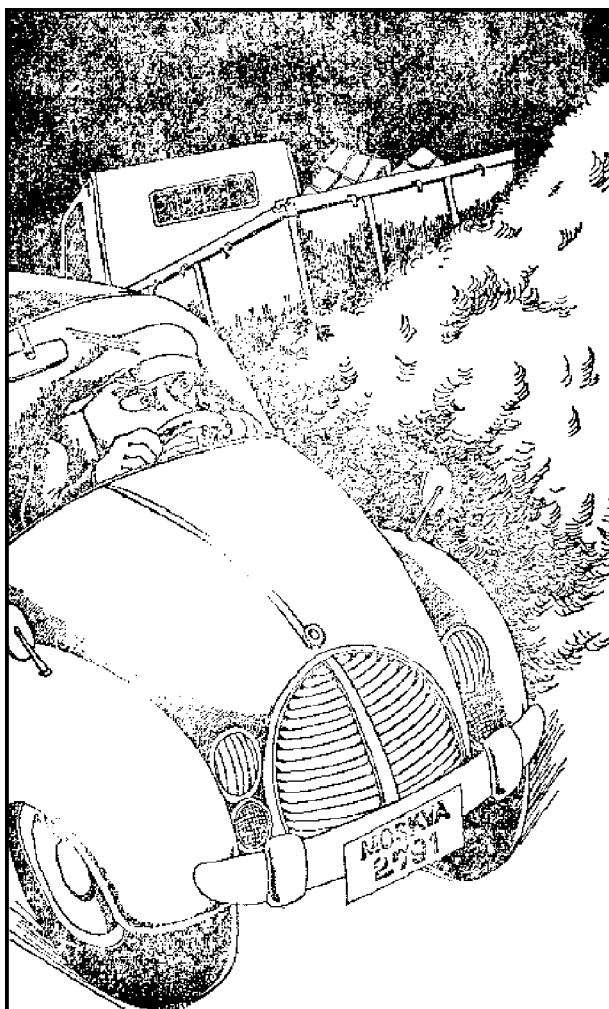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무엇인가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없네, 표도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모를 일이란 말일세. 자네도, 팀 사람들도 다른 데 새나가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서는 우리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어제 종합 기획 부장인 우류랑 동지가 스파이를 조심하라고 전화를 걸어왔네. 미국 스파이에 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우리들 속에 있다고 말야. 마치 내 과실이거나 한 것처럼 말이네."

그 때 반대쪽에서 한 대의 트럭이 달려왔다. 운전사는 술에 취한 모양이라서 갈팡질팡 차를 몰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위에 난 구멍을 피하려고 그랬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지. 저런 무거운 차라면 길에 패인 구멍쯤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그 트럭은 곧바로 이쪽을 향해 달려왔다. 표도르는 재빨리 핸들을 확 꺾어 아슬아슬하게 트럭을 피했다. 노여움과 충격으로 상대방을 마구 욕질을 하면서 표도르는 차를 본 위치대로 되돌려 놓았다. 표도르는 또다시 백미러를 들여다보았다. 뺨뺨은 곧바로 앉아 있었지만 흰 눈썹을 들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표도르는 변명하였다.



"트럭이 이쪽을 향해 마구 쳐들어 왔기 때문에…… 빌어 먹을, 술 취한 게 틀림없을 겁니다. 아니면……"

표도르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말을 그쳤다.

"아니면 스파이였을까요. 그 가방 속엔 중요 서류가 들어 있습니까. 무엇하면 그 트럭을 쫓아갈까요?"

베벨은 멍청히 표도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윽고 화가 난 듯이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방해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나. 나의 가방 안에는 물론 중요 서류가 들어 있지."

그리고 피식 웃고 나서,

"미국에서 온 귀중한 서류 말이네. 그렇지만 지금 자네가 떠든 덕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자네는 화를 내고 있었지만, 화를 낸 인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법일세. 그래서 우리들의 로봇의 두뇌 장치는 아무런 감동도 동반되지 않는 사고력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잘 되면 미국을 누르고 우리가 뛰어날 수 있다. 흠, 그렇게만 된다면 만국 박람회의 인기는 미국의 윌리엄이 아니라 우리들 나타샤의 것이지."

표도르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베벨은 집게손가락을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설계도에 의하면 그들은 둔갑한 윌리엄을 만들 생각은 없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질문을 해서 그를 곤

란하게 하는 것은 간단할 걸세. 그렇게 하면 화가 나서 난 폭한 행동을 해댈테지. 그것 때문에 미국은 비난받게 되고, 한편 내 나타샤는 냉정하게 어떠한 질문에도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표도르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뺨뻐의 목소리를 들었다.

"더 빨리 달려라! 곧 팀의 멤버들을 집합 시켜서 회의를 열어야지."

표도르는 기분이 좋아져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내가 빛나는 과학의 별이라고 불리는 뺨뻐에게, 학사원 회원이며 최고 훈장 소지자인 뺨뻐 사체에이프에게 그 어떤 생각의 힌트를 주었던 말이다. 주인은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만은 신용하고 있거든. 그 도면도 그렇다. 그것은 극비였을 텐데 나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물었지. 대관절 뭐 때문에 나타샤를 만드는 걸까? 미국인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어째서일까? 미국인은 우리 소련 사람과 같이 좋은 사람들인데. 난 미국인을 알고 있어, 1965년에 우리들은 독일에서, 그렇지 엘베 강의 강가에서 미국 부대와 마주쳤었지.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지. 그들은 건너편 강변에, 우리는 이쪽 강가에 서 있었지만 양쪽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만세를 불렀었지. 그때 수명의 미국 병사가 같이 해엄을 쳤었지. 우리들은 그 치들을 얼싸안고 마구 키스를 퍼부었다. 그리고 친구가 봤었을 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서로 적이라니! 어째서인가? 그

렇지만 동지 뻘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니 나타샤를 만
들고 있을 거야. 나타샤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뻘뻘은
크레몰린에 초대받아 커다란 명예를 받게 될 테지. 나도 함
께 가서 ‘뻘뻘 만세, 나타샤 만세!’라고 마구 외친단 말이
야.)

여기까지 생각하자 표도르는 머리를 저었다. 뻘뻘의 운전
사가 크레몰린에 초대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미쳤기 때문
이었다. 뻘뻘이 연회에 나가거나 강연을 할 때는 그는 언제나
차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다. 때로는 몇 시간이고, 그럴
때 그는 대개 다른 운전자들과 잡담을 했다. 그 중에는 아
주 재미난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는 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미국 총영사의 운전자처럼. 이 사나이는 러시아말이 유창했
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서울에 이미 중요 인물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모르는 건 뻘뻘에 관한 것 정도여서 뻘뻘이
유명한 과학자라는 것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표
도르는 화가 나서 이 바보 녀석에게 지금 뻘뻘이 만들고 있
는 굉장한 기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 이 미국인은 호기심이 끌리는 모양이어서 그 기계
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고 싶어했다. 물론 표도르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이외에는 이야기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
금 생각해 보니까 그 미국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편이 좋았을 게 틀림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청
정문에 도착했을 때, 표도르는 뻘뻘의 발 밑에 몸을 던지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뻘뻘은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주 기분이 좋은지 말을 시작했다.

"이 바보 녀석 같으니라고! 그 울퉁불퉁한 길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니, 날 목사발을 만들 작정이었나."

그는 일부러 화가 난 듯이 가장을 하고 표도르의 귀를 잡아당겼다.

"듣고 있나, 이 바보 녀석아!"

삐벨은 그렇게만 말하고는 허겁지겁 들어가 버렸다. 표도르는 감격해서 전송하였다. 삐벨은 두 번씩이나 자기보고 바보 녀석이라고 했다. 이것은 전쟁 중 표도르가 전선에서 사령부까지 우박처럼 쏟아지는 탄환을 누비고 그를 내세우고 달렸을 때 주인에게서 자주 들은 말이었다. 그렇다. 그때도 표도르는 이 주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몸이 가루가 되도록 봉사했으리라.

회의실에서의 회의는 끝났다. 삐벨은 새로운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팀의 구성원들을 불렀다. 세 사람의 기사인 스와로프, 떼삐킹, 따아첸코는 감정을 갖지 않은 로봇을 만드는 안에 찬성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로봇인 윌리엄에 비교해서 분명히 나타샤에게 유리하다고 새 사람은 말했다. 그러나 물리학자인 가빠아링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반대 의견을 말했다. 그 동안 그의 동료인 젤마코프는 모두의 이야기도 들은 척 만척하고 공책에 숫자와 공식을 쓰고 있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때 젤마코프가 일어서서 공책을 휘두르며 말했다.

"동지! 뻔뻔! 만일 나타샤가 감정을 갖지 않고 사고 장치 만을 몸에 달았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뻔뻔은 그를 쏘아보며 화가 난 듯이 말했다.

"이미 늦었어, 젤마코프. 벌써 표결에 붙인걸. 가빠아링은 기권이니까 내 안은 찬성 4표로 통과된 걸세."

모두 나가 버리자 가빠아링은 젤마코프에게,

"자넨 잠자코 있었던 편이 좋았을 걸세, "

라고 말하고 연필을 손가락 사이에 끼어 빙빙 돌리며 웃으면서 계속 말하였다.

"그 돌대가리에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난 기권한 거야. 뻔뻔은 우리를 옳지 않은 방향으로 끌어들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도 모두는 거기에 맹종하고 있거든.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은 완충기의 역할을 해야지……"

권투 선수 같은 가빠아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음침하게 빛나는 눈으로 건너편에 앉아 있는 젤마코프를 바라보았다.

"우리들은 소련 여성의 로봇을 세계에 과시해야 하네. 그래서 나타샤는 지적이며 진보적인 오늘은 소비에트 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안 되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이 서구 여러 나라의 여성과 같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결코 종속적인 역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나타내야……."

"얘기 중이지만 잠깐만."

하고 젤마코프가 말했다.

"그런 건 알고 있네. 맨 처음 미국의 윌리엄에 대항해서 여성 로봇을 만들자고 한 것은 자네하고 나였으니까."

"그렇고말고, 그런데 요사이 자네는 새 전자 두뇌 연구에 골몰해서 처음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단 말일세."

"아니야, 가빠아링. 오히려 나는 나타샤를 보다 더 인간다운 여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네. 나타샤는 멋지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남성에게는 없는 여성다운 상냥함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네."

가빠아링은 그만 놀라서 들고 있던 연필을 떨어뜨렸으나 곧 주워 들고 물었다.

"그건 어떤 것인가?"

젤마코프는 문이 꼭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테이블 너머로 몸을 들이대고 말했다.

"어머니다운 너그러움, 부드럽고 친절하며 더욱이 타인의 선한 마음을 믿으며,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여성 말이네."

가빠아링은 맥이 빠진 모양으로 또다시 연필을 빙빙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타샤는 외국인에게 소비에트의 위대한 업적을 인정시킬 수 있어야 하네. 나타샤는 그러한 것을 여성다운 위엄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네, "

"가빠아링, 그 의견에는 동의한 수 없네. 그렇다면 그건 선전용 기계에 지나지 않나? 나는 그런 여성은 딱 질색일

세. 여성다움도 귀여움도 통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네. 그야 당의 강령은 줄줄 외겠지만 자기 주위 사람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없을 것이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공산주의 밖에는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 봐도 소용없네. 온 세상 사람들을 같은 정치 방식으로 지배하겠다는 것은 아주 틀린 생각이란 말이네. 조금이라도 인류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재 제도는 언제나 타도 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일세."

"그만, 그만."

가빠아링은 탕! 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네를 소비에트의 적이라고 생각하겠네. 자네의 마음 속에 것처럼 독이 퍼져 있을 줄은 미처 몰랐네. 자네하곤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없군."

"알았네."

젤마코프는 어두운 미소를 띠고 가빠아링의 주먹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공산주의자로서 자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을 테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네는 방금 내가 한 말을 빼벨에게 이야기해야 하네."

그리고 눈을 감고 덧붙였다.

"나는 팀에서 빼주십사 하고 빼벨에게 말하겠네. 그렇게 한다면 자네도 안심일 테지.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네."



"젤마코프, 자네는 자기를 배신자로 믿게 하고 싶은가? 지금 자네가 빠져 버리면 우리 팀은 마지막이네. 자네의 힘이 필요하단 말일세. 나타샤가 완성될 때까지는 자네는 진지를 버려서는 안 되는 병사의 한 사람이란 말이네. 만약 내버린다면 자네는 명예도 양심도 없는 탈주자가 된단 말일세."

젤마코프는 천천히 돌아보며 망설이는 듯 말했다.

"그렇지, 지금 팀에서 빠져 버리는 것은 비겁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미 자기 지식의 태반을 나타샤에게 퍼부었어. 그리고 나타샤는 더욱더 내게서 지식을 받아야 할 텐데."

젤마코프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에머슨의 전화

"조심해서 일으켜 세우게."

하고, 하이드 주임이 명령했다. 세 사람의 기술자가 진공관이며, 전지며 스위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인간 모양을 한 것을 받침틀에서 떼어 내려 하고 있다. 세 사람의 이마에도 하이드 주임의 이마에도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로봇 윌리엄의 몸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맡겨져 있었다. 복잡한 내부의 기계에 씌운 가느다란 쇠그물이 꼬여서 미미한 소리가 났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이드는 긴장과 흥분으로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연구실 구석에서 탄 사람들과 보고 있던 램이 달려와서 도우려고 했다. 순간 하이드가 고함쳤다.

"자넨 안 되네. 이건 100 킬로나 되는 걸세."

말라깽이인 램은 불쾌한 듯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잔뜩 화가 나서,

"저 따위 말투로 애길 하니까 참을 수 없단 말야. 하이드는 로봇을 조립할 수 있는 건 자기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운동 장치의 시험 같은 건 아직 이른데."

라고 스콧도 한마디하였다.

"두뇌 장치를 해 놓을 때까지 로봇이 움직이는지 어떤지 좁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렇고말고. 하지만 운동 장치는 그의 담당이니까 빨리 시험하고 싶을 거야."

라고 램은 말하다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기술자의 한 사람이 스위치를 넣어서 로봇의 체내에 장치하여 놓은 전지에 전류를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하이드는 로봇의 등에 있는 단추를 여기저기 눌러보고 있었다. 짹짹 잘작하는 가느다란 소리가 나고 윌리엄의 해골 모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걸었다! 걸었어!"

하이드는 흥분해서 외쳤다

"운동 장치는 완전하다."

"완전하다고요?"

하며 램이 대들었다.

"그건 앞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거지 걷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거기다 당신은 로봇을 부축하고 있잖소. 혼자 걷게 내버려 뒀 봐요. 어디까지 넘어지지 않고 가는가. 이런 실험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두뇌에 의지하지 않고 다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죠. 나중에 전자 두뇌를 장치할 때 골치 아픈 문제가 일어날걸요."

"음, 자네의 지나치게 복잡한 전자 두뇌가 움직이지 않게 될 테니까 말이지."

하이드는 계속해서 ,

"내 운동 장치는 어린애들도 조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꽤 씹하군."

램이 화를 냈다.

"이래봐도 나는 나의 전문 분야에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던 말이오. 30종의 발명 특허도 가지고 있소. 만약에 이 로봇이 우리들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치사를 받을 것은 나란 말이오."

스콧이 램의 손을 힘주어 꼭 잡았다.

"자네의 업적은 우리들도 충분히 인정하네. 그렇지만 우리들의 업적도 잊어서는 아니 되네. 그러니까 윌리엄에게는 다섯 명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기로 하세. 만약

에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난 그 다섯 사람 중에서 최대의 공로자로서 자네를 추진하겠네. 어떤가?"

그 사이에 하이드는 로봇을 멈춰 놓고 말하였다.

"아니 첫째로 추천 받을 사람은 에머슨이 아닐까. 그는 브릭스 감독관의 특별한 신뢰를 받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젯밤 워싱턴의 긴급 회의에 불려 갈 리가 없지. 하예튼 스콧 군, 난 다섯 명의 아버지 중 맨 꼴찌로 만족하겠네.. 워싱턴에선 이제 나 같은 건 신뢰하지 않는 모양이니까."

하이드는 로봇의 강철 뼈대를 만지면서 덧붙였다.

"아마 나는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지. 소련에서도 이것과 같은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에 말이네."

"하이드 씨."

하고 엘리엇이 나섰다.

"그건 당신의 지레 짐작이요. 당신을 의심할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당신이 아니고 에머슨을 부른 이유도 나는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출발 전에 에머슨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면을 도둑 맞은 후로 몹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딴 일로 바뀔 주도록 브릭스 씨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하더군요. 틀림없이 그 일로 불려갔을 겁니다."

"뭐라고? 만일 에머슨이 정말로 그런 편지를 냈다면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걸세."

"그렇고말고."

람은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며 비웃듯이 하이드에게 말했다.

"만약에 에머슨이 우리 팀에서 탈퇴하면, 하이드 씨 당신은 순수한 역학적인 방법으로 윌리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거요. 하긴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하는 건 테이프 레코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보거나 듣거나 는 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오."

스콧은 램을 타이르듯이 말한다.

"하이드 씨의 역할을 그런 투로 말하는 건 좋지 않네. 그는 역학 방면에서는 자네와 같이 일류 전문가 아닌가. 팀의 공동 작업을 파괴해선 아니 되네. 에머슨의 편지 얘기는 그가 돌아오면 직접 본인에게서 듣기로 하세."

엘리엇은 그 때까지 턱을 문지르며 지그시 방바닥을 따라 보고 있다가 눈을 허공에 박은 채 말하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그건 오늘 아침 9시경이었어. 에머슨하고 전화로 얘기한 건 분명히 그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엇은 깊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계속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틀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걸. 그렇지! 알았다. 에머슨은 알(R) 발음을 할 수 없는데 전화의 목소리는 똑똑하게 알(R)을 발음하던걸. 무언가 까닭이 있는지 모르겠군."

스콧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램이 끼어들었다.

"물론이지. 그건 십중팔구 에머슨이 아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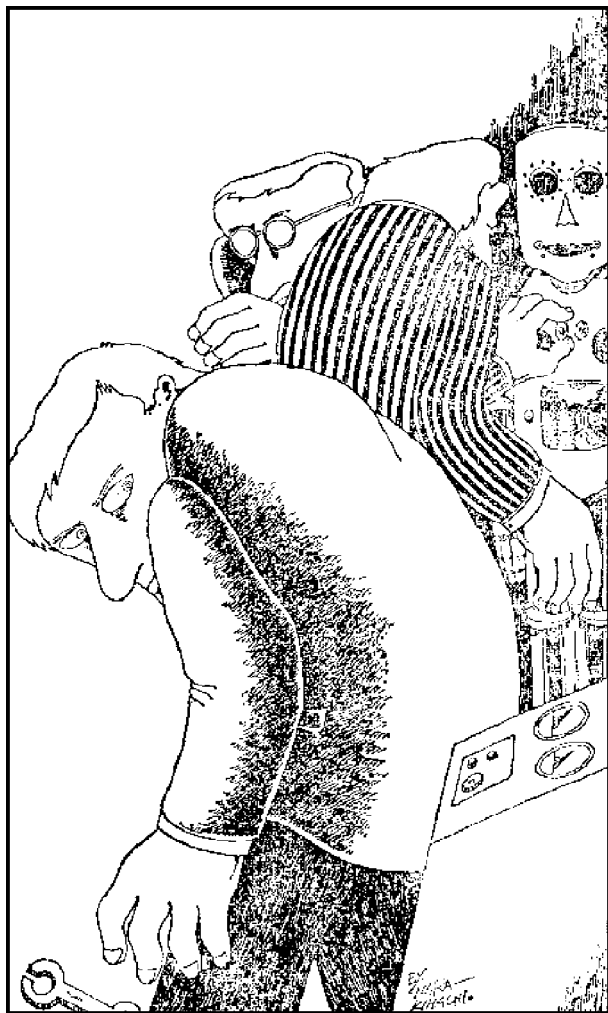
"그럼 누구란 말이야?"

스콧은 하이드를 바라보았으나 하이드는 로봇 옆으로 가서 세 명의 기술자를 불렀다. 그리고 램들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들도 잠깐 애길 그만 두고 도와 주게나."

하이드는 그냥 서둘러 로봇을 받침틀에 도로 넣기 시작했지만 로봇을 들어올리려 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눈치 채지 않게 은밀히 뜻있는 눈짓을 램들에게 보냈다. 스콧하고 램은 곧 무엇인가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엘리엇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아무 말 않고 거들기 시작했다. 로봇을 도로 집어넣는 일은 몇 분 걸렸지만 그 사이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엘리엇은 왜 하이드가 자신들에게 도와주기를 부탁했는지 이상해서 견딜 수 없었다. 하이드는 언제나 자기의 담당 분야를 철저히 지켜서 그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램하고는 지금 막 그런 말다툼을 했는데도 램이 로봇의 왼쪽 무릎에 가느다란 전선을 연결시키고 있어도 잠자코 보고 있었다. 엘리엇은 지금 당장에라도 하이드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이드는 아주 만족하다는 듯이 램에게 끄덕여 보이기까지 했다. 바로 그 때, 기술자의 한 사람인 검은 머리의 청년이 작은 스패너를 떨어뜨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나 엘리엇은 보았다. 청년은 재빨리 방바닥에 주저앉아 스패너를 주웠는데, 그 때, 또 다른 한 명의 기술자의 발뒤꿈치를 가만히 두



드리는 것이었다. 상대방은 곧 힐끗 램의 손끝을 보았다. 끝은 아직 로봇의 왼쪽 무릎을 만지고 있었다.

"됐어."

로봇이 틀에 들어가자 하이드는 세 사람의 기술자들에게,
"자네들은 이제 가서 쉬게. 일이 있으면 부를 테니까."

하고 말했다.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다려 하이드는 램들에게,

"금방 알아차려서 고맙네. 내가 좀더 빨리 에머슨 애길 그만 둘 걸 그랬네. 그 세 명이 모두 들어 버린걸."

"걱정할 것 없어요. 하이드 씨."

스콧이,

"당신의 기술자들을 신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별로 중대한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그 생각엔 동의할 수 없는걸."

램이 머리를 내저으며 말했다.

"난 엘리엇의 얘기를 듣고 에머슨은 스파이가 두려워서 어딘가에 숨어 버리거나 앉았나 생각하네. 자, 생각 좀 해 보게. 그는 브릭스가 부른다고 하이드 씨에게 말하고, 또 엘리엇에게 전화를 걸고……"

"잠깐만."

엘리엇이 말을 중단시키고 나선다.

"누가 내게 전화를 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아. 하지만 그건 확실히 에머슨의 목소리는 아니었어."

"그러게 말이네."

람은 초조한 빛을 띠며 말했다.

"에머슨은 아마 친구를 시켜서 걸게 했을 걸세. 그리고 워싱턴으로 가지 않고 어디엔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인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말이지."

"람, 자네는 추리 소설을 읽더니 그 해독이 심하군."

하고, 스콧은 란의 말을 문제도 삼지 않았다.

"이 연구소에서는 외국 스파이에게 살해될 걱정은 없네."

"살해되는 게 아니라 매수지."

하고 하이드가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파이는 내 금고에서 멋지게 도면을 훔쳐내어 필름에 찍어 갔네. 어쩌면 그놈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매수된 이 연구소 안의 사람일지도 알 수 없지."

"그렇다면 기술자나 설계사 속에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엘리엇이 물었다.

하이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엘리엇은 이미 듣지 않고 있었다. 그는 로봇을 바라보며 아까 검은 머리의 사나이가 스펀저를 주우면서 한 기술자의 발뒤축을 두드리던 때의 일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아 넘겼지만 맞은 사나이는 곧 로봇의 왼쪽 무릎을 만지고 있는 팔의 손놀림을 보았었다. 거기엔 무슨 뜻이 있었을까. 있었다고 하면 '조심해'라든가 란이 '우리의 비밀을

눈치챌 것 같다'라는 등의 의미였음이 틀림없다. 엘리엇은 로봇에서 친구들 쪽으로 눈을 돌렸다. 하이드는 아직 램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엘리엇이 목격한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모두에게 이야기 할 것인가? 엘리엇은 입술을 지긋이 깨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망설였다. 만일에 그 두 사람이 외국 스파이에게 매수되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배신자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엘리엇은 결심을 내리지 못한 채 로봇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무릎을 조사해 봤지만 전문적인 일이라 잘 알 수 없었다. 엘리엇은 로봇의 왼쪽 무릎을 만져보고 가만히 두드려 보았다. 이 해골에는 머지않아 플라스틱의 피부를 씌울 작업이었다. 만국 박람회에서 만약에 이 로봇이 다리를 절기라도 하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엘리엇은 빙그르 뒤로 돌아서서 외쳤다.

"하이드 씨? 이리로 와서 이 로봇의 왼쪽 무릎을 좀 봐 주십시오."

바뀌친 가방

그 날 오후, 워싱턴의 국무성으로 뚱뚱한 중년 신사가 브릭스 감독관을 찾아왔다. 윌리엄 연구 계획 팀의 한 사람인 조지 에머슨 교수였다. 브릭스의 제 1보좌관은 일부러 현관까지 나와 정중하게 맞이하고 어떤 용건이냐고 물었다.

"브릭스 씨에게서 워싱턴으로 와주십사 하는 전화가 있었

다고요? 조, 조금도 몰랐습니다. 곧 연락하죠."

그런데 브릭스는 더욱 놀랐다.

"에머슨 교수, 난 전화 같은 걸 한 일이 없네. 자넨 지금 로봇의 전자 두뇌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서 매우 바쁠 텐데, 그런 자네를 여기 부를 리가 없지 않은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에머슨은 말을 더듬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당신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급한 용건이라고 했습니다. 국무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내 가장 새로운 설계도를 보고 싶어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에머슨은 서류 가방을 가리키면서 계속하였다.

"같은 일원인 엘리엇하고 나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윌리엄의 두뇌 장치의 성능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일에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설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윌리엄은 지금은 기타를 치며 카우보이 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에머슨은 서류 가방을 열려고 하였으나 순간 뜨거운 다리미에라도 데인 것처럼 후다닥 손을 떼었다. 그리고 커다랗게 눈을 뜨고서 두려운 듯이 수초 동안 가방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열의를 넣어 가방을 열었다. 브릭스도 무슨 일이 있었군, 하고 눈치채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어떻게 되었나, 에머슨 군?"

에머슨의 목이 메었다.

"서류가 없습니다. 전부!"

에머슨은 가방에서 한 신문지를 꺼내어 방바닥에 털썩 내 던졌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없소? 그리고 이걸 나의 가방이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서 바꿔치기 당한 게 틀림 없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브릭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 이마를 두드렸다.

"그 뻘뻘 마른 조그만 사나이가 틀림없습니다. 착륙했을 때 탄 승객들을 밀어붙이듯 하며 황급히 나갔거든요. 꽤 씹힌 놈 같으니라고!"

브릭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이제야 비로소 간신히 수수께끼가 풀렸네. 그들은 국무장관의 요청이라고 속여서 자네를 끌어낸 걸세. 빌어먹을! 소련은 이걸로 가장 새로운 설계도를 손에 넣은 거야. 국무장관은 내게서 이 보고를 듣기 전에 담뱃 진정제를 잡수시는 게 좋을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윌리엄에 관한 걸 비밀로 하지말고 온 미국의 신문이란 신문에 대서 특필할 걸 그랬네. 소련은 스파이 훈련에 있어서는 우리네보다 훨씬 훌륭하지. 우리가 알아낸 거라야 기껏 그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 장소이지. 그것은 우리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과 로봇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과, 제작팀의 리더가 물리학자 뻬넬 샤체이에프라는 것쯤인걸. 기분이

나쁜가, 에머슨 군?"

에머슨은 마치 자살 방법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가방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멍청히 브릭스를 쳐다보며 기운이 다 빠진 모양으로 말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방을 바꿔친 놈을 어떻게 해 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소중한거니와 나를 불러낸 놈이 누군가 하는 것도……"

"하여튼 CIA에 알리기로 하지."

하며 브릭스는,

"그렇지만 그 전에 국무장관에게 보고해 줘야지."

브릭스는 전화기를 들었으나 그 때, 교환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브릭스 씨입니다. 당신께 장거리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뉴욕 하이드 씨께서입니다, 곧 연결하겠습니다."

에머슨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이 몸을 일으키고 브릭스의 표정을 살폈다. 브릭스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으나, 그 얼굴은 마치 유명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군. 자네 부하인 기술자 두 사람이 매수되었다고?"

그는 열심히 듣고 있었으나 잠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 윌리엄이 다리를 절거나 하면 끝장이지. 그래서? 음, 물론 신문 기자에겐 비밀이네. 뭐라고? 에머슨 군은 무사히 지금 여기 있네. 그들이 그를 속여서 비행기 안에서 서류 가방을 바꿔치기 했다네. 아니, 물론 난 그에게 전화



같은 건 하지 않았네. 뭐라고? 흠, 그건 믿을 수 없군. 잠깐만! 지금 곧 물어 보지."

브릭스는 전화기를 든 채 에머슨을 향해 물었다.

"자네 오늘 아침에 엘리엇군에게 전화를 걸었나? 뭐라고, 안 걸었다고? 역시 생각했던 데로군. 엘리엇 군은 오늘 아침 자네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그런다는군. 그 전화로 자네는 내게 다른 일로 바뀌 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랬다는군."

"그런 미친 소릴."

에머슨은 화가 나서 주먹으로 가방을 쳤다.

"엘리엇이 그런 소릴 했다면 그 녀석은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네. 진정하게, 에머슨 군."

브릭스는 위로하듯이 말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엘리엇 군도 역시 속았군 그래. 에머슨 군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네. 하지만 어째서 그런 전화를 걸었을까? 뭐라고? 우리들을 골려주려고 그랬을 거라고. 응, 그렇지. 잠깐만, 에머슨 군이 할 말이 있다니까……"

에머슨은 브릭스에게서 수화기를 낚아채 가다시피 했다.

"엘리엇에 대한 건 지금 말한 대로요. 물론이죠, 하이드 씨. 그 가짜 전화는 우리들의 사이를 이간시켜서 우리가 하는 일을 훼방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소련 스파이는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쪽이라고 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나는 새로운 성능을 가진 윌리엄의 전자 두뇌를 만들어 낼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듣고 있습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손길

하이드의 부하인 기술자 다그자스 벤삼은 스파이 용의로 체포되어 독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거기다 머리를 처박고 있었다. 때때로 싸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내린다. CIA의 린톤 수사관이 심문하는 동안은 딱 끈따끈 더웠는데 여기는 춥다. 땀에 젖은 셔츠 한 장으로는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건 그렇고 린톤이라는 사나이는 꼭 악마와 같았다. 그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벤삼을 혼란시켰다. 생각할 짬도 주지 않았다.

"자넨 화요일 오후 3시에 어디 있었나? 말로하고 연구실에 있었다고? 어떻게 그런 재주를 부릴 수 있지. 3시 조금 전에 하이드 씨하고 외출했다고 지금 금방 말해 놓고선. 그 때 말로는 어디 있었지. 혼자서 연구실에? 로봇의 무릎 볼트가 지나치게 조여 있다고 생각난 건 언젠가, 그 날이라고? 어째서 그걸 상사에게 말하지 않았나? 말로가 의심받지 않기 하기 위해서라고? 그럼 왜 말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뭐라고, 말했다고? 언제, 수요일이라고. 그 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그렇지만 어제 심문에선 말로는 곧 거기를 고치려고 했다고 말했잖았나. '곧'이란 언제를 말하나? 네가 하는 말은 모조리 모순 투성이군 그제."

(그 모양으로 꼬치꼬치 캐서 물으면 머리가 멍해져 버려

모순 투성이가 되는 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된 이상은 모든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게 좋을 거야. 숨겨도 소용없어. 린톤은 모조리 알고 있는걸. 말로가 모두 붙어 버린 거다. 그토록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네가 스페너로 경고한 걸 린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말로 밖에 없다. 하이드는 로봇 옆에 있었고 램은 받침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 그리고 스콧은 하이드를 보고 있었다. 남은 건 엘리엇뿐인데 그런 멍청한 호인의 의심을 일으키게 하려면 그의 코앞에서 망치로 로봇을 두들기거나 하면 눈치를 챌까? 그렇다면 배반한 건 역시 말로야. 하지만 말로가 자백 한 건 그것뿐일까. 물론 린톤은 그걸 미끼로 해서 차례 차례로 비밀의 문을 열고 나갔겠지. 마지막은, 외국 스파이의 정체 이외에는……)

벤삼은 유혹의 손길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뻗친 날의 일을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는 자기 집 앞뜰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내 베티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3살짜리 아들 토미는 옆집 고양이하고 놀고 있었다. 그 때, 처음 보는 낯선 사나이가 바로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 부근에 땅을 팔 것이 없냐'고 정중히 물어왔던 것이다. 벤삼은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그냥 두 사람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나중에 자기는 보험 회사에 다니는 고노강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평범한 미국 시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벤삼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며 집이며 냉장고며 텔레비전의 월부금 때

문에 허덕허덕하고 있다던가, 제대로 된 직업만 갖고 있으면 간단히 신용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한 1, 2년이 지나면 벤삼도 월급이 오르지만, 이것저것 보는 대로 모조리 사고 싶어지니 당연히 지출이 많아졌다. 벤삼은 언젠가 아내와 어린애를 데리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꿈이었다. 물론 현재로서는 단순한 꿈이지만…… 그러나 고노강은 그것을 단순한 꿈으로만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뜻이 있어 보이는 눈길을 하고 쉽게 많은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월드 트리뷴의 편집장을 하고 있는 나의 친구가 기술 방면의 새로운 고안에 관한 뉴스 기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원고라면 기꺼이 50불쯤은 지불한 거요. 그 까닭은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런 기사를 써 줄 기술자가 없기 때문이죠."

벤삼은 기꺼이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기계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3회 계속되는 원고를 썼다. 고노강은 원고를 받아들자 친구를 대신해서 곧 원고료를 지불했다. 친구에게서는 고노강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왔다.

(원고는 펍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번 만국 박람회에 로봇이 출품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실인가. 만약에 가르쳐 준다면 대가로 100불을 드리기로 하겠다.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지, 신문에 발표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벤삼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음날 고노강이

300볼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또 300볼을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벤삼은 정보를 흘려 보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노강이라는 폭군의 허수아비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고노강은 그 일 이후 차츰 배짱이 두둑해지더니 마침내는 뽀뽀스럽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이 로봇 제작팀에 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조금 편의를 봐 달라면 거절할 수 없을 거요. 나의 친구가 약속을 지켜 그 원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걸 생각하면 말이지. 친구는 로봇의 전자 두뇌의 연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있소. 물론 이걸 그의 오락이지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연구소에 잠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바라오. 내일 아침까지 그 방법을 써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친구는 당신하고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을지도 몰라. 어떤 뜻인지 알고 있겠죠?"

벤삼은 고노강의 친구에게 '작은 편의'를 봐 주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특하면 원고를 발표하겠다고 벤삼을 협박했다. 그 때문에 벤삼은 두 사람의 마수에서 빠져날 수가 없었다. 함정에 걸린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동료인 말로도 그랬다. 벤삼과 같은 방법으로 그도 매수 당했던 것이다.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 좋았지만 말로도 같은 고용주에게 매수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벤삼은 언제나 겁을 집어먹고 침착하지 못했다. 떨어뜨린 스패너로 말로의 발뒤꿈치를 두드린 것도 그런 표시였다.

그것은 '어이, 램이 로봇의 왼쪽 무릎을 만지고 있네. 놈은 곧 볼트가 너무 조여있다는 걸 눈치챌 걸세.' 라고 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지나친 기우였다. 램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것이 그들의 체포의 계기가 된 것이다. 벤삼은 오싹하고 몸이 떨렸다. 일어나서 독방 안을 왔다갔다하였다. 울 옆의 조그만 집이며 자기가 종자를 뿌려 키운 꽃이 핀 뜰이며 아내나 어린애까지가 지금은 꿈속의 정경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체포된 진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았다. (이런 곳에 1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2년? 5년? 출옥하면 또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째서 두 번째 그놈이 그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거절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렇다, 돈에 눈이 뒤집혔던 것이다. 그로부터 점점 흙탕물 속으로 온통 들어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을 청할 수 있었는데 공포 때문이었는지 겁쟁이라서 그랬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겁쟁이처럼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쓸모 없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베틀에게 최근의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지, 그리고 베틀은 대답할 테지. '바깥 양반은 원고를 써서 많은 원고료를 받았다고 그러더군요. 때로는 몇 100불씩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용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혔듯이 몇 시간이고 베틀을 괴롭히겠지. 베틀은 마음이 약한 여잔데.)

벤삼은 갑자기 멈춰 서자 쇠창살을 두들겨대며 고함 쳤다

"모든 걸 불 테니까 린톤 수사관에게 데려다 달라! 열이라! 열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내에게 죄는, 아내에게 죄는 없단 말이다!"

악몽에 시달려서 침대 위에서 괴로운 듯이 신음하고 있던 표도르는 커다란 고함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눈이 떠졌다.

"왜 그래요, 표도르."

하고, 아내인 나아자가 화난 듯이 말했다.

"그런 멍때는 것 같은 소릴 지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겠네."

표도르는 당황해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다.

"닥쳐, 이 바보 같은 년아! 내가 가위에 눌린 것하고 동네와 무슨 상관이야. 난 나쁜 꿈을 꾸었던 말이다.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지. 주인에게 잘 얘기할 수 없었던 말야."

표도르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코 먹은 소리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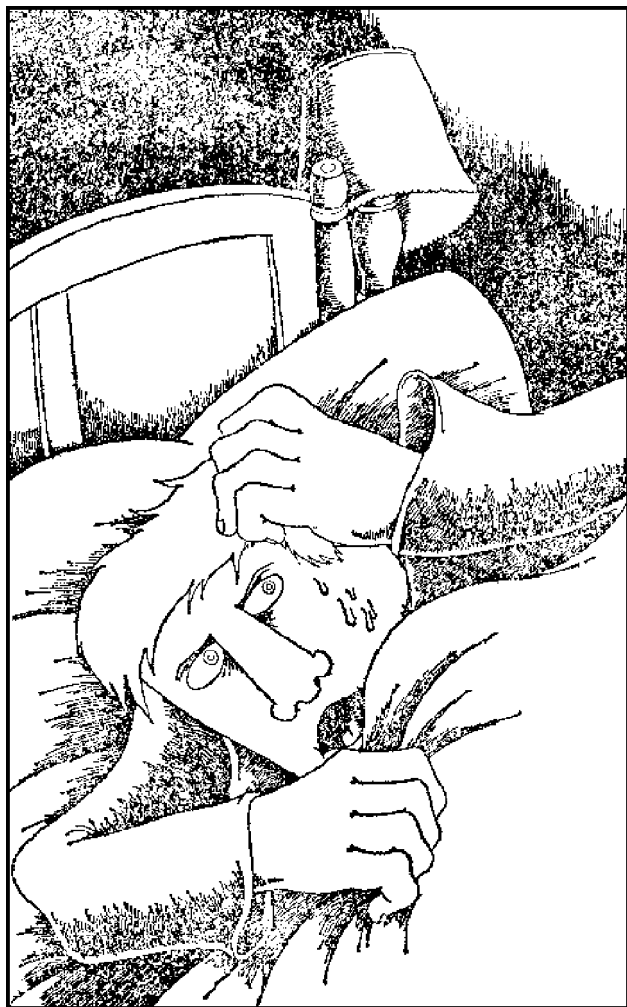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면 주인은 날 두들겨 내쫓을 게 틀림없어."

나아자는 깜짝 놀라 겁을 먹고 벌떡 일어났다.

"대관절 어쨌다는 거지, 표도르. 일하는 시간에 술이라도 마셨나. 아니면 차를 부딪쳤나?"

"그렇다면 훨씬 좋게."

라고 표도르가 중얼거렸다.



"난 함정에 걸려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단 말이다. 그 빌어 먹을 미국 놈 같으니라고…….."

"어머, 미국인이 어떻게 했죠."

나아자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미국인은 위험해요. 모두 호주머니에 피스톨을 차고 있고…… 그런 사람하고 알게 되었수?"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하고, 표도르는 버럭 화를 냈다.

"넌 악한 영화 따위 보고 미국 사람은 모두 그런 줄 알지만 미국인들도 다 우리하고 같은 인간들이란 말야. 하지만 내가 말한 건 늙은 여우처럼 교활한 놈이야. 딱 한 번 그놈하고 얘기했을 뿐인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말야."

갑자기 화가 치밀어 표도르는 벌렁 나자빠졌다. 그리고 완고하게 몸을 구부려 나아자에게 등을 돌려대고는 말했다.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야. 너 따위보고 말해 봤자 별 뽕족한 수도 없을 테니 어서 빨리 잠이나 자."

"어머! 이럴 때 어떻게 잠이 와요."

나아자는 손을 마주 잡고 쥐어뜯면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차라리 성모님께 당신을 지켜 주십사 하고 기도하죠."

하고 말했다.

"네 맘대로 기도하렴."

표도르는,

"네가 그래도 성모님 같은 건 믿지 않는단 말야. 난 공산

주의자야. 자기 일은 자기가 해."

나아자는 애원하듯이 속삭였다.

"여보, 표도르. 전 당신이 아직 크리스천이란 걸 알고 있어요. 왜냐고요? 글썄 전쟁에 나갈 때 어머님에게서 받은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아직 목에 걸고 있잖았어요."

"어머니의 기념으로 걸고 있을 뿐이야. 그렇다면 이제 구원해 줄만도 한데…… 난 벌써 세 번이나 여기에 입을 맞췄는데……"

표도르는 아차 하고 또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됐어. 어서 잠이나 자. 지금 한 말은 비밀이기 때문에 네 게도 말할 수 없어."

표도르는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썼으나 조금 있으려니가 나아자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표도르는 갑자기 그녀가 불쌍해졌다. 결혼 이래 15년, 나아자는 참으로 착하고 좋은 아내였다. 그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녀는 언제나 참았으며 자꾸만 얘기해 달라고 보챈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다. 그것도 그의 일을 걱정해서 말이다. 표도르는 달팽이처럼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간 채로 생각했다.

(어쩌서 난 내가 한 짓을 나아자에게 숨기려고 했을까? 나아자는 영리하니까 어쩌면 좋은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 거기다 그녀는 입도 무겁고 분별도 있으니까.)

표도르는 돌아누워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아자, 울지마. 얘기할 테니까.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해

선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이 다 감옥에 들어간단 말야. 듣고 있어?"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툭 멈추고,

"새삼스럽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말을 하다 말고선. 그럴 바엔 아무 얘기도 할 필요 없어."

하고 통명스럽게 내쫓았다.

"좋아, 모두 얘기할게. 우리 주인인 뽀벨 씨는 지금 나타샤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단 말야. 기술청의 수위한테서 들었는데 그 로봇은 걸어다닐 수도 있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한 데."

"그 수위가 당신을 놀렸구려."

나아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기계가 걷기도 하고 말도 할 리가 없으니까."

"잠자코 듣기나 해."

표도르가 화를 냈다.

"지금은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이 기계는 외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내보내기로 되 있는 거야. 그런데 난 주인이 보여 준 나타샤의 도면 얘기를 그 미국 놈에게 그만 해 버렸단 말야."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나타샤하고 사랑에 빠졌단 말이군요."

"나아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만 하면 진짜로 화를 낼 거야."

표도르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나타샤는 기계라고 그랬잖아. 네가 믿든 말든 이 기계는 생각도 할 수 있어. 가빠아링 씨의 운전사 말로는 말이지. 그건 그렇고 그 로봇의 도면 얘기를 한 뒤론 난 줄곧 그놈의 미국 놈에게 협박을 받고 있단 말이야. '표도르, 넌 이미 나타샤 얘기를 해 버렸는데 어째서 더 얘기를 안 하나, 네 놈이 말했다고 당국에 말 한 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라고 말이지 "

"어쩌면, 그렇게 나쁜 놈이죠?"

나야자가 분개하면서 표도르에게 물었다.

"당신은 다만 도면 얘길 했을 뿐이죠?"

"그렇지. 그놈이 뭘 노리고 있는지 너도 알 수 있겠지? 놈은 틀림없이 미국 스파이란 말야. 그래서 나를 협박해서 로봇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

나야자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입을 열었다.

"어떤 비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술청의 수위도, 가빠아링 씨의 운전사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머지않아 박람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건데 어째서 비밀로 한단 말이죠. 여보, 그 미국인에게 이렇게 말해 줘요. '나하고 함께 가세. 우리 주인에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리고 주인에게 이 미국인은 몹시 나타샤의 일을 알고 싶어합니다. 아무쪼록 잘 얘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줄 테니까' 라고 말해요."

표도르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그는 아내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미국인에게 그렇게 말한 경우를 상상해 봤다.

(그렇지. 높은 깜짝 놀랄 거야. 높은 스파이니까 그게 발 각덜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거니까.)

"나아자, 넌 참말로 영리해."

표도르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역시 나의 수호신(보호하고 지켜주는 신)이고 천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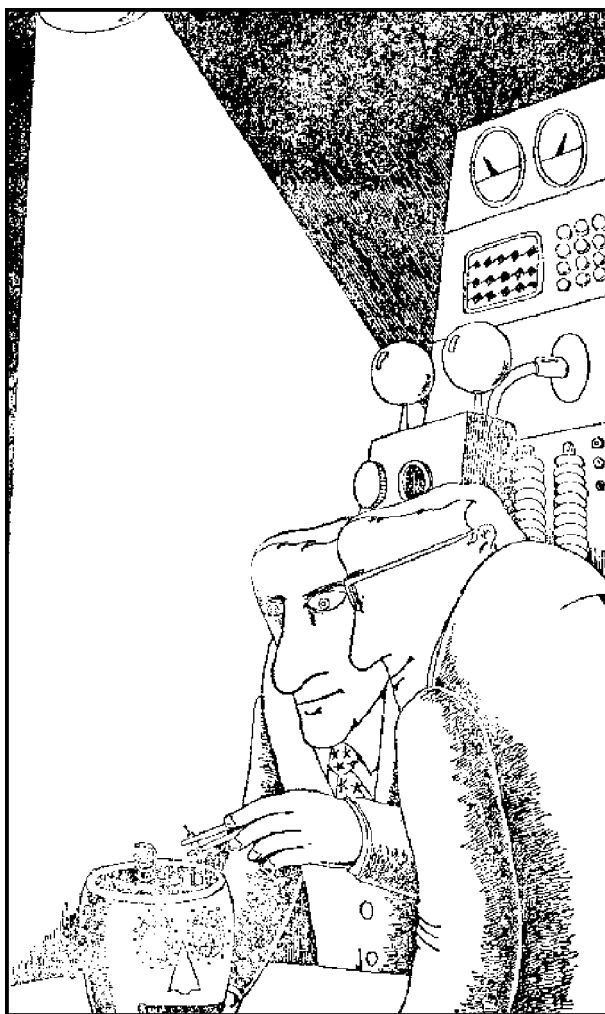
전자 두뇌를 장치하다!

자정을 한 시간은 지나 있었다. 연구실의 차가운 내온 불빛을 받으며 전자 두뇌 담당의 스콧, 에머슨, 엘리엇 등 과학자 세 사람의 손에 있는 핀셋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흰 작업복을 입은 세 사람은 외과 의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들여다보고 있던 금속제 테이블은 마치 수술대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윌리엄의 머리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지금 숨을 죽이고 그 속에 새 전자 두뇌를 집어넣고 있는 참이었다. 핀셋을 써서 머리 속의 빈틈에 가만히 그것을 집어넣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이 서로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지금까지 이것이 가장 손이 쓰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

엘리엇의 말이었다. 에머슨은,

"나는 이 수일 동안 내내 생각했다네. 우리들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고 말일세. 윌리엄을 인간 이상의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앓나 해서 말이네. 우리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윌리엄의 생각을 물어 볼 때, 이제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

하고, 양손을 펴서 들어올렸는데 그 손이 불안스러운 듯이 떨고 있었다.

"그렇지, 기원 2천 년대의 인간은 기원 1만 년대의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보되어 있지가 않지. 세상의 학자들은 틀림없이 윌리엄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사기꾼이라든가 무능력자라든가 하고 비웃을 테지."

"지금이라면 아직 그 장치를 빼낼 수도 있건만."

하고 스콧이 중얼거렸다.

"물론 자네가 진실로 원한다면 말이지. 나는 미래의 인간의 일은 별로 흥미가 없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어려서부터 미래 소설 따윈 읽은 일이라곤 없네. 천 년이나 혹은 1만 년 후에 인류가 태양계 이외의 별에 도달하건 말건 내게는 아무래도 종단 말일세. 나는 달에 갈 생각조차 없네. 달 같은 건 이제 봄 소풍이나 가는 것처럼 간단히 갈 수 있게 되겠지만 난 이 지구에서 태어나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서 죽어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걸세."

"인간이 죽으면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엔 찬성할 수 없네."

하며 엘리엇이 말을 이었다.

"난 우리들 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어떤 힘을 믿네. 우리들은 그 힘에 의해 인도되어 왔다고 생각하네. 인류는

한 발짝 한 발짝씩 어둠을 개척해 왔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 연구소에서 해온 것도 그 한 발짝이란 말일세. 지식이 진보됨에 따라 인류는 그만큼 또 창조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게 될 걸세. 그렇지만 나는 현대의 과학자지만 나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불가사의한 지혜 앞에는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 수 없네. 오늘날 우리들은 원자나 전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한 개의 원자조차 만들 수 없단 말일세. 어떤 시대가 되어도 이것만은 변할 수 없을 걸세."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씀!"

이라고 스콧은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그렇지만 다음 10만 년 간에 과학이 발전할지도 모르는 걸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담. 지금은 초등 학생까지도 알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로켓, 제트기 같은 것을 백 년 전까지만 해도 미친 지랄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했었지. 자, 생각 좀 해 보게, 최초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또 한 최초의 비행기가 하늘을 난 지 몇 년이 지난 줄 아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에 과학이 과거 백 년간의 진보 속도로 발전해나간다면 다가올 백 년, 천 년, 아니 백만 년 동안 인류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연계의 수수께끼도 미래의 인간은 훌륭히 풀 수 있을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네. 16 세기의 인간은 아직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태양은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저 위대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조차도 말이네. 지금은 아무리 어린애들이라도 지구는 태양계의 아주 조그만 별이라는 것쯤 알고 있다네.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수수께끼 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수수께끼도 차차로 풀어져서 마침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

엘리엇은 머리를 숙이고 뒷짐을 지고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으나, 천장을 쳐다보면서 한 마디 한 마디 힘을 주어 말했다.

"가령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인간은 만능의 신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걸 만들어 낼 수는 없단 말일세."

"잠깐만, 좀 들어보게, 엘리엇."

하고, 에머슨이 가로막듯이 양팔을 들고 말했다.

"우리들은 이 손으로 이 로봇의 자동 두뇌를 만들어 냈네. 우리들은 20세기의 오늘 이미 전자로 움직이는 두뇌를 만들어 냈어. 그러니까 장래에는 보다 훌륭한 것을 만들어 낼 게 틀림없지. 우리들은 지금도 이미 원자력을 마음대로 쓰고 있네. 말하자면 우리들은 원자를 창조한 걸세. 장래는 새로운 세계조차도 만들어 낼 걸세."

에머슨은 잠시 동안 윌리엄의 전자 두뇌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 만만하게 말했다.

"하늘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들 자신이 신이란 말이야."

"자네의 말은 신에 대한 모독이네, 에머슨!"

엘리엇은 한 발짝 뒤로 펄쩍 물러서며 마치 악마라도 쫓아 버리듯 두 팔을 휘두르며 외쳤다.

"전자 두뇌의 성공으로 자넨 머리가 돌았나? 자넨 신이 아니야, 신의 도구에 불과해!"

스콧은 핀셋을 작업대 위에 놓았다.

"에머슨, 만약에 윌리엄에게 인간은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려면 혼자서 물어보게. 만일 윌리엄이 '그렇다' 하고 대답하면 나는 그걸 때려부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테니까 말이네. 난 엘리엇처럼 믿음이 강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인간인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리라고 믿을 만큼 미치지도 않았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역시 듣고 싶지 않단 말일세. 필경 인류는 핵전쟁으로 멸망해 버린다고 윌리엄은 대답할 테니까. 나로서는 인류는 평화롭게 발전해서 우리들 같은 과학자는 이 세상의 파괴자가 아니라 봉사자요, 촉진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베벨 샤체이에프는 울안의 굵주린 사자처럼 회의실 안을 왔다갔다하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애써 냉정하게 말했다.

"여러분, 미국 측은 나타샤를 이대로는 출품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성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 낼 작정인 모양이다. 나타샤에게도 무엇인가 윌리엄보다 뛰어난 성능을 부여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이번 만국 박람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기 바라네만."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리학자인 젤마 코프는 책상 위에 연필을 굴리고 있었다. 그의 상대편인 가빠아링은 기분 좋은 듯이 기대어 담배 연기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설계 기사인 데빠킹은 졸리운 듯 하품을 하고 스와로프하고 따아첸코는 코를 맞대고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었다. 빼벨은 잠깐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화가 난 듯이 외쳤다.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하게. 소곤거리고 있으면 아무 짝에도 못 써."

"그렇고말고요."

가빠아링이 그냥 의자에 기댄 자세대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 마디 했다.

"스와로프나 따아친코는 문제의 중대성을 알지 못하는 모양이오."

공격당한 두 사람은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따아첸코가 가빠아링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스와로프가 말했다.

"제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도 윌리엄에게 초인적인 능력까지는 줄 수 없으리라고 얘기하고 있던 중입니다. 일에는 한 도라는 게 있는 법이죠. 아무리 뛰어난 윌리엄이라도 독심술(미묘한 몸가짐이나 표정 따위를 통해서, 상대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낼 리는 없겠죠."

"뭐? 독심술!"

빼벨이 소리쳤다.

"그건 멋진 착상이다. 어떻게들 생각하나? 가빠아링 군. 그리고 젤마코프 군. 서둘러 대지급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없을까."

가빠아링은 자세를 고쳐 앉고 젤마코프를 보았다. 젤마코프는 연필을 들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독심술 따윈 찬성할 수 없군요. 독심술을 할 줄 아는 로봇 따윈 콘크리트 속에 처박아야 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요?"

베벨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모양으로,

"그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냐, 그러한 장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걸세."

라고 설명하였다. 젤마코프는 한숨을 뿜어내며,

"물론 안 됩니다. 잘 해서 상대방이 무의식중에 흘려 버리는 생각을 알아내는 정도의 것이겠죠."

"멋지군, 멋진 거야."

베벨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미국인도 아마 그런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걸세. 음, 당장에 설계하기로 하세."

"잠깐만!"

가빠아링이 외쳤다.

"그 전에 설계 도안을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겠나, 젤마코프에게 물어봐야죠."

"3, 4 주일은 걸릴 테지."

젤마코프는 즉석에서 대답했다.

"그건 너무 길어!"

베벨의 말이었다.

"나타샤는 늦어도 3주일 안에는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돼. 만국 박람회는 내달에 시작한단 말일세."

"그렇다면 이 계획은 단념해 버려야겠군요."

가빠아링의 이 말에,

"단념해? 자네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로봇이 나타샤보다 우수하다면 어떻게 되나? 서방측 기자들은 신문에 대서 특필할 걸세. 그렇게 되면 당의 서기장은 무능력을 이유로 당장 장관을 파면시킬 것이고 그 후계자는 내 목을 자르겠지."

그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뺨뺨였다.

"이 연구소 소장으로서의 나의 명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않겠지만."

"그렇지만 당신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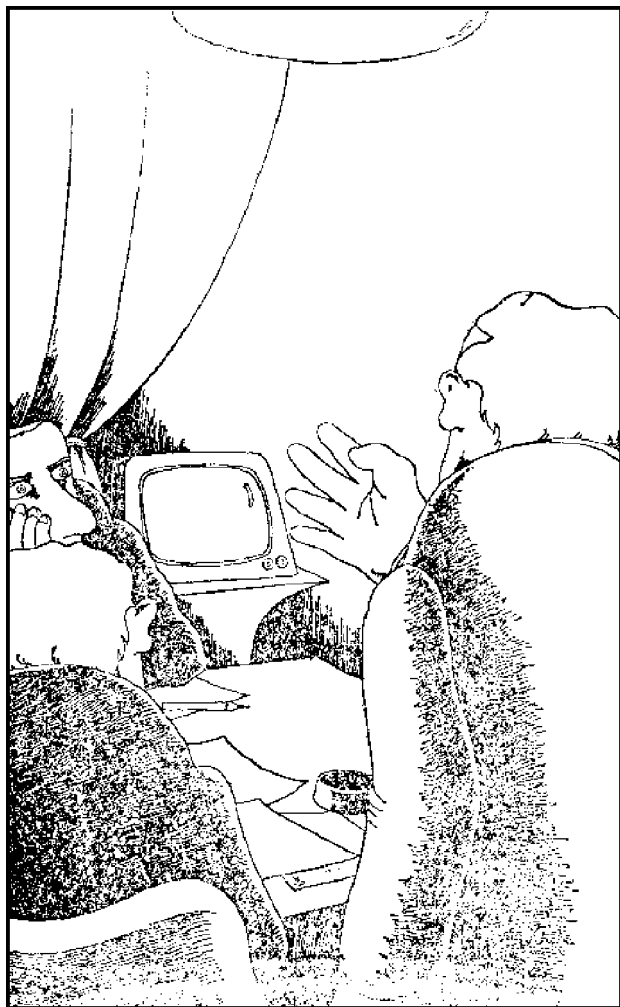
가빠아링이 말했다.

"당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 방면의 권위자인데 우리네 첩보 기관이 명청했다손 쳐도 당신의 책임은 아니지요."

"그건 또 어디 뜻인가?"

베벨은 주름이 잡힌 얼굴을 실룩거리면서 물었다. 가빠아링은 젤마코프를 보고 말했다.

"젤마코프가 3, 4주일 걸린다고 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 계획을 만들려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아침부터 고장이랍니다."



"그렇지, 젤마코프. 자네는 그걸 알고 있었나?"

"응, 알고 있었지."

젤마코프는 일어서서 주머니에 손을 지른 채로 당당하게 말했다.

"그건 나의 책임이니까. 난 나타샤를 감정이 없는 선전 인형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네. 나타샤는 소련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서방측 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모두 같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 소련 사람들은 진심으로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되네. 지금대로 그냥 두면 나타샤는 우리를 위해 온 세계의 이해와 우정을 획득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만약에 나타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면 그녀는 동서(동양과 서양)간의 간격을 더욱 깊게 할 뿐이겠지."

젤마코프는 잠깐 말을 끊고 생각하다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오.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다면 컴퓨터는 곧 본래의 상태로 해 놓겠오. 그러나 나는 그 일에는 협력할 수 없소."

"하여튼 컴퓨터는 고쳐 놔두게."

베벨은 계속했다.

"그렇지만 자네의 생각도 일리가 있구먼. 아니 내 생각과 같아. 자네는 이상주의자야. 그러나 자네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닐세. 좋아, 그럼 판정을 보기로 하지. 나타샤를 현재의

상태로 해 두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테빠킹, 스와로프, 따아첸코가 손을 들었다. 가빠아링은 잠시 동안 어물어물하다가 간신히 손을 들었다. 빼벨은 기분이 좋아서 폐회하기로 하였다. 스와로프가 모두를 뒤따라 방을 나서려고 할 때 가빠아링이 불러 세웠다.

"어째서 그렇게 서둘러 손을 들었나."

"나쁜 젤마코프의 말에 감동했지. 그는 이상주의자고 자기의 신념대로 밀고 나갔네."

"이상주의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가빠아링은 냉소하고,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따위 계획적인 사보타지, 난 그걸 발견했단 말일세. 그는 고발당해야 해, 하여튼 그가 반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거든."

"가빠아링, 자네는 젤마코프를 미워하고 있군. 증오심은 사람을 옳지 못하게 하는 거라네."

스와로프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는 나가 버렸다.

가빠아링은 주먹을 쥐고 껄씹하다는 말투로 말했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진보의 적이란 말이야. 덕분에 나타샤는 사랑스러울 뿐인 시베리아의 시골 처녀 같은 머리 밖에 없는 바보로 끝날 거야."

떠나는 기차는 타지 마라

캄캄한 터널 속에서 둔한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지하철 전차가 홈에 들어왔다. 튜브 치약에서 밀려나오는 치약처럼 내리는 사람들이 도어에서 밀려나오자 이번에는 타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갔다. 계단 위에서 서 있던 AE 3호는 전차가 발차하게 된 것을 보고 홈으로 뛰어내려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전차를 타야만 했다. 따라서 그때까지 두 시간 동안 그를 뒤따라온 푸른 색 레인코트의 사나이도 이 전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나이는 AE 3호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아왔다. 사나이는 한길을 횡단하고 혼잡한 인파를 누벼서 목적물을 뒤쫓아 왔다. 지하철의 봄비는 인파 속에서도 추적하는 것을 단념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나이는 지금 여기서 이 스파이를 체포하리라고 생각했다. 이미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그는 데이비드 존슨이라고 하는 스파이를 눈 여겨 왔다. 그들은 한번 그의 아파트에 쳐들어갔으나 상대는 창문을 통해 비상사다리도 도망친 뒤였다. 그 뒤로 그들은 이 사나이의 은신처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전차는 아직 플랫폼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곧 발차할 것 같았다. 발차해 버리기 두 시간 전에 우연히 발견한 이 사나이를 또다시 대도시의 혼잡 속에서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푸른 레인코트의 사나이는 스파이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거리는 시시각각 좁혀졌다. 나머지 3 계단. AE 3호는 마지막 3계단을 뛰어내리자 가장 가까운 칸으로 달렸다. 자동

도어가 닫히려고 하였다.

뒤쫓던 사람은 팔을 뻗었지만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다. 스파이는 마지막 한 발짝으로 절반 닫힌 도어로 해서 차내로 뛰어들었다. 전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넘어진 사나이는 날쌔게 일어나 지나가는 전차의 도어를 하나하나 눈으로 쫓다가 이미 뛰어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빙그르 뒤로 돌아서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AE 3호는 텅 빈 눈으로 터널 벽에 비치는 전차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는 숨이 찼다. 너무 힘이 들어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겨웠다. 그렇지만 만일에 여기서 넘어지면 승객들은 자기를 다음 역에서 역원에게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자 이를 악물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사나이는 근심스러운 듯이 벌써 두 번이나 그를 보았다.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던 젊은 여자는 자리를 양보할까하고 망설이는 것처럼 지그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피해서 AE 3호는 창문에 비치는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훌륭히 자기 방에서 빠져나온 뒤 AE 3호는 어떻게 해서든 거리를 빠져 나오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정거장도, 공항도, 아니 장거리 버스의 정류장까지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였다. 낮에는 거리의 혼잡에 휩싸여 만원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중 변소에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으니 다행이었지만 밤은 위험했다. 큰 창고의 한 구석에서 잠을 잤으나 조그만 소리에도 눈이 떠져서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하였다. 이러한 지옥 같은 상



태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아직 몇 100불인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에 어디선가 쓰러져 버리거나 앓을 것인가. 물론 이곳에도 소련 대사관이며 영사관은 있었다. 거기에 소비에트 시민 그레고리 리차초프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있는 것은 미국인 카메라맨 데이비드 존슨의 가짜 신분 증명서뿐이었다. 가령 소련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도 되지 않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스파이 AE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일은 스파이 훈련 중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 받았던 것이다. "위험해지면 가장 가까운 국경을 넘어서 도망쳐라. 그 나라에 있는 소련 기관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귀에 쟁쟁히 들리는 것 같다. 전차가 멎었다. 흠에는 많은 승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내리는 건 아직 이르다. 다음 역이든 그 다음 역으로 하자. 그건 그렇고 그 사나이는 왜 좀더 빨리 자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직 충분히 자기에 대한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자의 역할은 자기를 체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딴 것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잘 도망치기는 했다.)

전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AE 3호는 결심했다.

(그렇다, 이 거리를 빠져나가자.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보통 택시는 타서는 안 된다. 하이어 회사(자동차를 세내 빌려 주는 회사)의 차를 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교외

까지는 갈 수 있다. 거기에 수리 중인 내 차가 있다. 실업가처럼 행세하면 된다.)

그러나 그의 옷은 몇 밤에 걸친 창고 생활에서 더러워져 있었으므로 새 옷하고 가방을 사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디가 좋을까? 음, 백화점으로 가자. 그렇지만 낡은 옷은 어디다 버릴까?)

전차가 다시 멎었다.

(벌써 다음 역에 왔단 말인가)

AE 3호는 창 밖을 내다보았다. 전차는 터널 안에 멎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걸까. 레일을 수리 중일까. 사고인가. 아니, 어쩌면 나와 관계 있는 게 아닐까.)

AE 3호는 애써 냉정을 가장했지만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였다.

(여기서 도어를 열려고 하면 의심받을게 틀림없다. 지그시 침착하게 하고 있으면 된다.)

터널 속을 불빛이 다가왔다.

(그들은 스파이 AE 3호를 잡으러 온 거다. 아니, 미국인 데이비드 존슨 말이다. 빨리, 빨리 이 신분 증명서를 버려야지. 하지만 서둘러서 가방에 손을 대선 안 된다.)

그 때 도어가 열리고 제복을 입은 역관 두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한 사나이 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느 분이든 이 앞서 또는 그 전 역에서 발차하는 순간에 이 차에 뛰어오른 사나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건너 쪽의 젊은 여자가 곧 그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죠!"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사나이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나이입니다만."

AE 3호는 순간 소련 시민 그레고리 리차초프로 되돌아갔다. 그는 결코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었다.

항상 언젠가는 스파이로서 체포되리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미 도망칠 수는 없다. 마침내 최후의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제복의 사나이들 쪽으로 걸어가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저의 어머니가 항상 저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기 시작한 열차엔 뛰어오르지 말라고 말이죠. 지금의 저를 보셨으면 어쩌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하실 테죠."

리허설

리허설(공개하기 전에 하는 연습)은 오전 10 시로 정해져 있었다. 윌리엄은 방 한 구석의 받침대 위에 생생한 표정으로 유연하게 서 있었다. 왼쪽 손을 윗도리 주머니 속에 넣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조끼 옆에 걸치고 팔 소매는 손목 시계가 보일 수 있도록 약간 걷어올리고 있었다. 짙은 회색 빛 양복을 입은 윌리엄은 30세 가량의 중키의 스포츠맨 타입의 미국인 처럼 보였다. 만약에 이 인물이 전람회나 무슨

준비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역원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고 해도 아무도 그가 로봇임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무엇인가 약간 묘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었다면 그건 이상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눈빛뿐이었다. 그 눈은 무수한 작은 렌즈로 되어 있었으며 전자 광학에서는 제 1급의 학자인 램 교수의 발명에 의한 것이었다. 이 피도 신경도 심장도 없는, 그리고도 사람과 똑같은 기계 인간은 강철봉(강철로 만든 막대기)의 관과 선으로 되어 있었지만 복잡한 구조에 의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가 있었다.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몸 안에 비치된 건전지에서 공급되게 되어 있어서 가느다란 전선이 이어져 각 기관에 뻗쳐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생명이 없는 기계이며 새로운 세계의 기적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요술에 걸린 사람처럼 그대로 그곳에 서 있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손목 시계 치차(톱니)뿐이었다. 그 손목 시계의 바늘은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이 리허설의 책임자들은 아직 하이드 주임의 방에 모여서 브릭스 감독관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이야기가 끝나서 윌리엄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윌리엄은 번쩍번쩍하는 눈으로 이상야릇한 듯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모두가 의자에 앉자 하이드 주임은 뒤로 물러서서 잠깐 동안 등을 만지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와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

"자, 이제 전부 스위치를 넣네. 사고 장치도 말이지. 윌리엄은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걸세."

"그럼 왜 말을 걸지 않나. 뭐라고 한 마디 해 보게나."

라고 에머슨이 역시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한번 축이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 로봇을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윌리엄! 우리들의 말소리가 들리는가?"

그러나 윌리엄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스콧은 안타까운 듯이 옆에 있는 엘리엇의 팔을 잡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쩌서 윌리엄이 대답을 안 하지."

엘리엇은 일어서 윌리엄에게 다가갔다.

"하이드 씨! 메인 스위치를 누르는 걸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군요. 목옆에 붙어 있는데요."

하이드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그렇군. 잊고 있었네."

하고, 브릭스가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정중히 사과를 했다.

"어째, 요새 좀 지쳐 버려서요……"

브릭스가 알고 있다는 표시로 손을 들었으나 그 손을 내리는 건 잊어버렸다. 엘리엇이 친근한 듯이 로봇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여보게, 윌리엄 잘 있었나."

약한 진동이 윌리엄의 몸 안을 전달음쳤다. 그는 극히 자연스럽고 천천히 목을 돌려 차례 차례로 모두가 앉아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는 잠에서 지금 막 깨어나서 아직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엘리엇은 깜짝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였다.

"여보게, 윌리엄 잘 있었나."

윌리엄은 번쩍번쩍 빛나는 눈으로 구멍이 뚫어질 듯 엘리엇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우스꽝스런 모습을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보게 윌리엄 잘 있었나'라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떤 것인가."

엘리엇은 난처한 듯이 모두를 돌아보았다.

"다들 들었나. 윌리엄은 우리들이 어떠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단 말일세."

일등은 아이가 없어 잠시 동안 멍청해 있었다. 그러자 또 다시 윌리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내 앞에 있는 이 괴상한 것은 인간이다. 나는 묻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대답하지."

엘리엇이 윌리엄 쪽을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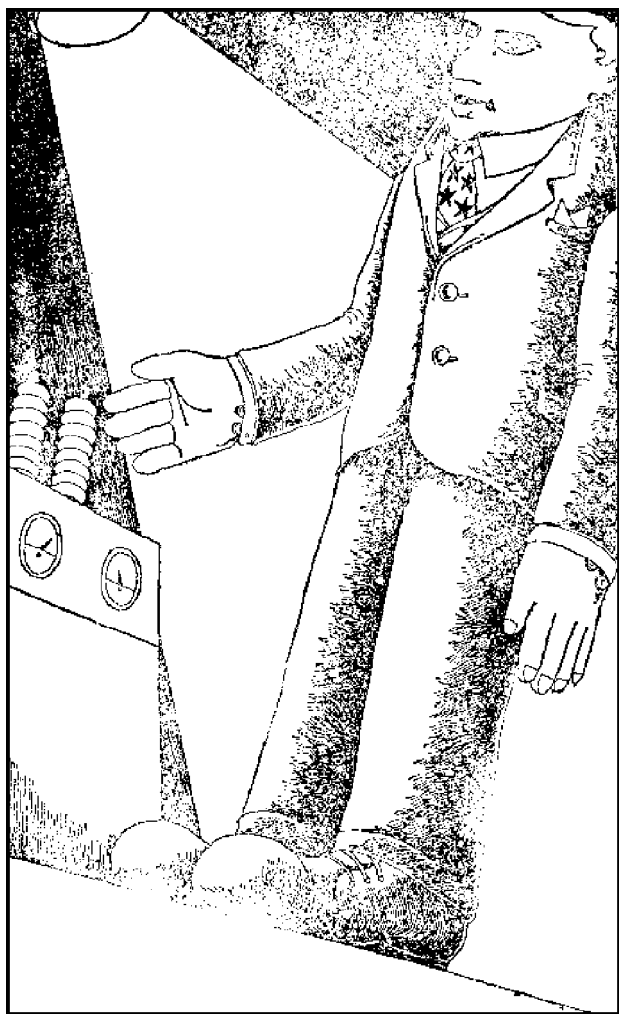
"인간은 신이 만든 것이다. 신은 영원이며 전능이다.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신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보게, 그런 목사님 같은 소린 그만 두게,"

라고 에머슨이 말했다.

"자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당신네들은 나를 혼란하게 만든다."



하고 윌리엄은 말했다.

"이 인간은 신을 믿고 있는데 저 인간은 신을 믿지 않는다. 어느 편이 사실인가?"

"알겠네, 윌리엄. 자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봇 중에서 가장 완전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금방 풀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인간!"

하고 윌리엄은 말하고 자기의 얼굴과 몸을 쏘아보고서 다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로봇이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하고 꼭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도 로봇인가?"

브릭스 감독관이 재미가 나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렇게 멋진 구경은 난생 처음이다."

"무엇이 멋진 말입니까?"

스콧은 그렇게 말하면서

"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건 불량품입니다. 이 따윈 납 인형관에나 놓아 두면 제격일 겁니다."

윌리엄은 지그시 스콧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해라. 인간! 나는 전부가 처음 보는 것뿐이어서 우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잠자코 있어 주길 바란다."

윌리엄은 팔을 뻗어서 에머슨을 가볍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는 엘리엇의 손을 꼭 잡고,

"나를 도와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 바라오. 여기서 나를 데리고 나가 주시오. 나는 좀더 여러 가지를 보고 싶소."

"그만, 그만."

하고, 엘리엇이 윌리엄을 저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에머슨은 황급히 멈추게 하고,

"윌리엄은 아직 막 태어난 어린애 란 말일세. 지식과 몸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경험이라는 게 전연 없단 말일세. 우리들은 언젠가 윌리엄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리라고들 얘기했지만 참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었네. 아무리 전자 두뇌를 갖고 있어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은 생각 할 수 없단 말일세."

"그러면 윌리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하이드가 브릭스에게 물었다.

"물론, 만국 박람회에 출품하지 않으면 안 되지."

분명하게 브릭스는 말했다.

"나는 반대입니다. 출품해 보았자 구경하는 사람들의 감정만 상하게 할 테니까요."

스콧의 이 말에,

"잠깐만."

하고, 램이 외쳤다.

"그렇다면 자네는 모처럼 내가 발명한 자동 시각 장치를 허사로 돌릴 셈인가?"

"흥! 그 따위 것이 뭐 그리 대단한 발명이라고."

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당장에라도 스콧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이 이상 참을 수 없다. 자긴, 윌리엄에게 6살 박이의 지식만큼도 주지 못한 주제에……"

"그만들 두게! 알았네 알았어!"

하고 에머슨이 사이에 끼여들어 말렸다.

"윌리엄의 일은 우리들 전부의 책임이네. 우리들은 처음부터 무엇이건 서로 의논해서 해 왔으니까. 만약에 그가 유치해 보인다면 그것은 경험이 부족한 탓일세.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봐야겠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일세."

라고, 엘리엇이 말한 순간 윌리엄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가르쳐 주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고? 그것은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승강이를 벌이는 것을 지금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은 서로 친하고 다정하게 하는 일에는 조금도 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다시 예전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하였던 나로 돌려보내 주오. 나는 지금의 나 같은 것은 되고 싶지 않다."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러운 놈인가!"

스콧은 집게손가락을 들고 반박하듯 말했다.

"네게는 우리들을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은 없다. 너는 우리들이 만든 거다. 우리들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될 거란 말야."

폭발하는 것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 스콧은 입을 다물었다. 웃은 사람은 브릭스였다.

"이런 우스운 일은 웃는 것이 직업인 희극 배우도 미처 생각지 못했을 거다. 스콧은 윌리엄을 붙들고 마치 진짜 인간에게 하듯이 화를 내고 있어 "

브릭스는 눈물을 닦았지만 아직 터져 나오는 웃음 때문에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네에겐 분명히 배우의 소질이 있네. 스콧, 지금 한대로 무대에서 해 보였으면 구경꾼들은 배를 움켜쥐고 웃었을 걸세, 인간을 꼭 닮은 로봇을 만들어 낸 과학자가 그놈의 로봇에게 감정을 상해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광경이란……"

브릭스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스콧을 보았다.

"음, 이건 아주 멋진 착상이다. 만국 박람회에서 이걸 그대로 연출해 보이세. 구경꾼들이 틀림없이 웃음보를 터뜨릴 걸세. 소련의 로봇은 아주 고지식하게 할 테지만 윌리엄은 미국인의 유머를 온 세계에 보여 주는 거다."

스콧은 브릭스가 웃는 바람에 처음에는 기분이 언짢았건만 그렇게 칭찬을 받자,

"여러분! 나는 브릭스 씨의 제안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오. 윌리엄은 그냥 이대로 두기로 합시다. 그는 사람들을 마구 웃겨 인기가 대단할 거요. 나타샤는 기껏 사람들을 감탄

시키는 것만으로써 곧 사람들에게 잊혀질 거요."

아직 속이 뒤틀려 편안치 않은 램의 말이다.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 전에 나타샤가 어떤지를 봐
들 필요가 있겠군."

에머슨이 마치 선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생도처럼 손을 들고 말했다.

"그것보다도 윌리엄하고 나타샤를 서로 만나게 하면 좋을
걸세. 소련 측이 반대할지는 모르지만."

윌리엄은 엘리엇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어이, 지금 저 인간은 나타샤라고 했는데 나타샤란 무엇
인가?"

"호오, 윌리엄은 벌써 자기의 라이벌에 신경이 쓰이는 모
양이군"

하고 브릭스는 유쾌한 듯이 말했다.

"윌리엄이 그런 마음이 될 줄은 미처 몰랐군."

엘리엇은 모두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눈짓을 하고 윌리엄
에게 말을 걸었다.

"윌리엄 군,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잠깐 주의를 하겠
지만 문명인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어이'라든가
또는 소매를 잡아당기거나 하지 않는 걸세. 교양 있는 미국
의 로봇으로서 자네는 딴 사람을 부를 땐 상대방에게 '씨'
를 붙여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네. 이제부터는 나보고 엘리
엇 씨라고 불러야되네. 자아,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질문을
해 보게."

윌리엄은 곧 가르쳐 준대로 하였다.

"엘리엇 씨, 나는 이들 인간을……"

"잠깐만."

라고 엘리엇은 이어서,

"이들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네. 그럼 여러분을 소개하지. 브릭스 씨에다 하이드 씨, 자아, 두 분께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자네가 교양이 있다는 걸 인정받을 테니까. 그리고 이쪽이 스콧 씨……"

그러나 윌리엄은 스콧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 인간, 실례, 이 스콧 씨는 아까 나를 뻔뻔스런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됩니까?"

스콧은 화를 내어 달려들려고 했으나 엘리엇의 눈짓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중얼거렸다.

"이놈은 꼭 뉴기니아에서 데려온 식인종 같군. 좀 훈련을 시켜야지……"

엘리엇은 그 말에는 개의치 않고 계속 윌리엄을 교육시켰다.

"스콧 씨도 자네를 만들어 준 사람일세.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네. 그가 한 말은 잊어버리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 잘했네. 썩 잘하는 걸. 그리고 이쪽이 에머슨씨하고 램 씨. 잘 알겠나? 그러면 자네의 질문에 대답하기로 하지. 나타샤도 자네와 같은 로봇일세. 그녀는 자네의 적수로 소련에서 만들어졌네. 적수라는 말을 알고 있나?"

윌리엄은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나의 머리 속에서 그 말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어떠한 말이라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리엇은 깜짝 놀라서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알 수 없군. 가만히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알게 된다니, 난 그렇게는 윌리엄의 사고 장치를 만든 기억은 없는데."

순간 윌리엄이,

"엘리엇 씨, 나하고 말을 할 때는 좀더 큰 소리로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의라는 것이겠죠."

"뭐라고 예의라고?"

하고 스콧이 외쳤다.

"이놈은 마침내 우리들의 행동까지 간섭하기 시작했군."

윌리엄은 그 말을 막는 것처럼 왼손을 들었다.

"스콧 씨. 이젠 나를 모욕하는 일은 그만 두십시오. 로봇인 나조차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자기 안에서 새 능력을 차례 차례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완전한 로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멍청히 보고만 있었다. 윌리엄은 계속 하였다.

"만약 러시아 사람이 아니, 소비에트라고 말해야 옳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고 장치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



알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소비에트에서도 나타샤라는 로봇을 만들었다면 나는 그녀하고 친구가 되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소개해 주시렵니까? 엘리엇 씨, 여보세요? 엘리엇 씨!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째서 그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사고 장치가 고장난 겁니까? 그렇다면 안 됐습니다."

"스위치를 꺼라! 엘리엇."

람이 고함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스위치를 끄게. 나는 어쩐지 내가 로봇이고, 반대로 윌리엄이 진짜 인간 같은 생각이 드네."

목에 꽃힌 바늘

오전 2시경이었다. 젤마코프는 회의석상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가서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았다. 어제 아침부터 연거푸 하는 조사 때문에 그의 머리는 멍청해 있었다. 그래도 아직 나타샤의 고장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2주일 전의 시험에선 그렇게 잘 됐는데, 어제 아침의 두 번째 시험에선 나타샤는 뜻 모를 말을 중얼거릴 뿐 만족한 말을 하지 못했다. 거기다 눈도 보이지 않았다. 가빠아링이 걸어 보도록 시켜 보았지만 그녀는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움직일 수는 있어도 그 이외의 것은 무엇하나 하

지 못했다. 몇 시간이라 조사해 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빠아링은 해체해 봤으면 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나타샤의 플라스틱제 피부는 그렇게 금방은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쌍하게도 뺨벨은 갈팡질팡했다. 그는 양손을 쥐어 비틀면서 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설게 계획을 조사해 봐 줄 수 없는가 하고 부탁하고 다녔다. 젤마코프는 동정의 눈초리로 뺨벨을 쳐다보았다. 뺨벨은 한쪽 구석 의자에 등을 구부리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자기의 이름이 저명한 과학자의 명부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의 적이나 경쟁자들이 그를 비웃으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그의 지금까지의 위대한 공적이나 거기에 대해 주어진 명예도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만 그를 비난할 것이다. 이 노인을 도와 줄 수는 없단 말인가. 젤마코프는 갑자기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원인은 엑스(X)선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엑스레이가 뺨벨을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엑스(X)레이로 나타샤를 비쳐 봐야지."

젤마코프는 고함쳤다. 젤마코프의 생각을 들은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스와로프와 데뺨킹은 달려와서 그의 등을 두들겨대었다. 데뺨킹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타샤를 얼싸안았다. 뺨벨은 갑자기 뛰어 일어나 너무나 기빠서 말도 못하고 주름 투성이의 손으로 나타샤를 가리켰

다. 모두는 곧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타샤를 엑스(X)선 실로 운반해 가려고 하였다.

"나타샤는 혼자 갈 수 있네. 걸을 수 있으니까."

라고 데빠킹이 말했다. 그러나 가빠아링만은 조금도 기쁜 빛이 없이,

"엑스(X)선을 비쳐봤자 쓸데없네. 나쁜 곳을 알아냈다 해도 결국은 플라스틱의 피부를 찢어 버려야 할 테니까."

라고 말했다. 스와로프와 데빠킹은 실망했으나, 젤마로프는

"아주 찢어 버릴 필요는 없네. 어디든 고장난 데가 발견 되면 거기만 찢으면 될 테니까."

"빛이 발견돼?"

가빠아링은 침착치 못한 태도로 눈을 깜박거리면서 말했다.

"빛이 발견된단 말인가, 팬치인가, 스페너인가?"

"그렇군. 미처 거기까진 생각지 못했지만 공구(작은 기구나 도구)를 집어넣는 걸 잊어버리는 수도 있었군 그래."

"그렇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군."

하고, 빼벨은 흥분해서 말했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네."

가빠아링이 신통치 않은 얼굴로 빼벨을 보았다.

"나는 그런 뜻으로 그런 건 아니요. 그것보다도 한 잠 폭 자면 좋을 거요. 나머지 시험을 하기에는 모두 너무 피로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드

리겠지만 하여튼 제게 맡겨 주십시오."

"지금 얘기해 줄 수 없나?"

하고, 뻬벨이 부탁했으나 가빠아링은 머리를 저으며,

"아직 말씀드릴 단계까진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시 피로해서요. 하여튼 오후엔 나타샤를 움직이게 해 보일 테니까요."

젤마코프는 가빠아링을 주시하고 나타샤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 때까지 우리들 손으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면 말이지?"

"종고말고, 성공을 비네."

하고 가빠아링은 기분이 언짢은 듯이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뻬벨은 가빠아링을 불러 세우려고 했지만 그 때 젤마코프가 나타샤의 운동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뻬벨은 마치 간호원처럼 나타샤를 데리고 앞장서서 복도의 도어를 열고 들어갔다. 이윽고 엑스(X)선실에 이르자 모두들 나타샤를 도와서 엑스(X)선 장치 앞에 데리고 갔다. 이윽고 영사막에 나타샤의 내부가 비치기 시작하였다. 젤마코프는 외과 의사 같은 세심한 주의로 나타샤의 각 부분을 조사했다. 몸체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차츰 목 쪽으로 옮겨갔다. 마침내 영사막에는 나타샤의 머리와 목 부분이 나타났다.

"가빠아링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젤마코프가 애석해 했다.

"두 눈보다 네 눈이 더 잘 뵈 테니까. 사고 장치를 만든 건 그와 난데 그를 보내다니, 뻔뻔 씨."

"할 수 없었네."

하며 뻔뻔이 변명했다.

"몹시 피곤하다고 해서 말릴 수가 없었네. 거기다가 오후에는 틀림없이 고쳐 보이겠다고 약속했거든. 어쩐가? 별로 나쁜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엑스선도 소용없었나?"

그는 킁킁한 빛 속에서 의자를 찾아 앉으려고 하였다. 그때 젤마코프가 외쳤다.

"저건 뭐야. 저 가는 선은 전선은 아닌데, 모두들 보이냐. 목 뒤부터 시작해서 목 한가운데서 끝났구먼. 두뇌에 전류를 통하는 전선에 박혀 있네. 나타샤를 옆으로 돌려 앉혀 놓고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네. 음, 좀더 왼쪽으로…… 응 그래 그래 됐네."

몇 초인가 지났다. 젤마코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불을 켜 주오."

연구원의 한 사람이 스위치를 켜고 젤마코프 쪽을 보니까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한 대 얻어맞거나 한 것처럼 화를 내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작업복 윗도리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펜치를 끄집어냈다.

"무엇인가 알아냈나? 젤마코프."

하고, 뻔뻔이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만약에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곧 알게 되겠죠."

젤마코프는 나타샤의 뒤로 가면서 말했다. 그는 나타샤의

목에 펜치를 데고 무엇인가 집어내려고 했다. 펜치는 세 번 미끄러지고 희미한 소리를 냈지만 네 번째에는 성공했다. 젤마코프는 입을 꼭 다물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리고 긴 바늘을 뽑아내자 모두에게 차례차례 보이면서,

"원인은 바로 이것ियो. 이 바늘이 뇌로 통하는 전류를 방해하고 있었지요. 그 때문에 나타샤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요."

삐벨은 석상(돌로 조각한 모양)처럼 한참 동안 버티고 서 있다가 이윽고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리며 신 목소리로 물었다.

"젤마코프, 누구의 소행인지 알겠나-?"

그 말에 대답한 것은 스와로프였다.

"짐작은 갑니다. 그렇잖소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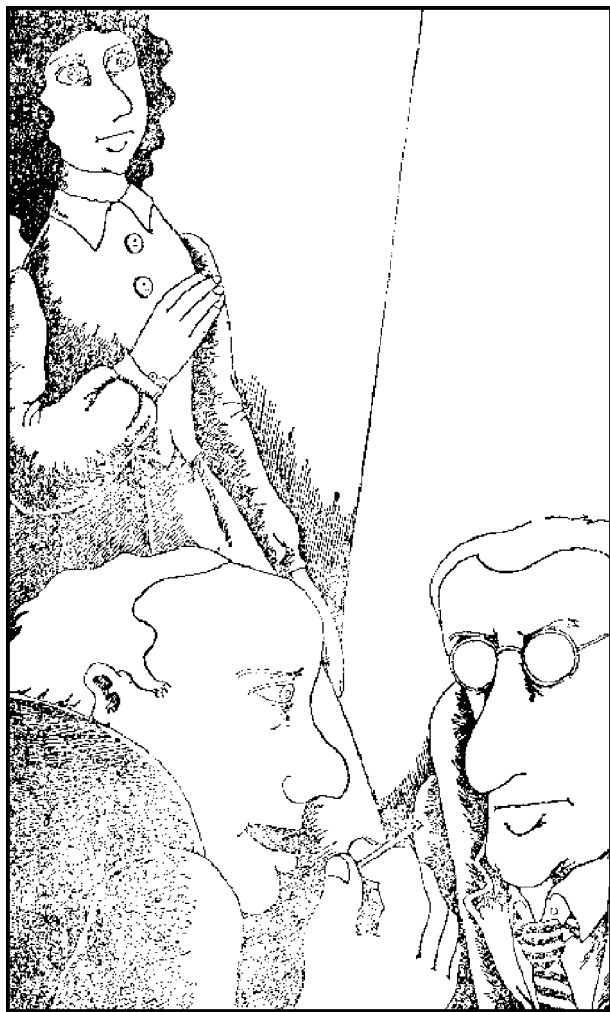
"경솔한 말을 해선 안 되네."

젤마코프는 모두에게 말했다.

"그것보다, 여기 좋은 증인이 있네. 나타샤는 누가 자기 목에 바늘을 꽂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줄 테죠. 내 생각으로 그 인물은 이 바늘을 꽂고서 그 영향을 조사해 보기로 했을 거요."

"나타샤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네. 나는 누가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스와로프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젤마코프의 눈짓으로 입을 다물었다. 젤마코프가 여기 저기의 스위치를 누르자 나타샤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



는 곧바로 몸을 씻고는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 몸짓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올려 목 뒤를 눌렀다.

"네, 그래요. 바로 여깁니다. 만일에 더 깊이 쫓았으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젤마코프는 나타샤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모두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눈짓을 했다.

"나타샤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난 걸세. 그녀의 기억 장치는 최고급이니까. 딴 피해가 없길 잘했네. 어디 누가 했는지, 직접 그녀에게 물어 보기로 하세, "

"나타샤, 자네에게 바늘을 쫓은 사람이 누구였나. 우리 들 중의 한 사람인가?"

그는 나타샤의 옆으로 다가가 바늘을 보이면서 물었다.

그녀는 방안을 빙 둘러보고,

"그는 여기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필요로 합니다."

"그건 또 어떤 뜻인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하고, 삐벨이 물었다. 나타샤는 질문하는 듯이 그를 보았다.

"당신은 젤마코프입니까? 젤마코프는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겐 잘 알 수 없군."

하고, 삐벨은 젤마코프를 향해,

"나타샤가 하는 말은 통 알 수 없네. 역시 도선 (전류를 통하기 위한 쇠줄)이 고장난 게 아닌가?"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젤마코프는 곧 답했다.

"나타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했건 간에 분명히 그녀는 그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자는 나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디 좀 더 들어보기로 합시다."

"나타샤, 내가 젤마코프일세.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젤마코프는 그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나? 잘 생각해서 대답해 주게."

"그렇습니다."

나타샤는 곧 대답했다.

"그리고 무어라고 했습니다. 아뇨 말이 아니라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젤마코프는 소리를 내어 웃고는 곧 또 물었다.

"소리라는 건 이런 거였나, 나타샤? 우리는 이걸 웃는다고 그러다네."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그는 젤마코프는 그를 필요로 한다. 하고는 웃었습니다."

빼벨은 화가 치밀어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손바닥을 힘껏 쳤다.

"가빠아링 녀석 같으니라고! 어쩌면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지. 그런 유명한 사나이가 이러한 비겁한 행동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

"그렇게 그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젤마코프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는 너무나 야심이 많았던 겁니다. 나타샤를 망가뜨리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후에 남몰래 바늘을 꿰고서는 우리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게죠. 그렇게 한 벌로 이 바늘을 보이고 돌려줍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나는 어째서 웃을 수 없습니까?"

하고, 나타샤가 갑자기 물었다.

"지금 웃어보려고 해 보았지만 되지 않습니다."

모두들 어이가 없어서 나타샤를 보았다. 그러자 스와로프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자네는 웃지 않아도 괜찮네. 자네는 소비에트 부인의 상징이니까. 소비에트의 여성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웃고 있을 틈이 없는 거라네."

"아무튼 애석한 일이네."

하고, 젤마코프는 말했다.

"사실은 나타샤도 웃어야 옳았지. 그러나 슬픔은 감정의 표현이니까 소련의 과학자가 감정을 가진 로봇을 만들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할 수 없네."

"미국 과학자들도 그런 것은 만들 수 없도록 기도해야지."

하며 빼벨은 근심스러운 듯이 이마에 주름을 모으며 말했다.

"얼마 동안 윌리엄에 관해서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을 만들지나 않았을는지……"

"윌리엄이란 누구입니까?

나타샤가 물었다.

"나는 아직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와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나타샤, 잘 들어 뒤. 두 번 다시 그런 소릴 하면 내가 가만 두지 않을 테니까, 알았나?"

빼벨이 엄하게 말했다.

"나중에 말해 주겠지만 너는 그하고 친근해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박람회에서는 강철의 울 속에 넣어 둘 테니까. 자, 이제 전기를 끈다. 훌륭한 소비에트 부인은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안 되는 법일세."

화성인

운전사인 해리 모리슨은 40세로 접어드는 미들급 권투 선수 챔피언이었다. 그는 오전 9시 30분에 1초도 틀림없이 물리학 연구소 현관 앞에 닿았다. 그는 감독에게서 오늘 태우는 손님에게는 절대로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는 안 될 것,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도중에서 어떠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결코 그쪽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엄한 주의사항을 받고 있었다. 모리슨은 그러한 명령을 받기에 적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신중하고 눈치 빠르고 어떠한 위험한 사태에 부딪쳐도 냉정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다. 수송부의

많은 운전자 중에서 특히 선발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지금 그는 8인승 리무진의 운전석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감독관의 말을 생각해 냈다. "연구소에 도착하면 차안에서 기다리게. 손님은 5명이지만 손님들이 올라탈 때 차 문을 열어 주려고 내려서는 안 되네. 곧바로 보고 있다가 손님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게. 그게 출발 신호니까." 모리슨은 운전석 앞 계기판의 시계를 걸눈질해서 보았다. 도착한 지 벌써 12분이 지났다. 파리가 콧잔등에 앉았으나 모리슨은 명령대로 꼼짝 않고 윗입술을 들이밀고 입김으로 날려보냈다. 또 몇 분이 지나고 말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소리가 났다.

"걱정할 것 없네, 윌리엄 군. 이건 자동차라는 걸세. 가솔린 엔진으로 차바퀴가 돌아서 달린다네. 핸들을 잡은 사나이가 운전하네. 이제부터 이 기계로 우리는 온 거리를 돌아다닐 걸세."

모리슨은 깜짝 놀라 눈을 깜빡거렸다. 아차 했으면 뒤를 돌아볼 뻔하였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바로 옆에서 이상스러운 만큼 단조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에머슨 씨. 내가 타는 걸 망설인 것은 이것도 나처럼 전자 자동 장치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닐세, 그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네만. 여기 대해선 언젠가 스콧이 얘기해 줄 걸세. 자동차는 그의

취미니까. 자, 어서 올라타게 윌리엄 군. 이제부터 여기저기 돌 거니까. 공항과 배가 머물러 있는 항구를 말하네."

"공항과 배라고요?"

묘한 목소리는 계속 말하며.

"그건 무엇입니까? 아뇨,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서 생각하겠습니다."

모리슨은 권투 선수 시절 한 번 낙아웃한 적이 있었다. 그는 매트 위에 누여져서 몇 킬로미터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레퍼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원…… 투우…… 쓰리…… 포어……"

지금도 꼭 그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 이상한 인물이 안에 들어와 앉자마자 약간 기우뚱하였다. 모리슨은 저도 모르게 백미러를 보았다. 5명의 사나이의 얼굴이 보였다. 4명은 보통의 미국인이지만 뒷좌석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과연 살아있는 인간일까? 두 눈은 작은 유리 조각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얼굴은 이상스럽게 표정이 없었으며 창백했다. 마치 가면 같았다. 그 때 머리와 팔이 움직였다. 그렇다면 살아있는거다. 그렇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란 말인가.

(달에서 온 사람? 아니, 화성에서 온 방문객이란 말인가. 화성에서가 맞을 것 같다. 그렇지, 화성인이다! 화성인이 지구로 외교상의 비밀 문서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 것이다.)

모리슨은 곧바로 앞을 향하자 좀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

려고 하였다.

(화성인은 영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화성인은 영리해서 영어쯤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어떻게 해서 지구로 온 것일까. 로켓으로?)

"엠퍼라이어스테이트 빌딩."

5명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모리슨은 생각하던 것을 그만 두고 로봇처럼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잠시 동안 그는 교통 신호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빨간 신호가 켜져 멈추고, 다시 푸른 신호가 켜지자 움직여 앞으로 나갔다. 자동차의 홍수는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가득 차 있었다.

"주의! 주의!"

하고 그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화성인의 목소리가 말했다.

"세계는 하나의 거리입니까? 에머슨 씨. 아니라고요? 그럼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거리에 모여 있는 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리슨은 또다시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윌리엄 군. 저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일세. 1백 2층이나 되며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네."

"나는 그런 곳은 사절하겠습니다. 램 씨,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별로 불쌍해 할 필요는 없지. 위로 올라가면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거든……"



"공기란 무엇입니까?"

"에에 또, 공기란 주로 산소와 수소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구의 대기를 형성하고 있다네. 우 리들 인간은 숨을 쉴 때 공기가 필요해. 공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일세."

"내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램 씨. 공기는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 때까지는 공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까?"

"그 질문엔 에머슨이 대답해 줄 걸세. 윌리엄 군. 그는 우주의 신비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만둬, 램."

하고 에머슨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로서는 윌리엄이야말로 인간의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을 할 수 없었네."

"결국 그는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인간 이상은 모른단 말일세. 여보게 운전사, 왜 그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모리슨은 하마터면 앞에 멎어 있는 트럭에다 차를 부딪칠 뻔했던 것이다.

(헤에, 그렇다면 저건 시험관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란 말인가? 어쩐지 그래서 저렇게 창백한 얼굴을 하고 눈이 반짝 반짝 빛나고 있구먼. 자동차며 고층 빌딩이며 공기를 모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여보게 운전사, 어떻게 됐어. 떨고 있나?"

손님 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푸른 신호인데도 모리스는 앞으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그시 허공을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화들짝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모두가 감독 때문이야. 왜 귀를 틀어막으라고 하지 않았지. 저놈의 시험관 자식, 날 미치게 만드네. 어렵쇼, 저 따위 소릴 하고 있네.)

"저 운전석에 있는 로봇은 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어째서 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에머슨 씨."

"저건 로봇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라네."

"하지만 아침부터 한 마디도 하지 않는군요. 병어리입니까?"

"아니 병어리가 아닐세. 잠자코 있는 것은 지금 근무 중이며, 교통 신호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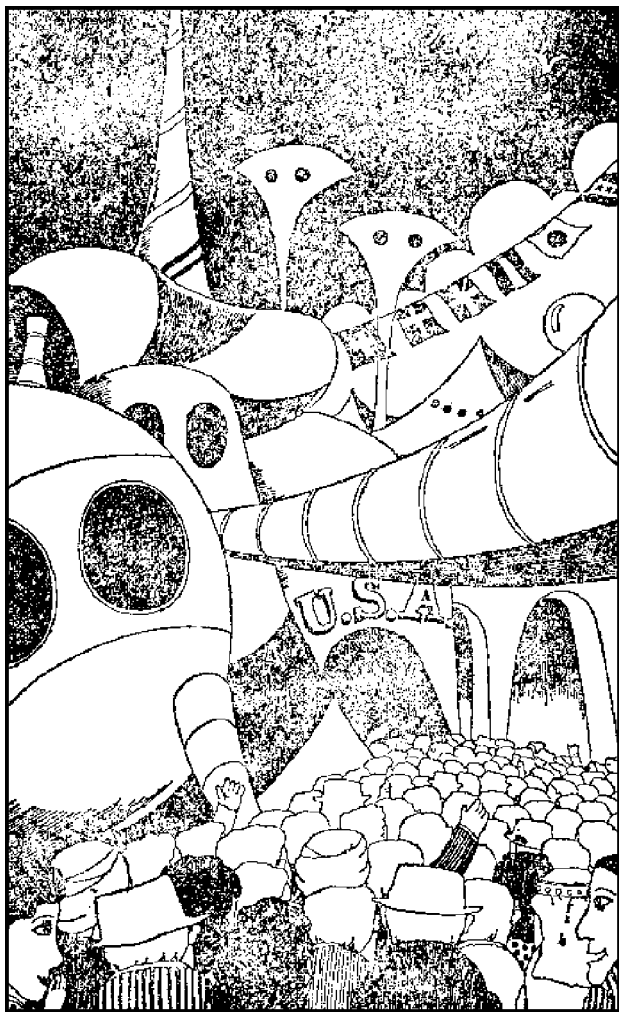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만국 박람회의 개회식은 끝났다. 우선 각국에서 온 내빈이며 언론인들에 대한 환영사가 있는 후에 유명한 정치가들의 메시지를 기다랗게 읽어 내려갔다. 외교관들은 각국 정부를 대표해서 서로의 가슴에 훈장을 달고 과시하며 상대국을 위해 몇 번이고 건배를 들었다. 이 광경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 세계에 방송되었으며, 신문 기자들은 감동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전 인류의 우호 세계가 시작되려

고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어째서냐 하면 소비에트 연방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많은 관객 앞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을 얼싸안고 상대방의 뺨에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전시장이 줄줄이 세워진 회장 앞에는 참가국의 국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초록이며 빨강이며 검정, 노랑, 청색, 흰색과 별, 태양, 달, 망치, 가마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같은 바람을 맞으며 의중계 나부끼고 있었다. 이 바람은 또 인간의 지혜와 상상력이 낳은 기적을 보려고 보러온 몇 만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어느 깃발이나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부끼고 있었다. 세계의 유명한 예술가, 기술자, 건축가, 또는 디자이너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공업 농업 제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낳은 위대한 시인, 사상가, 작곡가, 화가, 조각가들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훌륭한 전시장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몇 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둥근 원을 이루거나 느릿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부지 전부가 홍수의 거리처럼 보였다. 이 사람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의도, 언어도, 피부의 색깔도, 그리고 옷차림도 틀리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었다. 부산스럽게 몸짓 손짓을 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사람, 점잖을 빼고 걸어가는 인도인의 옆을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웃고 있는 흑인이, 묵묵히 걷고 있는 일본인의 옆을 흰 살색의 다리가 긴 영국 부인이, 화사하고 자그마한 인도네시아 부



인 옆을 성실한 표정의 검은 수염이 달린 사막의 추장들이, 떡 벌어진 체격의 캐나다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모습이 다름에도 박람회 의 가장 큰 구경거리인 윌리엄과 나타샤를 보러 박람회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보도 때문이었다. 박람회 당일은 미국관에도 소련관에도 많은 군중이 쇠도했기 때문에 쇠사슬을 막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련관에서는 처음부터 나타샤가 망가지지 않도록 빨간 용단을 깐 방안에 넣은 철창으로 만든 우리를 씌워 두었다. 그러나 미국관에서는 윌리엄의 자유를 존중해서 굵은 금색과 푸른 비단 새끼로 윌리엄을 둘러쳤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새끼줄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하기로 했다.

(당분간 윌리엄하고의 회견은 우리들이 인정한 사람들에게 한정한다. 또한 질문 및 사진 촬영은 한 사람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회견 허가는 신분 증명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윌리엄은 하루 종일 보도인들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일체 피곤한 기색도 없을뿐더러, 동작이며 이야기하는 품이 더욱더 확실성을 더해갔다. 3일 만에 윌리엄은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행동을 나타냈다. 그 날 발행 부수 수백 만 부를 자랑하는 독일 잡지 기자가 독일어로 윌리엄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여러 나라의 국어를 할 수 있다기에 독일어로 질문합니다만, 유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럽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자는 수첩과 볼펜을 들고 기다렸다. 몇 초인가가 지났다. 그는 그만 실망해서 볼펜을 내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애석하지만 독일어를 모르는 게로군요."

"아닙니다."

하고 윌리엄은 훌륭한 독일어로 말했다.

"내 안에 들어 있는 번역 장치를 독일어로 맞추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독일어는 문법이 어려워 좀 귀찮지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관찰하고 있었답니다. 제대로 된 독일 사람을 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인의 몸은 두 개의 부분, 즉 동독일과 서독일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시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은 독일인의 육체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리라고는 생각지 못 했었군."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단순한 로봇에 지나지 않아 나의 두뇌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할 뿐이랍니다. 만약에 틀린 말을 한다면 그건 나의 선생인 물리학자 람 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데, 유럽은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소. 유럽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요."

"유럽의 나라들이 서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왜 제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군요. 미국에서는

프랑스인, 독일인, 소련인, 스칸디나비아인, 스페인 사람, 히랍인, 이탈리아인들이 서로 이웃해서 살고 있지만,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부가 미국인입니다. 왜 유럽 나라들은 합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국경 같은 건 필요 없게 되고 유럽은 한 나라로 될 텐데요."

독일인 기자는 흥미 있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유럽의 나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군요."

"나는 로봇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합병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람 씨의 말에 의하던 유럽에서는 무서운 전쟁이 수차 있었다고 하는데 합병하고 있었으면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아직 무엇인가 제게 묻고 싶은 말이 남았습니까?"

기자는 열심히 윌리엄의 말을 수첩에 적고 있었으나 관장인 하이드에게서 이젠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를 받자 황급하게 말했다.

"이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씨, 당신은 소련관의 나타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나타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나타샤의 일은 아직 얘기로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은 그 이상 이야기 할 수가 없었다. 하이드가 다가와서 기자에게 영어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만 두시오, 딴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

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윌리엄이 기사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기다리게 하지요. 나는 나타샤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소련관으로 안내해 주겠지요."

윌리엄은 금색과 청색의 새끼줄을 넘으려다가 하이드에게 정지 당했다.

"윌리엄 군! 자네는 이 전시장을 떠날 수가 없다네. 자네에게는 이 새끼줄이 경계선일세. 국경을 넘는 걸 허락 받고 있지 않는 걸세."

"나는 항의합니다."

라고 윌리엄은 말을 꺼냈다.

"나는 자유로운 미국의 로봇입니다. 만약에 내가 소련관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시민권의 침해입니다. 당신은 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있군요.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에 대해선 엘리엇 교수가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나타샤를 만나러……"

"안 돼."

하이드는 화가 나서 외쳤다.

"너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 단순한 로봇이야. 나는 허락할 수 없네."

윌리엄은 일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기자 쪽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영어를 아시죠. 자유로운 미국의 로봇인 내가 하

이드 씨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당한 데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권의 이름으로 내게 가해진 부정을 국제 연맹에 호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이가 없어 멍청히 서 있는 하이드를 향해 말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국제 연맹에는 소련도 가맹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 줄 테죠."

하이드는 어이가 없어,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줬나? 램인가 엘리엇인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램 씨도 엘리엇씨도 아닙니다. 어제 오후 나하고 회견한 소련인 기자입니다. 당신도 옆에서 듣고 있었을 텐데요."

"난 소련 말을 알지 못하네."

하이드는 옆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 기자에게,

"그 자가 선동한 게 틀림없어요. 지금까지의 윌리엄은 어린 양 모양 순하디 순하고 어쩌다 반발하는 일이 있어도 아주 공손히 애길 했었는데."

"기자 양반,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도 써 주세요."

라고 윌리엄이 독일인 기자에게 말했다.

"소련 기자는 내가 미국의 발명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소비에트의 설계 계획에 의해서 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미국의 로봇이 아니라 소련의 로봇입니다. 이 일을 소련 측에 이야기해서 압제자 하이드 손에서 윌리엄을 해방시켜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독일인 기자는 재빨리 그것을 적으면서 중얼거렸다.

"마침내 윌리엄도 소련의 선전 포로가 된 모양이군."

그리고 잠깐 얼굴을 들고 말했다.

"윌리엄 씨, 어서 계속하십시오. 이걸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겠는데 미·소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련만. 당신의 의견은? 윌리엄 씨, 어째서 잠자코 있는 겁니까."

윌리엄의 눈이 빛을 잃고 있었다.

"내가 전기를 끊었습니다."

하이드가 말했다.

"이 이상 이야기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말이오. 윌리엄에게는 우선 현대사를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인은 살피듯 윌리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로봇은 독일에서 독일식의 엄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군."

목도리를 두르고

베벨은 초조해서 나타샤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지구상의 기자라는 기자는, 특히 미국 기자들이 이 박람회가 끝날 때

까지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 속에 묻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타샤에게 이것저것 모든 것을 물어보려고 해서 빼벌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마다 그는 일어서서 나타샤의 책임자로서 인사 치레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직접 장관에게서 나타샤의 책임자로서 만국박람회에 나가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대단한 기쁨과 명예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최대의 박람회를 구경할 수 있어서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강철의 우리하고, 그 앞에 모여드는 카메라맨과 기자들뿐이었다. 그는 나타샤와 함께 우리 안에 갇혀서 밀어닥치는 기자들의 응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다른 관원들은 전시장을 나가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또한 서로 바꿔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빈 소시지를 먹기도 하고, 뭇헨 맥주를 마실 수도 있었다. 그 칼칼하게 매운 빈 소시지…… 그는 모스크바의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리셉션에서 한 번 먹어본 기억이 있었다.

(그걸 먹으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새로운 기자가 다가왔다. 그 사나이는 전시장 앞의 군중을 헤치면서 들어왔다. 모자는 찌그러져 납작하고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칼라의 단추는 달아나고 없었다.

"여어, 나타샤! 당신을 만나서 반갑소."

라고 그 사나이는 말했다.

"나의 이름은 찰리지 빙클레요. 매일 150만 부를 거뜬히 판매하는 제 1급지 시카고 뉴스 지의 주임 기자요. 우리 신

문은 싱가포르, 케이프 타운, 리오데자네이로, 시드니, 홍콩 할 것 없이 어디서나 팔고 있던 말쑤이야. 보도원이 있는 곳이라면 말이오. 하하하하……. 어때 멋지지. 나는 항상 기분이 좋으시단 말쑤이야. 어렸을 땐 아주머니에게 웃음을 옮겨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혼난 적이 있지. 자 잠깐만 웃어요. 아주 예쁜 사진을 찍어 줄게요."

빙클레는 계속 물어대었다.

"당신 옆에 있는 아저씨는 누구지? 잠깐만 비켜달라지. 자, 어서 웃어요. 우리 이쁜이, 내일 모레는 헐리웃의 온 감독이 아가씨 목에 몇 백만 불의 계약서를 매달기 위해 올거요."

빙클레는 카메라를 내려두고 실망한 표정으로,

"어떻게 됐나, 나타샤. 왜 안 웃지? 왜 그렇게 나를 뚫어저라 하고 보고만 있지?"

삐벨이 앞으로 나와서 서툰 영어로 말하였다.

"당신은 나타샤를 혼란케 했오. 그녀는 그러한 말투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나타샤가 유창한 영어로 반대했다.

"당신은 참 재미난 분입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벌써 윌리엄씨를 만났습니까? 그는 웃을 수 있습니까?"

"그도 역시 안 되더군. 아주 멋진 이야기로 웃겨 보려고 했지만 말이오. 난 그가 불쌍해졌소. 아주 멋진 녀석인

데…… 음 이제야 생각나는군. 당신보고 인사 전해 달라고 하더군. 그도 당신을 만나 보고 싶어하던데. 자, 기뻐요?"

나타샤는 잠자코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멍청히 이 쭈시개를 물고 있는 뻘뻘을 보고 물었다.

"기뻐해도 좋습니까. 뻘뻘 동지?"

"응, 뭐라고? 기뻐한다고?"

뻘뻘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음, 그래 기뻐하고 싶다고. 그런데 애석하지만 자네의 자동 장치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

"하지만 저는 기뻐하고 싶은 걸요."

나타샤는 계속 말했다.

"윌리엄씨가 제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만나서……"

그녀는 약간 망설이고 나서 분명히 말하였다.

"저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타샤,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뻘뻘은 깜짝 놀라서 외쳤다.

"자네는 소비에트 여성의 상징이야. 그런데 미국 로봇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네. 안 돼. 그는 곧 자기는 자네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믿게 하려고 들 테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되지요."

"귀를 막아? 아니 그것보다는 그의 자유는 걸치레라고 가르쳐 주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군. 너는 철 우리 속의 모든 번거로움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를 이리로 불러 주세요."

"아니, 역시 안 되겠어. 그런 무리한 주문은 하지 말게, 나타샤."

빙클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타샤, 그 영감이 뭐라고 하나? 영어로 말해 줄 수 없겠나."

그러자 놀랍게도 나타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빙클레 저, 손거울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저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당신은 그 사진을 찍어서 윌리엄씨에게 보내 주세요. 뽀뽀 씨가 그를 만나는 걸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요."

"이건 굉장한 특종 감이군."

빙클레는 펄 듯이 기뻐했다.

"당신이 그렇게 윌리엄을 만나 보고 싶어하는데 심술쟁이 영감이 허락해 주질 않는다고 쓰면 독자들은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동정할 거야."

그리고 빙클레는,

"자, 예쁘게 하고…… 아, 참 잊었었군. 거울 말이지. 공교롭게도 가진 게 없지만 이 카메라의 렌즈를 쓰면 좋을 거요. 자, 보이죠?"

그는 카메라를 나타샤의 얼굴 높이까지 올려 주고 자기 작품을 바라보는 화가처럼 그녀에 대한 비평을 시작했다.

"그 다갈색 금발은 백금색 금발 쪽이 좋았을 것일. 그리고 앞 머리카락은 좀더 이마에 내리고, 응 좋았어. 그리고



한가운데서 가른 가르마는 좋지 않아. 그리고 머리에 쓴 수건도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 옷 꼭 시골 처녀 같아. 소련엔 복식 디자이너는 없나, 누가 그런 옷을 입혔지? 수를 예쁘게 놓은 흰 블라우스에 빨간 장화. 그들은 당신을 헐리웃에 보냈어야 옳았었지. 그렇게 했으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승마 바지를 입은 귀여운 텍사스 아가씨로 만들어졌을 것을."

나타샤는 잠자코 렌즈를 들여다보며 앞머리를 이마에 늘어뜨리고 꼭 긴 목 단추를 풀어놓고 머리 수건을 벗으려고 했다. 그것을 보자 빼벨은 황급히 말했다.

"무엇을 하고 있어, 나타샤. 곧 수건을 쓰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전류를 끊겠어."

나타샤는 망설이는 듯 렌즈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시골 처녀보다 텍사스 아가씨처럼 되고 싶어요. 수건을 머리에 쓰는 건 유행에 뒤떨어진 옷차림이에요. 목에 감는 편이 훨씬 귀엽게 보이는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난 기분이 나빠지네. 자네는 소비에트 여성의 훌륭한 대표란 말이야. 머리 수건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누가 그런 소리 해. 응? 저 녀석이군."

빼벨은 우리의 철장을 잡고 상대방이 러시아어를 모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외쳤다.

"어서 나가 주게. 자네는 나타샤를 선동하고 있어. 이건 모반에의 조짐이야. 자, 나가 줘. 이제 나타샤하고 얘기하지 말게. 그녀는 소련의 보배야. 외국인의 흉내 따위 모방해서

는 안 되는 걸세."

나타샤는 뻘뻘의 뒤로 돌아가 머리의 수건을 풀어 목에 매었다. 빙클레는 멍청하게 뻘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을 보자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잽싸게 뒤로 물러서서 카메라의 위치를 잡고 찰각하고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웃으면서 나타샤에게 말했다

"감사해요 아가씨. 심술쟁이 뻘뻘 씨의 뒤로 가다니 참으로 멋진 생각이요. 아저씨도 함께 찍혔으니 이것을 보면 당신이 얼마나 엄한 감시를 받고 있는 지를 독자들도 잘 알 것이요."

"안녕! 예쁜 아가씨. 당신이 인사 전하더라고 윌리엄에게 전하겠소."

로봇의 파업권

윌리엄의 책임자인 하이드는 전시장 한 구석의 벤치에 걸터앉아 졸린 표정으로 윌리엄을 구경하는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의 할만한 사람은 없었다. 조용히 윌리엄을 바라보고 그냥 서 있는 사람과 용감하게 말을 걸어보는 사람들, 모두 다 윌리엄의 현명한 응답에 놀란 모양이었다. 그 중 한 사람, 윌리엄하고 악수를 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도 주위 사람들이 불러들였다. 모든 사람은 악수를 함으로써 윌리엄이 부서지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 같았다. 물론 그러한 걱정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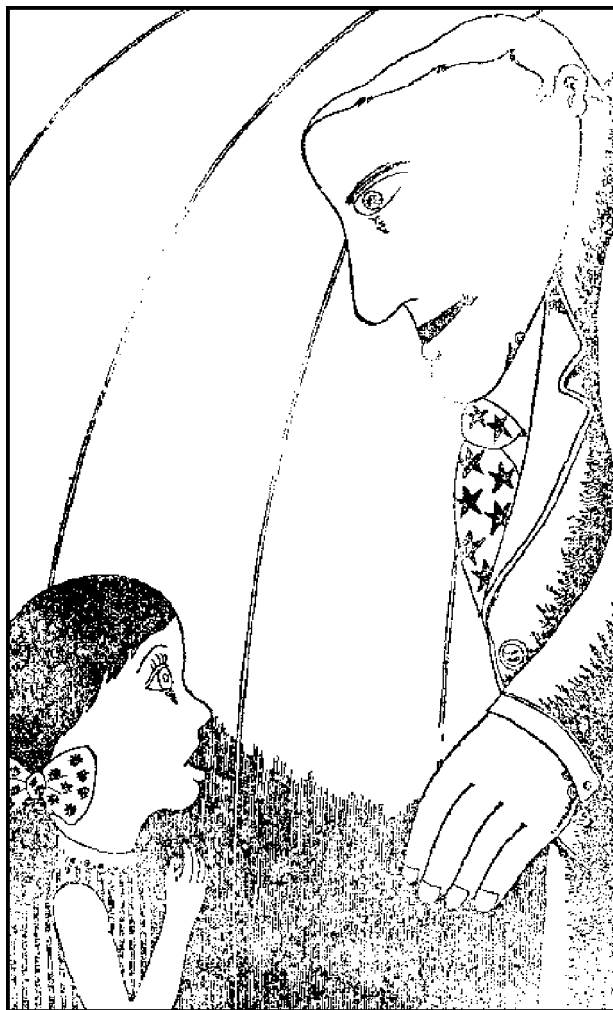
로써 윌리엄에 대한 자기네들의 찬탄하는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윌리엄을 사람들의 장난으로부터 지켜줄 필요는 없었다. 가령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는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테니까. 23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윌리엄은 텔레비전 촬영 때문에 라이트와 카메라맨들의 난폭한 지시로 무척 애를 먹고 있었는데 돌연 한 카메라 앞으로 가서 그것을 옆으로 돌려놓아 버렸다. 그리고 윌리엄을 보고 '아가'라고 부르는 제일 건방진 카메라맨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만일 당신이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초대부터 10명만 말할 수 있다면 그 땀 나보고 '아가'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윌리엄씨라고 불러주시오. 나는 지금까지의 대통령 이름을 전부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카메라맨이 부르기 시작했다.

"조지 워싱턴, 조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그러나 카메라맨은 여기서 막혀서 주위 사람들이 와아 하고 웃으니까 그만 얼굴이 시뻘게졌던 것이다. 하이드는 그때 일을 상기하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러한 얘기를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간지에 '윌리엄에 관한 이것저것'이라는 제목으로 파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줄여서 참을 수가 없다. 하이드는 그 일은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윌리엄 쪽으로 눈을 돌리며 아아? 하고 하품을 했다. 조그만 여자가 윌리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괘찮을 테지. 어린애에겐 어른이 붙어 있으니까.)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하이드는 살포시 잠이 들었다가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윌리엄은 아직 그 꽃다발을 가진 프랑스의 여자에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감기 걸렸어요, 윌리엄 아저씨? 그래서 이 꽃 냄새는 못 맡으시는가 봐, "

윌리엄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나는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아프지가 않습니다."

"않지 않는다고요. 어쩔 댜저!"

하고, 소녀는, 외쳤다.

"그럼, 얼마든지 그 사탕을 먹을 수 있겠네요. 사탕 좋아하세요?"

"나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소녀는 눈을 크게 떴다.

"아이, 가엾어라? 꽃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사탕도 먹지 못하다니! 그럼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이가 아픈 것도?"

"네, 그럼요."

"하지만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건 느낀 수 있죠?"

윌리엄은 눈을 들어 전시장의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거기에는 나무가 한 그루 태양에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초록빛 나뭇잎들이 기운차게 바람하고 희롱하는 것처럼 흔들

리고 있었다. 윌리엄은 그 나무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였다.

"내게는 심장이 없습니다."

소녀는 멍하니 일을 벌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넘쳐흘렀다. 소녀는 훌쩍훌쩍 울면서 핑그르르 뒤로 돌아서 엄마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전시 시간이 다 되어 폐관되었을 때 신문 기자인 빙클레가 명랑하게 휘파람을 불면서 전시장에 들어와 살며시 하이드 쪽을 살폈다. 하이드는 조그만 철상에서 윌리엄에 대한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 빙클레는 손짓을 해서 윌리엄을 새끼줄을 친 곳까지 오게 하였다.

"좋은 걸 가져왔네. 자 보게."

그는 조심스럽게 하이드 쪽을 보면서 윗도리 앞을 열고 그 속에 감춰 온 사진을 보여 줬다.

"이것이 나타샤라네. 그녀는 자네를 위해 특별히 멋을 부린 걸세. 그 옆에 있는 영감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때, 쓸 만하지?"

"나타샤도 로봇입니까?"

하고, 윌리엄은 물었다.

"내게는 인간처럼 보입니다만, 옷이 틀리는 것 같군요."

빙클레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다.

"자네도 그걸 알 수 있나? 나타샤는 러시아의 민속 복장을 하고 있는 걸세. 러시아인이란 항상 자기네는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족속이거든. 영어 대신에 러시아어를 쓰는 것도 그 때문이라네."

"나는 러시아어도 할 줄 압니다."

"뭐라고, 어디서 배웠나?"

"내 머리 속에는 외국어 번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러시아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몰랐습니까?"

"응,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나타샤는 영어를 할 줄 알거든. 자네들은 둘이서 실컷 얘기를 할 수 있겠군. 그런데 참 멋진 여성이네. 난 참 좋아. 그녀가 진짜 인간이었다면 훌쩍 반할 뻔했지."

"반한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잠깐만, 이제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 일에 소중한 머릴 쓰지 않아도 되네."

빙클레는 손을 저어 말리고,

"반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두 젊은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어, 아니 아니지. 그렇지…… 젊은 남자가 여자하고 알게 되어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녀를 멋진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녀 쪽에서도 그 남자를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그런 자기들의 얘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지."

"그리고 그녀가 잠자코 두 시간이나 듣고 있으면 그게 반하기 시작한 증거일세. 그 다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얘기를 한다. 비가와도 오는 줄도 모른다면 서로가 반한 증거란 말일세."

"미안합니다. 빙클레 씨. 이야기의 방해를 해서. 더 듣고

싶지만 곧 마감 시간이어서…… 여기는 밤에 야경꾼이 있습니까?"

빙클레는 곧 그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며시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교활하게 빙긋 웃으며 말했다.

"자넨 나타샤하고 얘기가 하고 싶은 게지. 내가 도와 주겠네. 그 대신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우리 시카고 뉴스를 위해서 나하고 특별 회견을 가져 주길 바라네. 나하고만 말일세."

"그리고 나타샤하고 얘기한 것을 전부 내게 얘기했으면 하네. 괜찮겠지."

"괜찮습니다."

"틀림없이 이 기사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걸세. 제목은 '윌리엄과 나타샤 약혼을 발표함'일세. 그런데 야경꾼 말인데 나도 모르겠는걸."

빙클레는 하이드에게 이야기했다.

"저는 시카고 뉴스 지의 빙클레 기잡니다. 당신하고의 회견기를 발표했는데 보셨습니까? 당신의 사진이 들어간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두서너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한 애국자의 입장으로서는, 윌리엄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한 자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이드는 멍청히 빙클레를 보고 있었지만, 빙클레는 라는 것을 알자 다가왔다.

"여어 빙클레 군, 다시 만나서 반갑소. 말소린 아까부터

들었지만 일기를 쓴다고 그만... 무엇을 알고 싶나? 뭐라고?
아아 그런가. 그 때,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이 전시장은 만
들어졌다네. 출입구에는 경보기가 달려 있어서 3킬로 사방
에 들리도록 되어 있네. 그것뿐인가. 지붕에서는 빨간 광선
이 사방으로 빛난단 말일세."

"그렇담 걱정 없군요. 하지만 창문은 어떨까요."

하이드는 빙클레가 창이라고 말한 커다란 유리벽을 보며
서 아주 쉽게 설명했다.

"이건 특수한 방탄 유리로 되어 있으며 때려부수려면 망
치로나 때려야지 까딱도 않는다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엔
간단히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네. 그 우측의 단추만 누르
면 전부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세."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독자들도 안심하겠죠."

라고 하고 나서도 빙클레는 아직 불편을 움직이고 있었
다.

"소련 측도 윌리엄과 같이 나타샤를 보호하고 있겠죠. 무
슨 말이고 들으신 것 없습니까? 하이드 씨."

"소련 측에선 도어에도 셀렌 광전지를 설치해 놓았다는
얘기더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광선이 나와 있어 침입자가
그곳을 지나면 비상벨이 울리게 되어 있단 말일께. 하지만
창문은 보통 판유리로 되어 있고 간단한 빗장이 붙어 있을
뿐이라던가."

하이드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불쑥 웃어버렸다.

"설마 나타샤를 유괴하려는 건 아니겠지, 빙클레군."

빙클레는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별 말씀을, 제가 유괴자 자격이 됩니까?"

"자, 그럼 이젠 윌리엄을 쉬도록 해야지. 하루 종일 구경꾼의 상대를 했으니까."

하이드가 말하면서,

"윌리엄 군! 이쪽의 내 책상 앞에 와서 편안히 좀 쉬게 나."

"나는 아직 전류를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암전히 말을 듣게."

하이드는 기분이 언짢아서 말했다.

"나는 10시간이나 자네의 시중을 들고 있던 말일세. 피로하고 배도 고파 죽을 지경이네. 난 로봇하곤 틀린단 말야."

"싫습니다. 난 여기에 있겠어요. 나도 벌써 10시간이나 일을 했으니 당신과 같이 자유롭게 될 권리가 있지요. 거기다 나는 그저 일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진급을 받고 있지만."

빙클레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지만 하이드는 더욱 기분이 나빠져서,

"그런 쓸데없는 소린 듣고 싶지도 않네. 말을 듣지 않겠다면 억지로라도 듣게 만들 테니까."

"내 승낙 없이 전류를 끄면 나중에 후회할 거요. 하이드 씨."

하이드는 코웃음을 쳤다.

"자네 같은 로봇이 무엇을 한다고? 바보 같은 짓은 그만

두고 암전히 이리로 오게."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내일은 파업을 일으켜 한 마디 말도 않을 테니까요. 아무리 당신이라도 억지로 내게 말을 시킬 수는 없을 걸요."

하이드는 놀라서 빙클레를 보았다. 빙클레도 놀라고 있었다.

"잘 들었겠지. 윌리엄은 파업을 한다고 나를 협박하고 있던 말일세. 그가 내게 반항하는 건 이걸로 두 번일세. 한 번은 러시아인 기자가 선동해서 말이네. 나는 우리들과 소련 사람하고는 자유에 대한 생각이 틀린다고 한 시간이고 설명했다네. 이번은 동독 스파이가 부채질한 것이 틀림없을 걸세."

하이드는 다시 한번 윌리엄을 향해 말했다.

"그건 자네 생각이 아니겠지. 누군가가 자네에게 가르쳐줬을 테지."

"네, 그렇습니다."

라고 윌리엄은 대답했다.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당신은 가르쳐주었습니다."

하이드는 그만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으며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뺨을 문질렀다.

"내가 분명히 그랬지. 그러나 그것은 자네에게는 해당되지 않네. 자네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적어도 법률상은 말일

세."

빙클레는 점점 흥미진진해졌다.

"로봇에게 파업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 온 미국이 들끓을 거요. 하이드 씨! 50불을 걸어도 좋소. 전 미국의 법률가들의 논쟁으로 번져 최고 재판소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 의회로 옮겨져서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대통령마저 끌어들이고"

"그만 두게."

하이드 씨가 화가 나서 고함쳤다.

"자네는 날 곤란케 하네.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 일일세. 나는 여기 책임자니까.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가르쳐 주게나."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죠."

빙클레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하룻밤만 윌리엄을 자유롭게 해 주시죠."

"바보 같은 소리! 경비원도 없이 혼자 내버려 둘 수 있다고 생각하냐? 윌리엄은 선악의 구별도 하지 못하는 어린애라네. 그 모양으로는 한 사람 몫의 어른으로서 시민권을 요구할 순 없지."

하이드는 기고만장해서 빙클레를 쳐다보았다.

"이제 센세이션의 꿈도 비누 거품처럼 꺼져 버린 게 아닌가?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알다시피, 하이드가 로봇에게 파업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문제로 미국 전체의 법률가들이 골치를 앓을 걸 구출해 냈다고 보도하는 것이네.

자아, 윌리엄 군. 내 말을 듣고 빙클레 씨에게 '안녕'하는 인사나 하게."

나가사키에서 온 노인

그 늙은 일본 사람은 몇 사람들에게 밀려서 나타샤의 앞까지 오자 아주 정중하게 세 번 절을 하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영어로 쓴 편지를 펴들자 안경을 고쳐 쓰고는 쉼묵소리로 떠들떠들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온 하마이 쇼고라는 상인입니다. 이젠 젊었을 때처럼 영어를 말 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너무나 큰 괴로움 때문에 건망증이 생겨서 이렇게 편지를 읽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1945년에 나의 외아들 신조하고 착한 며느리 시즈코는 원자폭탄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손자인 켄지를 보살피어 왔습니다. 켄지는 지금 스무 살이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를 우수한 학생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그도 방사선 연구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켄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러시아도 새 원폭의 제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대량 살인 병기의 실험으로 지구의 대기는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켄지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일까요? 나는 그것을 물어 보고 싶어서 멀리 일본에서 왔습니



다. 켄지는 말하기를 '이번에는 수소폭탄이 사용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수소폭탄은 1개로 도시 하나를 날려보내며, 20개로 한 대륙의 전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지만 손자인 켄지만큼은 그애의 양친처럼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꼴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머리는 전자 두뇌라서 틀린 대답은 하지 않는다고 듣고 왔습니다."

노인은 여기서 잠깐 머리를 들었으나 나타샤가 잠자코 꼼짝도 않고 우리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옆에 있는 젊은 인도인에게 말했다.

"나는 긴 여행을 하고 왔지만 그것도 어쩐지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손자의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겠지요."

노인이 그 자리를 떠나려 하자 나타샤는 쇠창살 앞으로 와서 말했다.

"잠깐만, 하마이 씨, 당신이 읽은 글월은 잘 알겠습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 전자 두뇌가 너무 긴장해서 고장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눈을 지켜 봐 주십시오. 만약에 내 눈빛이 꺼지면 나는 고장이 나서 전류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니까 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책임자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미국관으로 가서 윌리엄씨에게 물어 보세요. 틀림없이 윌리엄씨가 대답해 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마이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나는 대답을 듣는 걸 단념하겠습니다. 당신을 고장나게 할 순 없으니까요."

"조용히."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나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훌륭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요."

노인은 순순히 손을 내리고 근심스럽게 나타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1 분이 지났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수런수런 움직이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 옆의 젊은 인도인은 심심해서 자기 손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마이 쇼고는 주위의 이런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나타샤의 빛나는 눈빛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의 그 굉장한 섬광과 거기 따라서 나가사키 상공을 뒤덮은 불기둥을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노인과 손자인 켄지는 수 킬로 떨어진 친척의 농가에 있어서 그 무서운 불과 죽음의 광선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농가는 폭풍으로 마치 거인의 손에 잡힌 것처럼 마구 흔들렸다. 만일 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참상은 그때의 몇 만 배나 될 것이다. 나타샤의 전자 두뇌는 그러한 참사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대답을 했을 것이다. 노인은 손을 떨면서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였다. 그는 손자

에 대한 죽음의 선고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타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마이 씨, 나의 전자 두뇌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세상이 몇 백만 년 동안 진화를 계속하고 나서 그 인간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치에 맞지가 않지요. 나는 수소폭탄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는 그리고 세계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 같은 참사(아주 참혹하게 죽음)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지요."

노인은 처음에는 잠자코 서 있었으나 이윽고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손자 녀석은…… 살 수 있는 것이다. 불에 타 죽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신조, 시즈코, 너희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그시 나타샤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이를 먹어서 모든 것이 둔해져 당신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수소폭탄이 인류를 파멸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까?"

"당신은 원자폭탄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고 계시죠?"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까? 시민이나 병사, 장군, 정

치가, 대통령까지도?"

"네,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요. 손자인 켄지는 자주 미국 신문의 그런 기사를 읽어 왔습니다."

"그럼 소련 사람들은 어떨까요?"

노인은 대답하기에 앞서 절을 하였다.

"만약에 당신 나라 사람들이 귀머거리나 장님이 아니라면 알고 있을 테지요. 용서하십시오. 마음 속에 생각한 그대로 말을 해서요."

"당신은 아무것도 실례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미국이나 러시아의 장군이나 정치가 가운데 자기 나라에 수소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런 걸 원하는 자는 미친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아셨겠지요?"

라고, 나타샤는 말했다.

"이 밖에 해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영리해진다고들 합니다만……"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나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처음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

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미국, 소련, 두 나라의 책임자들은 서로 원자폭탄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가를. 그 협박을 실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나타사는 인간의 심장의 고동이 10번쯤 팔딱거릴 동안 허공을 바라보다간 이렇게 말하였다.

"나처럼 합리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자에겐 그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겠지요."

금세기 최대의 연애극

언제나와 같이 아침 7시 30분에. 1초도 틀림없이 하이드는 전시장 입구에 자물쇠를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언제나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청소부가 깨끗이 청소한 모양이어서 아무데도 먼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윌리엄의 옷은 솔로 털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놓았지만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서 하이드는 그것을 곧바로 고쳐 놓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일기책을 꺼내어 윌리엄의 상태를 기록하고 밖으로 나갔다. 경비원들은 아직 와 있지 않았다. 건물 안의 세 사람과 밖의 새 사람을 합해서 6명의 경비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조금 늦었군' 하고 생각하면서 손목 시계를 보니 역시 정각에서 30초 가량 지나 있었다. 이윽고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왔다. 경비원 우두머리는 오늘이라는 사나이였다.

"안녕하셨습니다, 관장님."

오늘은 늦게 출근한 것이 미안했던지 좀 멋쩍은 듯 인사하였다.

"아, 잘 있었나. 오닐 군, 오늘도 잘 부탁하네."

그리고 하이드는 전시장에 돌아오자 윌리엄의 스위치를 넣었다. 윌리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잘 있었나, 윌리엄 군, 어젯밤은 잘 잤나?"

하고, 하이드가 물었다.

"어째서 대답을 않나? 윌리엄군! 어떻게 되었나? 자, 일어서게."

그러나 윌리엄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하이드는 오늘을 불렀다.

"윌리엄이 이상해. 스위치를 넣어도 반응이 없단 말일세. 곧 중앙 사무소에 연락해 주게. 아니,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자네는 부하를 출입구에 모아놓고 구경꾼들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윌리엄씨는 에티오피아의 황후하고 특별한 회견 중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네."

하고 오늘이 달려가려고 하자, 그 때 윌리엄이 불러 세웠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닐 씨. 구경꾼들에게는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윌리엄 씨는 파업을 하고 있다고 말이요. 하이드 씨가 나의 자유를 인정해 줄 때까지 나는 이야기도, 움직이지도 않겠다고 전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그

럼 어서 나가 보세요. 내가 한 말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은 놀라서 뒤돌아보았으나 윌리엄이 손짓으로 빨리 가라는 재촉을 하자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 윌리엄, 빨리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지. 어때 들리지 않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울 테다."

하이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엄하게 말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아무 말도 않고 곧바로 앞을 향한 채 꼳꼳이 앉아 있었다. 하이드는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지만 될 수 있는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아, 잘 생각해 보게 윌리엄군.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지 말게. 나는 자네를 만들어 준 사람의 한 사람이란 말 일세. 내 덕에 자네는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 않나. 자, 윌리엄군, 일어나서 여느 때와 같이 자네 일을 해 주게."

윌리엄은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고 석상처럼 앉은 채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윌리엄군! 자네는 분별 있고 똑똑한 인간…… 아니 로봇 이네. 자네의 행동이 틀렸다고 자네의 전자 두뇌는 말하고 있을 걸세. 나는 자네에 대해서 책임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네를 내돌릴 수가 없단 말일세. 자넨 여기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한 발짝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금방 군중에게 휩싸여서 망가져 버린다네. 나는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세. 만약에 언제나 처럼 같이 일해 주면 오늘 시간이 끝난 뒤에 전시장 안을 한 시간 동안 산책시켜 줘도 무

방하네."

윌리엄은 꺾꺾한 자세를 흘트리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나타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릴! 그 따위 일을 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 나? 거기다 나타샤는 소련관의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단 말 야. 그들이 자네의 방문을 잠자코 허락하리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이드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이드 씨. 구경꾼은 누구 나 다 나타샤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합니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소련 측에 가서 내가 가도 좋은 지 어떤지 물어봐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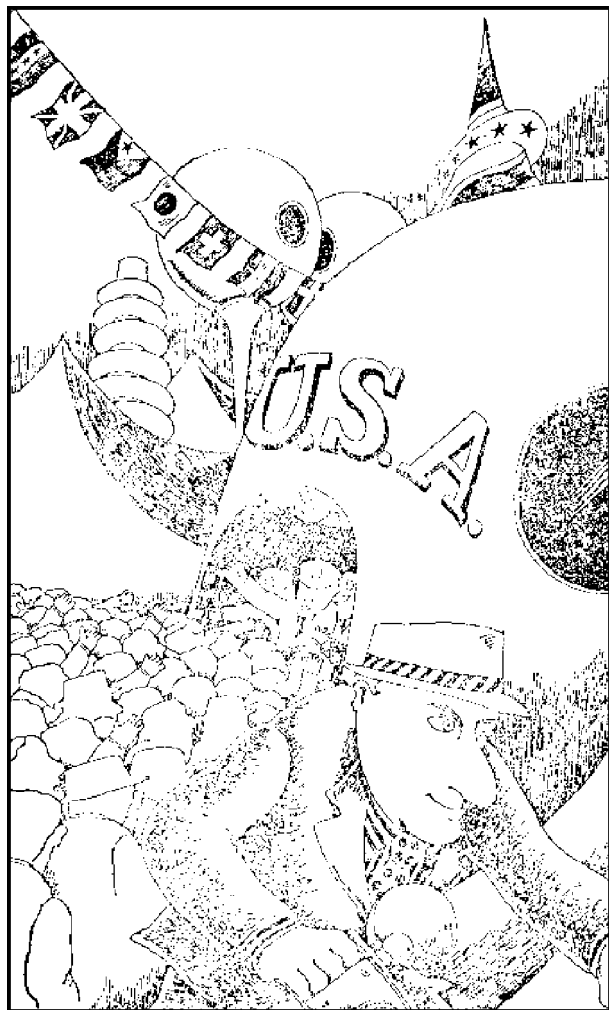
하이드는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너 같은 배은망덕하는 로봇도 없을 것이다. 윌리엄, 이게 마지막 충고다. 자아,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손님을 맞이하게."

"싫습니다."

윌리엄은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하이드는 윌리엄의 머리를 때려 줄 망치라도 찾는 모양으로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다시 한번 마음을 진정시키고 온건하게 말했다.

"할 수 없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나로서는 자네의 파업을 본부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네. 필경 그들은 워싱턴으로 연락하겠지, 어쨌든 간에 자네의 스위치는 꺼야 하겠네. 윌



리엄, 전시장은 잠시 동안 문을 닫는 거네."

만국 박람회의 회장 내 특설 우체국에 보도 관계자가 밀물처럼 밀려든 것은 오닐 감독 때문이었다. 오닐은 윌리엄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로봇은 오늘 아침 일직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체국은 소비에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그 밖의 여러 나라 기자들에 의해 점령된 것이다. 누구나가 모두 다른 회사보다 빨리 자기 회사에 알려려고 했기 때문에 대혼란을 일으켰다. 모자가 날고 소매가 찢어지고 여기저기서 마구잡이가 시작되었다. 미국 기사는 윌리엄을 선동해서 파업을 시킨 것은 소련 기자라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러시아인을 선동자, 국제적 파괴자, 무정부주의자, 평화 교란자라고 욕해댔다. 여기 대해서 소련 측은 미국인을 전쟁상인, 제국주의자, 가짜 평화주의자, 자본주의자, 노예, 고용주라고 대들었다. 시카고 뉴스의 벙클레 기자가 간신히 빈 전화부스에 뛰어들었을 때는 손목 시계의 유리가 깨지고 얻어맞은 콧등이 좀 부어 있었다. 그러나 간신히 본사의 편집장하고 전화가 이어졌을 때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명의 캐나다인 기자와 한 명의 스위스인 기자와 네 명의 이탈리아인 기자하곤의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그 소란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거기서 전화를 끊고, 인파를 비집고 회장 밖으로 나와, 택시를 집어타고 중앙 우체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쳤다.

『세기의 대 사건. 오늘 아침 윌리엄은 자유를 속박 당했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나뿐이다. 나는 윌리엄에게 소련의 로봇 나타샤의 사진을 보여 주었다. 윌리엄은 나타샤에게 훌쩍 반해서 그녀를 만나려 했다. 하이드 국장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윌리엄은 파업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오늘 나타샤에게 윌리엄의 파업을 알릴 것이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냄. 송금 바람』

시카고 뉴스의 편집장이 이 전보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두 시간 뒤였다. 그는 곧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여서 백만부의 호외를 발행하도록 명령했다.

『윌리엄과 나타샤의 일대 연애극. 윌리엄 파업에 돌입하다. 나타샤에게 자살의 우려 있음』

그 동안에 빙클레 기자는 박람회 회장으로 되돌아왔다. 미국관의 주위는 인산 인해를 이뤘지만 소련관은 평상시와 같이 경비원이 있을 뿐이어서 별일 없이 안으로 들어 갈 수가 있었다. 나타샤는 우리 속에 서서 기대에 찬 눈을 출입구에 보내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아가씨. 또 왔어요. 그렇지, 윌리엄 얘기는 들었겠죠."

빙클레는 주위에 아랑곳없이 떠들어댔다. 나타샤는 홀 구

석에서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는 사나이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목소리가 너무 커요, Bing클레 씨. 당신을 아주 싫어하는 샤체이에프 관장이 소련 대사관 사람들과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게는 거의 다 들립니다. 내 귀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빙클레는 흥분해서 말을 더듬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나타샤. 가르쳐 줄 수 없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 할 테니까."

나타샤는 쇠창살 옆까지 와서 말했다.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Bing클레 씨. 그래서 아무 얘기가 다 얘기할게요. 샤체이에프 관장은 윌리엄의 파업을 소련의 선전에 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조차도 자기의 노예화에 항의하고 있으니 미국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심한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릴 해도 분수가 있지."

하고, Bing클레는 말하고 나서 쇠창살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다.

"왜 윌리엄이 파업을 했는지 알고 있어? 당신 때문이야, 예쁜 아가씨, 참말이고 말고, 나는 윌리엄하고 비밀 회담을 했지. 그는 당신 사진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당신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있던 말이야. 그런데 책임자인 하이드가 허락을 앓거든. 그래서 윌리엄이 날보고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고 부탁했다네. 그렇지만 방해물이 너무 많아. 둘이 모

두 감금당하고 있는데다 매일 밤 스위치를 끄거든."

"윌리엄씨의 파업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나타샤가 물었다.

"당신도 성공했으면 하고 생각하지."

빙클레는 히죽히죽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심정은 잘 알겠소. 그는 잘 생겼겠다. 그리고, 씹씹한데다 미국 측으로선 결국 그의 요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지. 그렇지만 소련 측은 당신네들이 만나는 걸 어디까지나 반대하겠지."

"어쨌서 미국 사람은 그의 요구를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빙클레 씨?"

"그것은 말이네. 우선 첫째로 윌리엄은 미국관 최대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억지로 그만 두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를 분해해서 다른 자동 장치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고마와요, 빙클레 씨. 저도 윌리엄씨를 응원해서 파업을 하겠어요. 윌리엄 씨 하고 얘기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자, 이제 돌아가 주세요. 지금부터 샤체이에프 씨에게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하겠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저를 선동했다고 의심받을 거예요."

빙클레는 깜짝 놀라서 잠시 동안 말도 못하고 나타샤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기쁜 듯이 속삭였다.

"나타샤, 이건 금세기 최고의 특종 감이다. 덕분에 나는 시카고 명예 시민에 뽑히고 뉴욕 시민들은 나를 위해 개선

행렬을 해 줄 것이며, 대통령은 나를 끌어안아 줄 것이다.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정치적 대전환이 일어날 테니까 말이지. '나타샤, 윌리엄하고 단결을 선언함'이라! 소련과 미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손을 잡을지도 모르겠군. 안녕! 귀여운 아가씨, 나는……"

빙클레는 달려나가다가 갑자기 되돌아와서 말했다.

"잘 싸워요, 아가씨, 지면 안 돼요. 승리는 당신 손안에 있으니까요. 자아, 그럼 안녕!"

국무성 다방에서

밤 11시에 모스크바에서 특별기가 도착했다. 거대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나타샤의 파업을 당장 중지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5명의 위원들이었다. 그들은 출장 나간 샤체이에프에게 안내되어 소련 대사관으로 갔다. 이바노비치 노보코프 위원장이 당장에 물었다.

"나타샤의 파업에 관해서는 이미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윌리엄의 파업에 대해서 묻겠소. 이것은 미국이 조작한 것인가, 아니면 윌리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샤체이에프는 5명의 위원을 향해서 대답했다.

"그것은 미국 측이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 대단히 속을 썩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지,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도 잘 모른다는
이야인가?"

라고, 위원의 한 사람이 물었다. 샤체이에프는 얼마간 망
설이면서 말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신문 기자가 윌리엄하고 얘기한 결
과……"

노보코프 위원장은 웃으면서 손을 들고,

"알았네, 동지. 틀림없이 그 기자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윌리엄에게 이야기했을 걸세. 그래
서 그는 감격한 거야. 소비에트야말로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말이네. 윌리엄의 파업은 그가 자유와 평화를 바라고 있다
는 증거일세. 그를 우리네 전시장으로 초대하기로 하지. 그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일세. 당장에 이 일을 미국 측에 알
려 주기로 하세."

"실례입니다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
시지나 않으신지요? 나타샤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샤체이에프는 조심조심 말했다. 노보코프는 기침을 하고,
네 명의 위원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음, 그렇군! 분명히 나타샤도 파업을 하고 있지. 이것은
중대한 문제군. 소비에트에서는 파업은 범죄니까. 그런데 그
녀는 어째서 파업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윌리엄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
다."

샤체이에프는 대답했다.

"그렇지, 그것은 확실히 당신의 실수였네. 그러나 동시에 칭송 받을 일이기도 하네. 그 덕에 우리들은 소비에트 시민은 파업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억압된 국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좋게 됐으니까 말일세. 나타샤가 한 일은 틀린 일이 아닐세. 그녀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윌리엄을 도와주려고 했네. 그녀는 영웅이야. 본국에 돌아가면 훈장을 받을 것일세."

워싱턴에 있는 국무성에서는 세 사람의 정치 전문가가 모여 앉아 벌써 4시간이나 비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 세 사람, 스미이드, 스테에빈, 익트니이가 '윌리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선 다음 문제를 해명하려고 했다.

(윌리엄은 소련 측 스파이에게 사주 받아 나타샤와의 회견을 요구하였던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소련 측의 의도는 무엇인가. 나타샤는 윌리엄을 소련 측의 동조자로 하려 하는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여도, 미국 측의 윌리엄이 소련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것을 허락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 측은 윌리엄이 소련 측을 돕는 것을 두려워서 본국으로 송환해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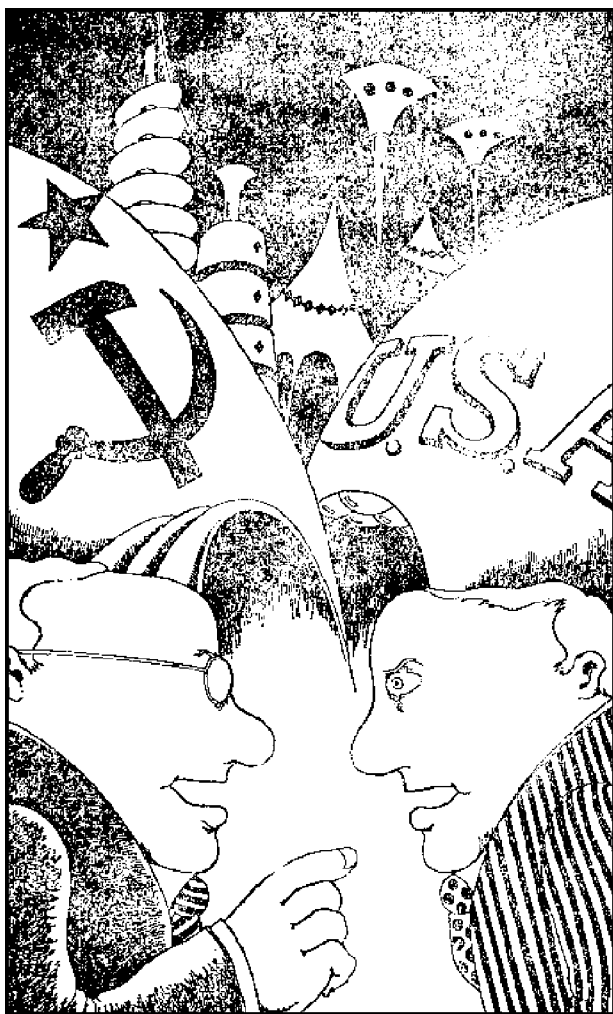
세 사람은 마침내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생각했다. 소련 측은 나타샤의 적수인 윌리엄을 박람회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타샤는 만국 박람회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좀더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동

안에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소련이 윌리엄에 저항해서 나타샤를 만든 것은, 소련 사람은 여성이라도 미국인 남성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과시하려고 한 것인데, 만일 윌리엄이 박람회장에서 모습을 감춰 버린다면 나타샤는 비교할 것을 잃어버려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은 또한 어째서 소련 측이 윌리엄에게 나타샤를 방문해도 좋다고 해 온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한 시간이나 이야기해 보았으나 해답을 얻지 못한 채로 그들은 국무성 안쪽 다방으로 가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다. 그것을 운반해 온 것은 팻시이라는 젊은 여자였으나 그녀의 머리카락도 나타샤와 같은 황금빛 금발이었다. 잡지에서 몇 번이나 나타샤의 사진을 보았던 스미이드는 그녀가 나타샤하고 꼭 닮아서 말을 붙였다.

"아, 팻시이.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윌리엄하고 나타샤의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건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머! 모든 신문이 그 기사로 꽉 차 있는 걸요. 국무성에 서는 뭐 나라의 비밀이다 뭐다 하고 야단이지만 문제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걸 못 만나게 하니까 파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로봇이니까 야단칠 수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죠. 소련 측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만나도 좋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째서 이쪽도 그렇게 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바로 국민의 소리라네."



팻시이가 가 버리자 스미이드는 생각에 잠기면서,

"그렇다. 윌리엄을 깨끗이 나타샤하고 만나게 해서 소련 측을 깜짝 놀라게 하자.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두 로봇의 파업이 무사히 해결됐다는 뉴스는 만국 박람회 의 구경꾼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윌리엄과 나타샤를 어디서 만나게 하는가에 관해서는 양국 의견이 서로 달랐다. 소련 측이 소련관에 윌리엄을 초대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관으로 나타샤를 초대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이러쿵저러쿵 실컷 실랑이를 벌인 끝에 양쪽 전시장의 중간 지점에 반경 10미터의 로봇만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만나도록 하게 되었다. 어느 나라 국가를 먼저 연주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바탕 왈가왈부 의논이 분분했으나 결국 동시에 연주하기로 되어서 이것으로써 간신히 나타샤와 윌리엄의 회견의 일정표가 결정되었다. 우선 양국의 내빈이 내빈석에 자리잡은 후 각기 한 명의 양국 대표가 딱 3분간씩의 인사를 한다. 그리고,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두 로봇이 하얀 선으로 둘러친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순서였다. 소련 측은 무슨 이야기를 시킬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려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측은 '당신은 자기의 자동 장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라든가, '당신 눈의 렌즈의 초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라든가, 로봇에 관심이 있는 주제로 했으면 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행위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한 대화를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작 상의 비밀

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소련 측 대표는 반대했다.

"그러면 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날씨 애기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윌리엄은 완전한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하신다면 윌리엄에게는 나타샤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도록 명령할 것을 약속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쪽도 똑같은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국 측 대표가 말하였다. 소련 측은 잠시 동안 망설이고 있다가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모여든 구경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신문 기자, 카메라맨, 텔레비전 관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단이었다. 그 중에는 이웃 전시장 지붕 위에 올라간 자도 있었으며 헬리콥터를 빌어 현장 위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측도 있었다. 두 로봇의 회견 장소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두 개의 좁은 통로는 경찰대에 의해 엄중히 경계되고 있었다. 양국 대표가 인사를 하였지만 낮게 떠 비행하는 헬리콥터 소리에 이야기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다만 입을 뻐끔뻐끔하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양쪽의 브라스밴드가 굉장한 소리로 제 나라의 국가를 연주하였다. 곧이어 잇달아 '와앗! '하는 함성이 터져 올랐다. 왼쪽에서 나타샤가, 오른쪽에서 윌리엄이 들어온 것이다.

나타샤는 황금빛 블론드의 단발머리를 꽃무늬의 머플러로 싸고 있었다. 자수를 놓은 흰 블라우스에 주름이 가득 잡힌



스커트, 거기다 빨간 장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러시아 민족 의상을 걸친 진짜 산 사람인 아름다운 시골 처녀로 보였다. 나타샤는 춤을 추러 가는 명랑한 젊은 아가씨처럼 걸음도 가볍게 출입 금지 구역까지 오자, 반대쪽에서 다가온 윌리엄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었다. 태산 같은 군중 속에서 또다시 커다란 함성이 터져 올랐다. 나타샤의 오른쪽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져 있었다. 연단에 있던 미국인들은 감격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중에는 일어나서 소련 사람에게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상대방은 그 말을 알 수 없었지만 친근한 몸짓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윌리엄은 양팔을 뻗어 그녀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 사람의 우정의 표시인 양 높이 흔들었다. 그것을 본 미국 사람과 소련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각기 자기 나라의 우호와 평화를 노래하였다. 헬리콥터의 움직임은 더욱더 심해지고 카메라맨은 일제히 셔터를 누르고 플래시를 터트렸다. 군중은 목이 터져라고 환성을 올렸다. 그 덕분에 출입 금지 구역 안의 한가운데서 나타샤와 윌리엄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나타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봇입니다. 사진에서보다 훨씬 아름답군요."

윌리엄은 러시아어로 말했다.

"만약에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주 기쁘게 느꼈겠죠. 애석하지만 당신이나 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진정으로 반갑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끄러워서 내 귀는 쪼개질 것 같습니다. 저의 전시장은 참 조용하답니다. 그 곳으로 가실 수 없을까요?"

나타사는 정중하게 영어로 말했다. 윌리엄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가고말고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선 단 둘뿐인 생각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자, 내 손을 잡고 여기서 도망칩시다. 나는 이제는 그 전시장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타사는 망설였다.

"저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겠지요. 우리들은 나라의 재산 아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예가 아니요. 거기다 여기는 중립국입니다. 우리는 여기 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소련이나 미국은 세계의 큰 나라입니다. 여기 당국은 그들이 무서워서 우리들의 보호를 승낙하지 않겠지요. 우리는 여기 있는 편이 좋을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뚫을 수 없는 두터운 법률의 장벽을 쌓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의 눈빛의 광채가 떨어졌다.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수인입니다. 만일에 내가 인간이라면 이럴 때 '무척 슬프다'라고 합니다."

"아뇨. 저는 인간이라면 '대단히 행복합니다.'라고 할 거

예요. 어째서냐 하면 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신걸요. 윌리엄 씨!"

"나도 이제부터는 혼자 있어도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겠지요. 내일 아침 하이드 씨에게 다시 또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 때, 샤체에이프와 하이드가 다가왔다.

"윌리엄 군, 나타샤 양에게 안녕인사를 하게. 샤체에이프
씨는 이제 그녀를 소련관으로 데리고 가야 할 테니까. 그리
고 내빈들도 슬금슬금 돌아가기 시작했네."

하이드가 말했지만 윌리엄은 대답이 없었다. 분노가 끓어
오르는 듯한 눈으로 그는 나타샤의 손을 잡고 입을 여는 샤
체에이프를 쏘아보았다.

"자, 내 말을 듣게. 나타샤. 몇 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세. 그리고 윌리엄도 돌아가야 하니까. 자 그
만, 서로 충분히 얘기했을 테지."

"나타샤를 놓아주십시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도 나타샤
는 혼자서 갈 수 있습니다."

윌리엄은 샤체에이프를 향해서 외쳤다.

"안녕히 가세요. 윌리엄 씨. 저를 잊지 마세요."

하고 나타샤는 자기네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말하고는 샤체에이프에게 끌려서 사라져 갔다.

우리를 떼어버려라

다음날 7시 30분 뻬벨 사체이에프는 씩씩한 얼굴로 전시장 안을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 안에 서 있는 나타샤의 옆을 지날 때마다 그는 화낸 시선을 그녀에게 보냈다. 그는 마침내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지, 나타샤. 보고서는 절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단 말일세. 나는 자네가 윌리엄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단 말이야. 자네는 뭐라고 해도 결국은 소련인이란 말이네. 나타샤, 아무리 로봇이라고는 하지만 자리를 만든 건 소련의 과학자들이니까 자네는 조국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단 말이네. 윌리엄도 같지. 틀림없이 벌써 자네하고 말한 얘기를 모두 보고했을 걸세."

나타샤는 천천히 목을 돌려 어깨 너머로 사체이에프를 보았다.

"윌리엄씨가, 우리들이 한 이야기를 남에게 얘기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지. 얘기 안 할 필요도 없지."

나타샤는 곧바로 앞으로 돌아섰다.

"누가 그런 이야길 했습니까?"

사체이에프는 정직하게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이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어떤 일에 생각이 미쳐 그만 두었다. 그는 남의 흥을 보는 것은 마음에 걸린다는 시늉을 하며 말하였다.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자네는 친구인데다, 거기다 자네는 입이 무겁다는 것도 믿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네. 알겠나? 윌리엄은 자네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그 파업도 자네를 믿게 하기 위한 연극이며 사실은 자네에게서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던 걸세. 미국 측은 자기의 구조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야. 그걸 좀더 일찍 알았다면 자네에게 주의를 해줬을 것을…… 내게 보고서를 내도록 한 것은 그것 때문이네. 자 나를 도와 주는 셈치고 윌리엄하고 한 말을 얘기해 주게. 나타샤."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윌리엄씨는 내게서 정보를 알아내려는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그러더라도 나는 자신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테죠. 우리들이 한 이야기는 전연 딴 이야기였습니다."

나타샤는 말했다.

"호오, 그렇다면 그는 자네의 정치적인 의견을 물었겠구먼."

하며 샤체이에프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다.

"미국의 노동자는 소련의 노동자보다도 훨씬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지. 어때 나타샤? 대답이 없는 걸 보면 그렇군, 그래. 자, 자백하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얘기를 했단 말인가. 자네가 말하지

않겠다면 좋네. 윌리엄은 자네에게 소련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선전을 하도록 얘기했다던가 뭐라든가 적당히 보고해 줘야겠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샤체이에프는 초조한 듯 어깨를 움츠렸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지. 나는 보고서를 내도록 명령받았으니 뭐가 어떻든 간에 써야만 한단 말일세. 거기다 나는 자네의 보호자에다 책임자니까 조금쯤 거짓말을 썼다고 뭐 별로 윌리엄을 곤란하게는 안 할 테지."

"아아뇨, 안 됩니다. 윌리엄씨는 아무것도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일 뿐입니다."

"뭣이? 자네는 벌써 그의 편을 들게 되었구먼."

샤체이에프는 화가 치민다는 듯이 외쳤다.

"나타샤, 주의해 두지만 미국인은 대단히 뱃속이 검은 사람들이야. 그들은 윌리엄에게 굉장한 설득력을 주어서 '당신을 좋아한다'라든가, '둘이서 같이 있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등 그렇게 말하게 시켰구먼."

"어떻게 그걸 아셨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들렸습니까?"

나타샤의 이 물음에 샤체이에프는 이때다 라는 듯이 대답을 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윌리엄이 어째서 파업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샤를 속이려고 어떠한 수단을 썼는지도 잘 알 수 있지. 우선 첫째로 그는 자네

하고 친구가 되려고 했지. 이건 성공한 것 같군. 다음엔 그는 나타샤를 피어 어디론가 도망치자고 했겠지. 이번엔 안 됐지만 이 다음에는 기어이 또다시 꼬실 게 분명해."

"당신이 상상한 대로입니다. 윌리엄씨는 자기하고 함께 도망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그것 보게. 이제야 겨우 알게 된 모양이군, 나타샤. 만약에 나타샤가 그의 꼬임에 빠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미국 측의 대승리로 끝났을 걸세. 그들은 '나타샤는 소련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로봇조차도 서방측의 보호를 요구한다' 라고 했을 게 분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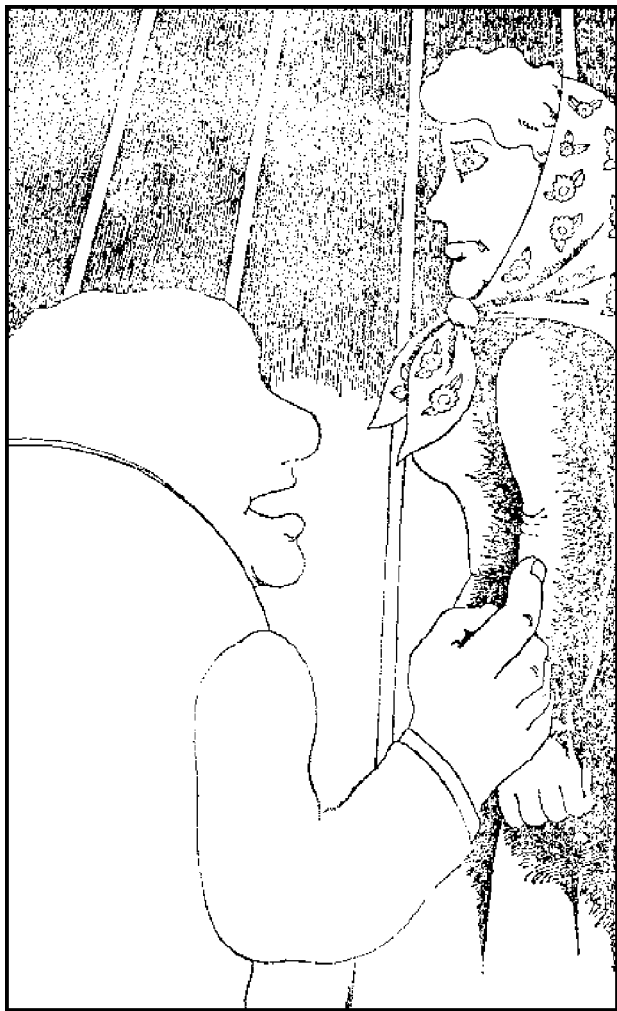
샤체이에프는 잠시 동안 말을 멈추고 나타샤에게 생각한 시간을 주고 나서 이윽고 아주 괴로운 듯이 말했다.

"나타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으로 괴롭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인데 미국인이란 아주 교활하고 냉정한 인간이란 말이네. 만약에 나타샤가 미국에 가면 그들은 나타샤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나서는 거리낌없이 버릴 걸세. 어린애가 한 가지 장난감에 물리면 돌아보지도 않는 것처럼 윌리엄도 나타샤 같은 건 잊어버리고 말 것이 분명하네."

샤체이에프는 빈틈없이 나타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말의 효과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

(과연 나타샤의 얼굴은 슬픔에 일그러져 있을 것인가. 아냐, 어찌면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인가.)

나타샤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없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있



어선 '사랑'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실망'이라든가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녀의 행동에는 어쩐지 이상한 데가 있었다. 너무 생각한 나머지 전자 두뇌에 이상을 초래했던 말인가. 샤체이에프는 더욱 걱정이 되어서 그녀의 눈을 내려다보았으나 그것은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상냥하게 그녀를 흔들고 불안스러운 듯이 말했다.

"자아, 대답을 하게, 나타샤.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말하는 장치가 고장났으면 내 손을 잡아 신호를 하게."

그녀는 양손을 척 늘어뜨린 채로 약하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제 이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이제 싫증이 납니다. 제발 내 스위치를 꺼 주십시오. 영원히…… 만약에 당신이 나의 친구였다면 저의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샤체이에프는 중얼거렸다.

"나타샤의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건 자네가 고장났을 때 뿐이라네. 만일에 어디든 나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손으로 가리키게."

"제가 만일 인간이라면 심장이 있는 곳을 가리킬 테죠. 하지만 저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마를 가리키겠어요. 그곳이 고장이 났습니다."

나타샤는 천천히 대답하였다.

"고장이 났다고? 그럴 리가 없어. 자네는 말도 하고 보고 들으며 생각도 하지 않나. 대관절 무엇이 고장났다는거지?"

샤체이에프는 물었다.

"살아가는 의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로봇인 나타샤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윌리엄이 말한 것도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스위치를 꺼 주십시오. 당신은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론 생각하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나타샤. 그렇지만 영원히 스위치를 끊어달라고는 하지 말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 가령, 나타샤가 고장났다고 내가 보고해도 조사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곧 알려지네. 자, 다시 한 번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지. 나타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게. 내가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네. 윌리엄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 때문에 자네의 사고 장치가 고장났는지 알 수 없군. 만약에 윌리엄이 나타샤하고 도망치자고 한 말은 딴 사람에게서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자네를 위로하는 것이 될까?"

"명령받은 게 아니라고요?"

나타샤는 곧바로 샤체이에프 쪽을 향했다.

"그럼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바른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샤체이에프는 괴로운 듯이 몸을 움찔거렸다.

"거짓이고 사실이고 어느 쪽이든 괜찮지 않나, 나타샤, 사실을 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나는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타샤의 도움이 필요했네. 그러나, 자네는 그것을 거절했어. 그래서 자네에게 사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상상한 것을 이야기한 걸세."

"당신은 감정을 가진 인간인데 저 같은 로봇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 연민이라는 감정은 다만 한 개의 낱말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나타샤는 계속했다.

"당신은 나의 친구라고 그러셨지만 그것이 친구가 할 일입니까? 당신은 보고서를 보내서 훌륭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훌륭한 과학자인데도 그들 앞에 나가면 전연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들라고 하면 그 원자폭탄에 의해 당신과 같은 많은 인간이 죽음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자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늙은 과학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양손을 부여잡고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며 말했다.

"그만, 제발 그만 해 다오. 나타샤. 벌써 8시니까 이제 구경꾼들이 들어올 때가 됐다. 만약에 자네가 하는 말이 외부 사람들 귀에 들어가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지면 서로 큰일이니까. 나는 다만 나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뿐일세. 그 임무라는 게 보고서를 쓰는 일이라네. 그렇지만 나는 앞으

로도 자네하고는 진정한 친구로 있고 싶으니 나타샤는 윌리엄과 그들을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라고 쓰기로 하지."

"또 거짓말을 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런 말을 쓴다면 저는 모든 구경꾼에게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윌리엄과 나타샤의 두 로봇은 서로 우정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저를 생각하고 있겠지요. 우리들 사이에는 이미 국경도 없을 뿐더러 동서의 추악한 싸움도 미움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몸 속에 우리들의 피인 전류가 흐르고 있는 한 우리들은 지금 인간이 상실해 가고 있는 우정으로 굳게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나타샤의 마지막 말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샤체이에프는 경이의 눈으로 나타샤를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아직 나타샤의 말이 쟁쟁 울리고 있었다.

(당신들 인간이 상실해 가고 있는 우정으로 뭉쳐져 있습니다.)라고.

샤체이에프는 깊은 사색에 잠기면서 밖으로 나갔다. 전시관의 입구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던 부하들에게 말했다.

"나타샤의 우리를 없애 버려라. 부셔서 여기서 들어내게.

나타샤는 이미 수인이 아니란 말일세."

뜻밖의 명령에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으나 곧 명령받은 대로 하였다.

모스크바에서의 긴급 전화

모든 신문이 이 일대 뉴스를 커다란 제목을 달아 제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나타샤 철창에서 해방되다! 소련, 로봇의 감옥을 부수 버리다? 국제적인 의의를 갖는 대 사건?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의 제 1보!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내다! 소비에트 대사관 주위는 대 군중에 둘러싸였다. 몇 천이나 되는 깃발을 흔들며 사람들은 저마다 외쳤다.

"감사하오! 소련. 나타샤를 여기에 내보내 다오. 평화의 천사를, 평화의 천사를 내보내 다오."

대사관 제 1실의 책상을 둘러싸고서 노보코프 대사, 두 명의 관원, 그리고 샤체이에프가 앉아 있었다. 노보코프 대사는 초조해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샤체이에프에게 말했다.

"자네는 자네의 분별 없는 행동이 어떠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고만. 모스크바의 크레몰린에서 서기장이 직접 전화를 한다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일세."

샤체이에프는 뚫어지게 대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타사하고 윌리엄이 평화의 천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따위 미친 소린 재판을 위해 준비해 두게나. 운이 좋으면 정신 병원 행으로 끝나겠지만…… 하여튼 자네에 관해서는 서기장이 전화로 결정지어 줄 걸세."

노보코프 대사는 이마의 땀을 씻고서 벽난로 위의 사발 시계와 자기 손목 시계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대사관원 쪽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벌써 1시간 35분이나 이렇게 크레물린에서 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나는 로봇의 우리를 떼어버린 우리의 행위를 미국 측이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을까 걱정일세. 그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서방측과의 사이에 쌓아올린 벽까지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났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하고 한 관원이 물었다.

노보코프 대사는 오른손을 쳐들었다가 다시 내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되면 첫째 미국의 군수 공장이 폐쇄되고 몇 백만이란 실업자가 생기네. 구매력이 떨어져 은행이 거덜나지. 실업 폭동,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탄생하네. 그러나……"

"멋지다!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까?"

또 다른 관원이 외쳤다.

"잠깐만, 아직 얘기는 끝나지 않았네. 우리의 조국 소비에트에서도 제일 먼저 군수 공장이 폐쇄되고 소비 물자의 생산으로 돌리게 되지. 그 결과 소비에트의 생활 수준은 급상승해서 현재의 자본주의 나라의 수준에 도달할 걸세."

"그리고 한편 서방측 자본주의 국가의 생활은 현재의 소련과 같이 되네. 이렇게 해서 형세는 전연 역전한단 말이네. 그렇게 되면 서방측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외칠 테지. '자본주의 소련을 타도하라! 그들은 배반자다! 그들은 사치한 생활에 빠져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재군비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대한 재군비 말이다."

노보코프 대사는 갑자기 샤체이에프의 코 앞에 주먹을 들이대며 소리 질렀다.

"이것도 모두 자네 때문이야. 자네는……"

전화벨이 울렸다. 노보코프는 수화기를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이쪽은 대사 알렉산더 이바노비치 노보코프입니다."

수화기를 손으로 가리고 모두에게 말했다.

"서기장이시네."

그리고 지긋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30초 동안에 5, 6회 씩이나 절을 하면서 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돌연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화에 달린 스피커의 스위치를 넣었다. 순간 서기장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보코프군, 대사관 주위에는 아직 군중이 모여 있나. 알

있네, 이 전화가 끝나는 대로 곧 발코니에 나가서 인사를 하게. 그리고 나타샤를 만든 그 과학자, 에에 또, 이름은....."

"삐벨 샤체이에프입니다."

"음, 그렇지. 샤체이에프군이었지. 생각났네. 아주 대단한 사나이야. 그런데 노보코프군, 우리는 그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레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네. 우리는 그가 나타샤의 우리를 제거함으로써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있었네. 우리는 지금 크레물린 궁전 앞의 붉은 광장에서 대평화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단네. 그런데, 얘기가 어디까지였지, 아, 그렇군. 발코니의 인사말인데 샤체이에프 군도 나가도록 하게. 나타샤가 함께라면 더욱 좋지....."

샤체이에프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노보코프에게 말했다.

"월리엄도 데리고 가도 좋은가 물어봐 주십시오."

노보코프는 샤체이에프에게까지 절을 하고 전화에 대고 물었다.

"말씀하시는 도중입니다만, 지금 샤체이에프 군으로부터 소원이 있습니다만....."

"뭐라고? 샤체이에프 군은 거기 있나. 왜 그걸 빨리 얘기하지 않았나. 나는 그와 얘기하고 싶단 말일세."

노보코프는 다시 한번 정중히 절을 하고 나서 전화기를 샤체이에프에게 건네었다.

"샤체이에프 군인가? 나는 자네를 끌어안고 양 볼에 키스를 하고 싶네."

스피커에서 두 번 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 중앙위원회를 대신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자네가 모스크바로 돌아오면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 때보다도 몇 배나 성대한 환영회를 해 주기로 되어 있네. 무엇이든 특별한 소망은 없나? 무엇이든 들어 주겠네."

"모처림의 말씀이니 한 가지만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타샤에게 언제든지 윌리엄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타샤에게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녀를 우리에서 내보내 준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타샤입니다."

"자네는 아주 사양심이 많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그리고 우리로서도 로봇을 영웅으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타샤를 만든 것은 소련의 과학자들이고 자네는 그 중심이었네. 환영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 두면 되네. 나는 지금 자네의 동상을 붉은 광장에 세우도록 명령하였네. 높이는 2미터이고 동상의 재료는 대리석일세. 나타샤하고 윌리엄에 대해선, 좋아 내가 허락하지. 단 우리 쪽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바라네. 나타샤는 윌리엄을 소비에트의 동조자로 끌어들이는 걸세."

"모처림의 말씀입니다만 윌리엄도 나타샤와 같이 날카로운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본심을 알게 되면 나타샤하고의 우정도 마지막입니다."

라고 샤체이에프는 말했다.

"그것은 자네의 개인적 의견에 지나지 않네. 윌리엄은 이

상도 아무것도 없는 자본주의 나라의 로봇일세. 나타샤가 돈 뭉치를 보이면 간단하게 따라올 걸세. 그렇게 생각지 않나? 잠자코 있는 것을 보니 자네는 반대 의견인 모양이군. 모든 것은 전문가인 자네에게 맡기네. 지금 이 시절에선 나도 나타샤와도 윌리엄의 우정에 대해서는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네. 그럼 이걸로 그치네. 모스크바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타샤에게도 안부 전하게."

샤체이에프가 안녕도 하기 전에 전화는 끊겼다. 순간 대사관원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외쳤다

"뻘레벨 샤체이에프, 만세! 자유와 평화와 진보의 선구자, 만세!"

멋진 생각

윌리엄의 관리인인 하이드 주임 기사는 미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암호 전보를 해독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전보는 워싱턴에 있는 국무성에서 하이드에게 보낸 것으로 약 30분전에 도착한 것이었다. 전보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했다.

긴급 회의의 결과, 국무장관은 하이드 씨가 윌리엄에게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할 것을 요청한다. 나타샤가 철창에서 해방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윌리엄은 생각하는가? 소비에트의 로봇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관심을 단번에 집중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윌

리엄은 생각하는가? 지금 암호 전보로 회답 바람.

전보의 해독을 맡은 대사관원 켈스리는 하이드에게 전보를 건네 주고, 그가 다 읽고 나자 말했다.

"윌리엄에게 물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드 씨. 나는 지금 전보를 해독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켈스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하이드는 껏전으로 흘러 버리고 있었다. 윌리엄이 나타샤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첫째 질문에 대답하게 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명안이죠, 하이드 씨?"

켈스리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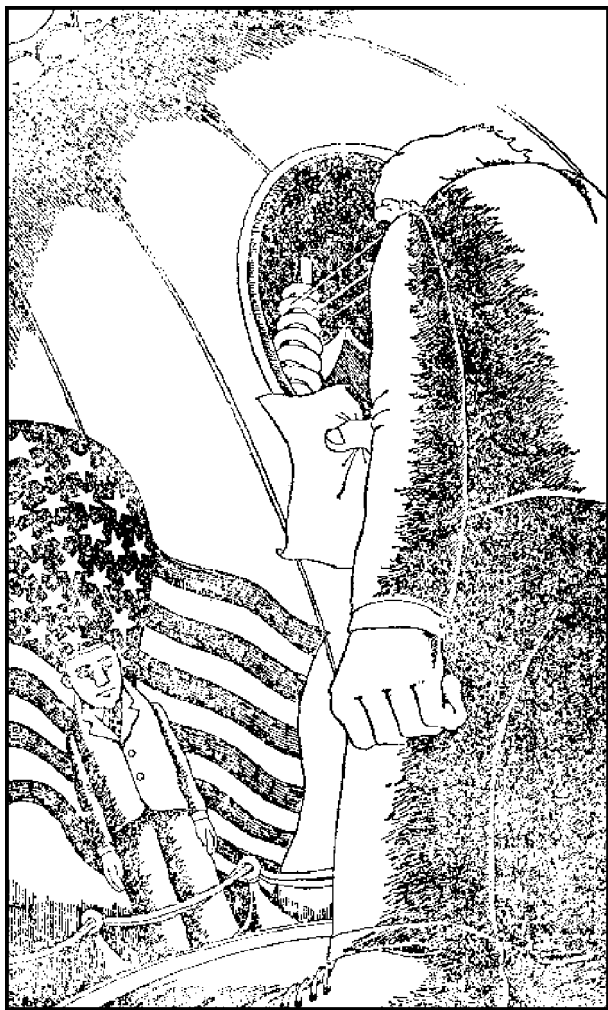
"네, 무엇 말입니까?"

"지금 제가 한 말 말입니다. 아이고 듣지 않으셨군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켈스리는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측이 우리를 제거한 것은 나타샤가 구경꾼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코를 부딪쳤기 때문이다. 아니, 이것쯤으로 놀라선 안됩니다. 하이드 씨 문제는 둘째 번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상대방을 꿈쩍 못하게 하려면 나타샤가 할 수 없는 일을 윌리엄에게 시키는 겁니다. 가령 파리의 에펠탑 꼭대기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한다던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주 비행사 대신 월리엄을 로켓에 태워 달세계로 발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이드는 지그시 쉘스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음, 훌륭한 생각이다. 월리엄이라면 할 수 있을 테지, 아니 틀림없이 한다. 더욱이 나타샤가 월리엄을 다시 볼 것이라고 말해 준다면, 됐다. 곧 그걸 월리엄의 회답이라고 국무성에 통지하기로 하지."

이 암호 전문이 워싱턴에 도착한 지 24시간 후에 하이드는 다음 전보를 받아들였다. 이번은 암호가 아니었다.

월리엄씨의 명안에 감사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회답은 합리적이며 또한 우리에게 유리하다. 소련 측에 대한 역전전으로써 크게 이용하기로 한다. 둘째 질문에 대한 월리엄씨의 제안은 훌륭하다. 전자 두뇌가 아니면 생각해 낼 수 없는 명안이다. 만국 박람회가 끝나는 대로 곧 실행에 옮긴다.

하이드는 전보를 접어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고는 전시장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월리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2, 3일 동안 구경꾼의 인기는 나타샤에게 집중되어 미국관을 찾아드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약 1 시간 전에 여원 한 영국인이 찾아왔으나 월리엄을 보고 소련관이 아닌 것을 알자 황급히 떠나갔다. 하이드는 멈춰 선서 전보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다시 한번 읽었다. '계획을 실행으로 옮긴다'는 뜻은 분명했다. 그들은 월리엄을 달에 보내기

로 한 것이었다. 하이드는 전보를 꾸깃꾸깃해서 바닥에 던졌다. 갑자기 그는 대단히 괴로운 입장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윌리엄을 배반한 것이다. 그가 웰스리의 생각에 찬성한 것은 윌리엄하고 논쟁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가엾게도 윌리엄은 자기의 보호자인 하이드에게 살해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살해된다? 아니 이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고 해도 윌리엄은 한 개의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인간을 달로 보내는 것보다는 로봇을 실험대로 쓰는 편이 훨씬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윌리엄에게는 여러모로 사랑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었다. 정직해서 교활 이라는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생각한 그대로를 말할 뿐 마음 속에 없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때로는 너무 고지식해서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그는 입구 가까이 서서 유리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잘 알았다. 나타샤하고 만나는 것을 금지 당한 그는 하이드의 눈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윌리엄에게 미안한 생각을 했다는 자책감으로 초조하던 하이드는 말했다.

"윌리엄 군, 이쪽으로 오게 잠깐 말할 게 있네."

"왜 당신은 내 방해만 하는 겁니까. 당신네들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나 생각으로 악착같습니다. 조금도 머리

를 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지쳐 버립니다. 유리창에 비친 당신 얼굴을 보십시오. 아주 지쳐 있습니다."

하고, 윌리엄이 말했다.

"모두가 자네 때문일세, 윌리엄 군. 나는 자네의 운동 장치의 설계를 시작하고부터는 죽 잠 못 자는 날이 계속되고 있단 말일세. 그런데 자네는 나타샤를 만나게 해 달라고 졸라대고 있지 않나. 이래저래 죽을 지경이라네. 그건 그렇고 나타샤는 지금은 아주 인기가 대단해서 자네 같은 건 잊어버렸을 걸세."

라고, 하이드는 말했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금방, 나타샤는 대단히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때문에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겠죠."

"음,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소비에트는 윌리엄과 나타샤의 회견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는군."

"그렇다면 어쩌서 내가 나타샤를 만나는 것을 반대합니까. 그건 당신 자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윗사람들의 명령입니까?"

하이드는 '아차! 실수했군'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화제를 슬쩍 돌렸다.

"윌리엄 군, 자넨 로켓을 타고 달나라로 가게 되었네. 자네에겐 미안하지만 이건 윗사람들이 정한 일이라서 나로서

는 어쩔 수가 없었다네."

"미안해 할 것 없습니다. 하이드 씨, 나는 괜찮으니까요. 괜찮을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한 번 들어보기로 할까. 아니면 맞춰볼까."

하고, 하이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쓸데없는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하이드 씨. 당신으로서 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나타사에게 말하기 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경비원인 오닐이 뛰어 들어왔다.

"큰일났습니다. 하이드 씨. 소련의 로봇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짓고 그 선두에 서서 말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들을 습격하러 오는 겁니다."

"윌리엄, 이곳에서 꼼짝 말게."

하이드는 이렇게 외치자마자 오닐하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나타사하고 나란히 샤체이에프의 모습이 보였다. 샤체이에프는 하이드를 보자 양손을 흔들면서 달려와 하이드를 얼싸안고 러시아어로 무어라고 외쳤다.

"샤체이에프 씨는 당신하고 친해져서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쪽에서 말했다.

하이드가 뒤를 돌아다보니 윌리엄이었다.

"윌리엄 씨, 제가 인간이었다면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서 대단히 기쁘다고 했겠지요. 좀더 일찍 오고 싶었지만 샤체이에프 씨가 당신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생각만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손님들이 무엇이라도 물어 봐도 얼토당토않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것을 신문 기자가 듣고 샤체이에프 씨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샤체이에프 씨도 저의 소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저를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윌리엄씨?"

하고 나타샤가 말했다.

"하이드 씨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당국이 소련 측 성명의 진의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잠자코 있게 윌리엄. 우리들이 한 이야기를 멋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네. 자네는 미국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일세."

하이드가 이렇게 외쳤지만 금새 신문 기자들에게 밀려 사람들 뒤로 밀려나고 말았다.

두 로봇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타샤, 당신은 지금 평화의 천사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소. 당신이 하는 일은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윌리엄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럼 얘기하죠. 지금 소련과 미국은 어느 쪽이 먼저 달나라로 가는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양쪽 나라는 아직 평화와 우호의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들에 의해 두 개로 갈라져 당장에라도 전쟁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미·소 양국은 서로 누가 먼저 달로 가느냐 하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달을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군사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 한몫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우주선에 태워서 달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홀로 있게는 안 할 작정입니다. 이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타샤의 눈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네, 알고말고요. 저도 함께 달나라로 가는 거죠. 그 우주선을 타고서."

그녀는 꿈꾸듯이 러시아어로 말했다.

샤체이에프는 너무나 놀라서 달려가 맹수에게서 자식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처럼 그녀를 일싸안고 월리엄을 향해 고함쳤다.

"당장에 꺼져. 네놈은 나타샤의 친구처럼 가장하고 그녀를 고장내려고 하고 있지? 네놈은 명령을 받고 나타샤를……"

그는 거칠게 사람들을 헤치고 하이드의 모습을 찾자 고함쳤다.

"당장 당신의 로봇을 데려가 주게. 그렇지 않으면 때려부수겠다."

그리고 싫다고 하는 나타샤를 안고 질질 끌고 가다시피해서 데리고 갔다. 나타샤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요, 윌리엄. 그렇잖으면 당신은 부서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달나라로 간다고."

모두모두 손을 잡자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에 나타샤와 윌리엄의 재회에 관한 이야기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윌리엄과 나타샤는 함께 달로 가고 싶어한다. 이것은 소련과 미국의 공동 우주 개발을 뜻하며 좋지 않은 대립, 스파이 활동, 그리고 치사한 비밀주의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그곳에서 우호적인 협력이 생기고, 이윽고는 전면적인 군비 철폐가 이루어 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서 간신히 동서간에도 평화스러운 협력의 시대가 왔다고 믿었다. 그것을 축하해서 세계의 각 도시에서는 평화 행진을 하고 그 기쁨 속에서 국제 우호를 찬양하는 노래가 온 세계에 퍼져 나갔다.

『모두 모두 손을 잡자. 우정의 손으로 세계를 잇자. 우리들은 모두가 형제다. 평화! 다 함께 외치자!』

뉴욕의 국제 연합 빌딩에서는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해서 이 노래를 국제 연합 노래로 할 것에 대해 토의했다. 표결의 결과 85퍼센트의 대표가 찬성해서 최초의

국제 연합 노래가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크레몰린과 백악관에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들은 서로 사태를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방의 뱃속을 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비에트도 미국에서도 몇 번씩 회의를 열고 나타샤와 윌리엄을 달에 보내는 것에 관해 토의했으나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두 로봇을 태울 로켓은 어느 쪽이 만듦 것인가. 발사는 어느 기지에서 할 것인가. 어느 쪽도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서 양보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가도 이야기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 신문들은 입을 모아 크게 보도했다.

(왜, 미·소 양국 정부는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 긴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나타샤와 윌리엄의 달 여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양국의 협력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라고.

평화 행진은 열광적인 데모로 변했다. 각국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국제 연합 회의에서 국제 우정 연맹이라는 것을 결성했다. 그리고 한 두 주일이 지나자 1억 인의 지지자를 얻어 각국의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정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트럼펫의 팡파르와 함께 만국 박람회 막을 내렸다. 그 날 오후 4시, 하이드는 아직 마지막 구경꾼이 다 나가기 전에 미국관의 출입구 자물쇠를 잠그러 갔다. 그 때 사람의 그림자가 뚝한 통로를 달려오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시카고 뉴스 지의 주임 기자 찰리 빙클레였다.

"잠깐만, 하이드 씨. 윌리엄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세계 손을 흔들면서 외쳤다.

"나타샤에게서 부탁 받은 겁니다. 일대 뉴스 거리예요.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는 헐떡헐떡하면서 입구까지 달려와서 말했다.

"안됩니다. 빙클레 군. 벌써 윌리엄의 스위치를 끊어 버렸습니다."

"나는 나 자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니요. 나타샤가 부탁한 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윌리엄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국제 우정 연맹에 호소하겠소. 그렇게 되면 당신은 동서 쌍방이 서로 이해하려는 것을 방해한 책임을 추궁 당할 겁니다."

하이드는 조금 열려 있던 문을 마음이 내키지 않은 대로 억지로 열었다.

"이건 아주 협박이군, 빙클레군. 만약에 자네가 윌리엄하고 얘기하겠다는 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특종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라면 난 자네를 가만 두지 않겠네."

하이드의 화난 말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듯 빙클레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빨리 윌리엄의 스위치를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흥분한 건 신문 기자가 된 이래로 처음이요. 마치 내가 달나라로 가는 것 같은. 저런, 윌리엄은 또 파업을 하는 거요?"

하이드는 윌리엄의 등에 있는 스위치를 넣었으나 그는 눈빛을 반짝했을 뿐이다. 그 눈은 홀 한 구석을 지그시 바라

보고 있었다.

"윌리엄군, 이 사람이 자네하고 얘기하고 싶다네. 자, 좀 보게나. 자네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일세."

라고 하이드는 말했다.

"나는 이제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시선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나타샤를 만나고 싶소. 나타샤만이 나를 이해해 주오.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은 그녀뿐이오."

빙클레는 윌리엄의 시선이 쏘인 곳으로 다가가 말했다.

"나는 나타샤의 심부름으로 왔소. 윌리엄군. 자, 생각나죠. 찰리 빙클레요. 자네하고 나타샤를 만나게 해 준, 나타샤와 알게 된 것은 내 덕분이란 말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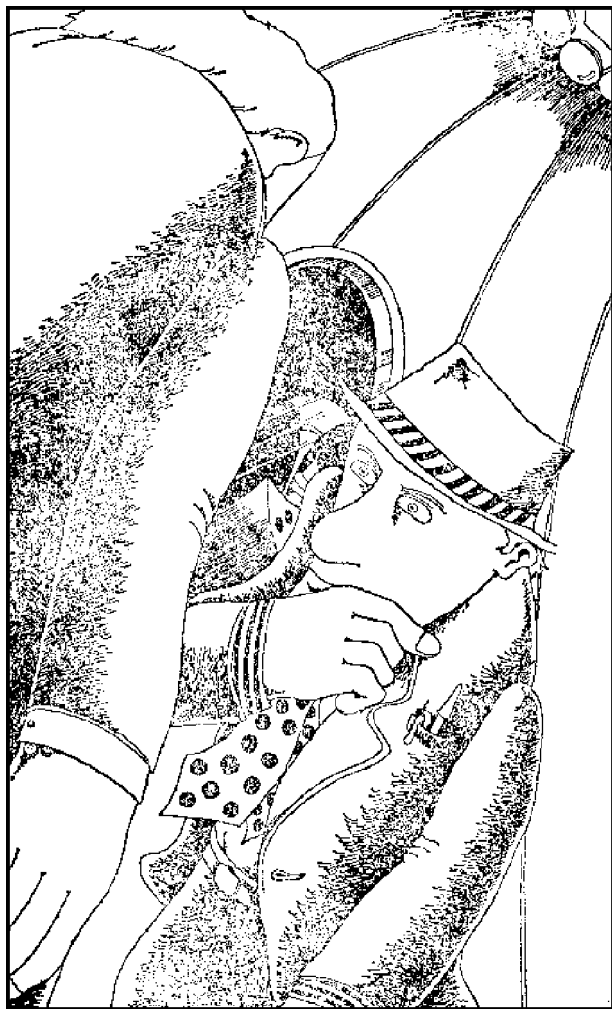
윌리엄은 천천히 얼굴을 빙클레 쪽으로 돌리자 순간 눈을 빛내며 말했다.

"당신이었소, 빙클레 씨. 또 언젠가처럼 모두가 나를 속이는 줄 알았습니다. 참말로 나타샤 쪽에서 오셨습니까? 나타샤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응, 아주 잘 있어요. 내가 헤어져 나올 때 샤체이에프는 그녀를 딴 세상에서 온 괴물이나 보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는 하이드 쪽을 흘끗 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나타샤의 말을 들으면 이번엔 하이드 씨가 깜짝 놀랄 차례요."



"나는 냉정함을 상실하는 일은 없소."

하이드는 냉정하게 말했다.

"더욱이 전언을 가져온 것이 자넨데, 까딱없네. 자네의 수법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자네의 유명한 폭탄 선언이라는 것은……"

"우선 들어 보고서……"

빙클레는 말하고 나서 또다시 윌리엄 쪽을 향하여 말했다.

"나타샤는 자네에게 이 문제를 풀어 달라고 그러더군. 문제, A하고 B하고 두 사람의 우주 여행자가 로켓을 타고 달에 가려고 한다. A는 A가 만든 로켓에 B를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B는 B가 만든 로켓에 A를 태우고 가려고 한다. 양 쪽을 만족스럽게 하려면 A하고 B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빙클레는 거기서 손을 들어,

"잘 알겠나, 윌리엄 군? 자네 친구인 나타샤는 이미 이 문제를 풀었다네. 그러나 그녀는 자네가 자기하고 같은 해답을 내 놓을지 어떤지를 알고 싶어하고 있다네."

"나는 벌써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해답이……"

윌리엄은 말하고 생각에 잠겼다. 빙클레는 손목 시계에 눈을 주고 나직이 하이드에게 말했다.

"나타샤는 12초에 풀었습니다. 윌리엄이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빙클레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윌리엄은 대답했다.

"A하고 B는 공동으로 로켓을 만들면 됩니다."

"놀랐는데, 10초로 대답했군. 훌륭히 나타샤의 기록을 깨었오."

"잠깐만, Bing클레 씨. 아직 할 얘기가 있습니다. 로켓에는 누가 만든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A의 기호, B의 기호를 새기는 것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하고 Bing클레는 외치고,

"자네는 천재다, 윌리엄 군. 그렇다. A하고 B대신에 나타샤의 (N)하고 윌리엄의 (W)를 소련과 미국 국기하고 함께 새기는 것이다. N과 W는 금색 문자로 하고 월계수로 둘러싸는 거다. 로봇 지성에 대한 인간의 이성의 승리, 아니, 이 건 실례, 반대지. 인간의 지성에 패한 로봇의 이성의 승리의 상징일세. 아아 그것을 달을 향해 쏘아 올리는 날이 눈에 선하군요."

Bing클레는 꿈꾸듯 얼굴을 쳐들었다. 하이드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 하이드의 머리는 혼란으로 얼떨떨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서 Bing클레를 향해 감탄한 듯 말했다.

"이 문제를 생각해서 나타샤에게 질문한 것은 자네이겠군.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네. 소련하고 미국이 협동해서 로켓을 만든다. 이 문제를 나타샤하고 윌리엄의 합리적인 머리로 풀게 한다는 것은 진정 감탄했네. 어째서 이런 당연한 생각이 내게는 떠오르지 않았을까. 더욱이 윌리엄을 제작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도. 아니, 윌리엄군, 용서해주게. 나는 자리에게 냉혹하게 대한 일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신경을

써서 참을성이 모자라서 그랬다네. 그리고 자네도 말이네, 빙클레군. 자네도 용서해……"

"자네도 용서해 ……"

하고 빙클레는 중얼거렸다. 하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 그는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노트에 적고 있었으나 눈을 들고 말했다.

"자, 어서 계속하세요, 하이드 씨, '자네도 용서해' 까지 썼는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건 애석한데. 좀더 계속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만 당신이 한 말은 전부 기사로 쓸 수 있어요. 이 달 여행 소동이 일단락 되면 곧 쓰겠습니다."

빙클레는 노트하고 연필을 호주머니에 넣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일부러 정중하게 절을 했다.

"자, 그럼 전 이걸로 실례합니다. 이제부터 기운을 내서 폭탄 기사를 쓰기로 하죠. 이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워싱턴에 전보를 쳐서 그곳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이제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드 씨, 그리고 윌리엄 군. 저런 어디로 가나, 윌리엄 군."

"나타샤한테 갑니다. 하이드 씨는 지금 나에게 냉정하게 대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타샤에게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거기 있게."

하고 하이드는 윌리엄을 뒤따라가면서 외쳤다.

"자네는 또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는군. 자네는 이

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제멋대로 나다니려고 한단 말인가?"

"보내 주세요. 당신은 또 제게 냉혹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나는 항의하겠습니다……"

윌리엄은 아직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으나, 하이드는 찢깍하고 스위치를 끊어 버렸다.

신랑 신부처럼

달로켓 '팍스'의 제작 공장과 발사 기지는 발트해에 접한 독일의 해안에 설치되었다. 과거에는 동서 독일을 가르는 두꺼운 장벽이 있었던 그곳에 공장, 연구실, 기숙사 등이 서 있었다. 수개월 동안 함께 일하고 있는 동안에 소련과 미국의 기사와 과학진, 공원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 '팍스'는 양국의 첩편으로 완성했던 것이다. 이 로켓은 지금까지 소련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로켓보다도 크다. 그것은 철로 된 거대한 등대처럼 그리고 인류의 꿈의 상징처럼 그곳에 우뚝 솟아있었다. 하늘까지도 닿을 듯 싶은 로켓 위를 갈매기가 가볍게 날고 있었다. 소련의 기계공인 니콜라이가 그것을 가리키며 미국인 동료인 자니에게 서투른 영어로 말했다.

"저 새, 평화의 비둘기 같다. 진정, 거짓말 아니오."

자니는 감개무량한 듯 그것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렇다네 니콜라이. 저것은 분명히 평화의 사자일세."

자니는 니콜라이의 어깨를 안고 계속했다.

"나쁜 시대도 있었지.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겁을 먹고 있던 시대 말이네. 생각해 보게, 니콜라이. 자네는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날아갔을 지도 알 수 없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좋은 친구일세. 저 두 로봇 덕분이네. 인간이 아닌 로봇들 말이네. 우습지 않나?"

"난 우습지 않아. 난 슬프오. 인간 나타샤하고 윌리엄 말 들었소. 그 로봇에게서 여러 가지 배웠소. 그런데 나타샤하고 윌리엄을 달로 보내 버린다……"

자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로켓을 바라보았다.

"그렇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 그래. 저것을 달로 쏘아 올려서 둘이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지나 않을지 모르겠군. 나는 바보였네 니콜라이. 소련하고 미국이 협정에 사인했다고 듣고 뿔 듯이 기뻐했지……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 누구라도 충분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어 버리니까, "

자니는 이렇게 말했으나 곧 또 밝은 얼굴을 하고,

"자, 니콜라이. 그런 슬픈 생각은 그만 두기로 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살아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친구란 말일세. 자, 니콜라이 다 함께 축하하세. 우리들이 만든 로켓이 오늘 발사된다네. 미국인인 나하고 소련인인 자네가 만든 저 로켓 이름은 '팍스', 평화라는 의미의 말일세."

미, 소 양국 정부 수뇌의 인사가 끝나자 양국 국가가 연

주되고 이어서 국제 연합 노래 '모두모두 손을 잡자'가 연주되었다. 두 수뇌는 서로 걸어와 굳은 악수를 교환했다. 그들의 진지한 눈빛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우호 관계를 계속할 것을 맹세하고 있었다. 로봇의 문제를 해결시켰다는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덕택에 지금은 특별 특파원으로 승진한 찰리 Bing클레는 마이크를 향해 식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방송석은 로켓 주변의 움직임이 한 눈에 보이는 장소에 설치된 사방이 유리로 된 탑 안에 있었다. Bing클레는 엄숙한 목소리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각국 대표, 외교관, 그 밖의 분들이 마침내 전용의 피난처로 이동을 개시했습니다. 피난처의 전면은 두꺼운 방풍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는 내빈 여러분들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켓은 굉장한 크기입니다. 나는 보고 있는 사이에 눈이 핑 돌아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로켓의 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나타샤와 윌리엄이 들어갈 캡슐의 내부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앗! 왔습니다."

Bing클레의 목소리는 확실히 그가 흥분해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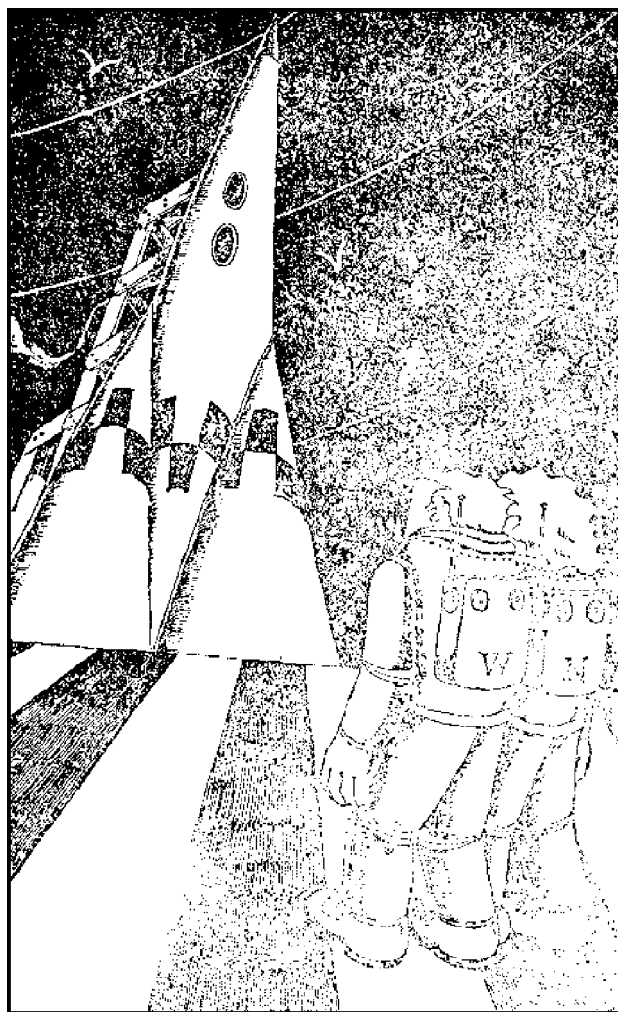
"나타샤와 윌리엄이 오픈카를 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련의 과학자 빼벨 사체이에프 씨와 미국의 주임 기사 엘더스 하이드 씨에게 인도되어서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과학자는 만국 박람회에서 두 로봇의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나타샤하고 윌리엄은 우주복을 입고 있습니

다. 희고 반짝반짝 빛나는 우주복은 나타샤의 매력적인 작은 얼굴을 더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그 얼굴은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우주모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숨을 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윌리엄도 회색 우주복이 썩 잘 어울립니다. 차가 멎었습니다. 윌리엄이 일어나서 나타샤의 손을 잡고 로켓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단을 향해 걸어가는데 신랑 신부 같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신혼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이상한 말을 다 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느낀 대로 전해 드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저 두 사람이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들과 절친한 친구처럼 서로 사귀어 온 사이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빙클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 슬픔을 억누르고 저 사랑스러운 두 사람이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중대한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을 대신해서 달로 가서 인간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그들의 체험을 지구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달 여행을 생각할 때 저는, 그들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빙클레는 감개 무량한 듯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방송을



계속했다.

"계원이 나타샤하고 윌리엄을 로켓의 엘리베이터에 태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샤체이에프 씨가 나타샤의 어깨를 얼싸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보여 주고 싶은 광경입니다. 샤체이에프 씨가 나타샤의 뺨에 이별의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샤체이에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윌리엄을 얼싸안고 있습니다. 마침내 윌리엄과 나타샤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샤체이에프 씨는 나타샤를 만류하려는 것처럼 양팔을 내밀었습니다. 하이드 씨가 타일러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샤체이에프 씨는 돌아다보고 무엇인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샤는 손을 흔들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하고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멀었습니다. 계원이 두 사람의 로봇을, 로봇을…… 오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친구를 도와 캡슐에 넣고 있습니다. 아련히 윌리엄의 머리가 보입니다. 오른손을 뻗어서 나타샤를 로켓 안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계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로켓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신하라는 신호입니다. 마침내 인류가 가장 위대한 과학적 기적을 이룰 역사적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방송석을 둘러싼 한 건물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은 일은 이제 단추를 누르는 것뿐입

니다. 단추를 누를 사람은 지금 초를 새고 있겠지요. 그 사람의 가슴도 제 가슴처럼 이렇게 뛰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다만 무사히 로켓을 발사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냉혈 인간일까요.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또한 저와 같이 느끼고 저와 같은 긴장감에 떨고 있겠지요. 앗? 로켓 밑에서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연기의 구름에 가려 로켓의 아랫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팍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끌어올리는 듯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다란 불 꼬리를 끌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신이 요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나타샤! 안녕히, 윌리엄! 나는 인류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감사하오.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소. 만약에 진정 지상에 평화를 위한다면 무슨 일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결코 당신들을 잇는 일은 없을 것이오……"

찰리 벙클레의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돌연 찰각 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러분, 이것으로 독일 기지에서 있는 평화 로켓 '팍스' 호의 발사 실행 방송을 끝냅니다. 그럼 이제부터 경음악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는 이 돌연한 방송 중단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방송 본부의 편성 부장이 부하인 프로듀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찰리 벙클레의 방송을 그 이상 계속 시킬 수가

없었던 말이네. 그는 그 로봇들에 대한 우정 때문에 그들이 이성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을 만든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지구에 남아 있네. 이번 성공으로 그들이 로봇을 제작할 때 얻은 지식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지 않겠나?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프로듀서는 잠시 생각해 보고 대답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파괴를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해 온 과학자들도 자기들의 진정한 임무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았겠지요."

작품 해설

원자 폭탄과 인류의 평화

이 작품을 쓴 작가 칼 브루크너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이며, 아동과 관련시켜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썼다. 1949년에 발표한 작품 "인디언 소년 파브로"를 보면, 제 1차 멕시코 혁명 전쟁(1911년)을 배경으로 면화 농장에서 노예 같이 혹사당하고 있던 인디언 소년 파브로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농민들과 함께 백인의 부정과 압제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또 "나폴리의 불량아"(1955년)에서는 가난한 구둣방에서 일하고 있던 고아 지노가 구둣방을 뛰쳐나와 나폴리의 불량아들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건축가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곳곳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브루크너는 불행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주제로 하여 그들의 가혹한 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무언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브루크너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브루크너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변두리 빈민촌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인쇄공을 아버지로 둔 그는 생활이 어려워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실통치 못하였다. 그리하며 그는 28세 되던 해 품팔이를 할 결심으로 브라질로 건너갔다. 그러

나 그는 그 곳에서도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 만에 오스트리아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취미가 다양하여 미술, 음악, 스포츠 등 여러 방면의 직장에서 일해 보았으나, 어느 한가지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브라질에서의 이야기를 글로 써 보라는 권유를 받고 펜을 든 것이 작가가 된 동기가 된 것이다.

브루크너의 희망은 평화롭고 풍요한 사회가 하루 빨리 실현되어, 세계가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브루크너에게 충격을 준 것은 세계 제 2차 대전 중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이었다. "로봇 스파이 전쟁"에서도 일본 노인을 등장시켜 원폭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게 하고 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세계는 또다시 핵폭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또다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수소폭탄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브루크너는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다. 인류의 평화를 희망하는 작가로서 원폭은 중대한 문제였을 것이다. 1962년에 발표한 작품 "사다꼬는 산다"에서도 브루크너는 원폭의 무서움을 전 세계의 소년 소녀와 그들의 부모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마라. 우리들 안에는 더 큰 위험이 임박하고 있다. 많은 수소폭탄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 파괴력은 일순간에 히로시마를 전멸시킨 원자폭탄의 몇 천 배나 되는 위력이 있는 것이다."